

소그룹의 심정적 관계 증진: EPIC을 통한 새로운 신앙 패러다임 사례연구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매러디스 솔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정진욱 목회학박사

송규상

드루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26년 5월

Copyright © 2026 Kyusang Song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ENHANCING AFFECTIVE RELATIONSHIPS IN SMALL GROUPS: A CASE STUDY ON A NEW FAITH PARADIGM THROUGH EPIC

Kyusang Song

Wolgwang Church, Gwangju, Korea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risis faced by the Korean church. In the aftermath of the COVID-19 pandemic and to explore new pastoral alternatives for overcoming this challenge. The pandemic, unprecedented in the 21st century, brought about social isolation, economic and political paralysis, and a fragmentation of human relationships. These circumstances directly affected the Korean church, leading to the suspension of worship services and the rapid expansion of online worship. In this process, the identity of the church was significantly shaken. Most notably, the weakening of communal faith and the breakdown of emotional bonds among believers led to the rise of phenomena such as “Ganaan Christians” and “floating Christians.” This rapid transformation revealed not merely a change in worship style but a profound crisis in the church’s social credibility and spiritual essence, which the Korean church continues to address as an urgent pastoral task.

Within this context,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Leonard Sweet’s EPIC theory (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driven, Connected), which has been recognized as a valuable framework for interpreting the identity of the postmodern church. By applying and reconstructing this theory to reflect the realities of the Korean church, this study

proposes the “EPIC L.I.F.E.” (Learning, Immersive, Fellowship, Experience) model as a new paradigm for faith practice.

This study adopts a case study methodology centered on the small group ministries of Wolgwang Church. Various practices such as one-on-one discipleship, the Angelus prayer, evangelistic journeys, bazaars, family worship, and the Scripture Meditation School enabled believers to recover communal faith and emotional relationships through processes of experience, participation, immersion, and learning. The findings confirm that the EPIC L.I.F.E. model functions as an effective and practical alternative for enhancing affective relationships among congregants and strengthening the resilience of the church community.

Through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e Korean church will be equipped to address its post-pandemic pastoral challenges, restore the essence of genuine Christian community, and establish a renewed paradigm of faith for the contemporary era.

국문초록

소그룹의 심정적 관계 증진: EPIC을 통한 새로운 신앙 패러다임 사례연구

송규상

월광교회, 광주, 한국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목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1세기에 처음 겪게 된 팬데믹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정치의 마비, 그리고 관계의 단절이라는 아픔을 초래하였다. 이는 한국교회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예배의 중단과 온라인 예배의 확산을 초래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회의 정체성은 심각하게 흔들렸다. 무엇보다 신앙의 공동체성이 약화되고, 성도 간의 정서적 유대가 단절되었다. 그 결과, 가나안 성도와 플로팅 크리스천의 증가라는 새로운 신앙 현상으로 확산되었다. 이러한 급변은 단순한 예배 방식의 전환이 아니라 교회의 사회적 신뢰와 영적 본질의 위기를 드러낸 현상이었기에 한국교회는 이에 대응할 목회적 과제를 시급히 풀어가야 했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레너드 스윗 박사(Leonard Sweet, Ph.D.)의 EPIC 이론(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driven, Connected)에 주목하였다. EPIC 이론은 포스트모던 시대 교회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로 평가되며, 본 연구는 이를 한국교회의 현실에 적용하고 재구성하여 새로운 신앙 패러다임으로서 ‘EPIC L.I.F.E.’ (Learning, Immersive, Fellowship, Experience) 모델을 제안한다.

연구 방법은 사례 연구이며, 구체적으로 월광교회의 소그룹 사역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삼중기도, 전도여행, 바자회, 가정예배, 말씀묵상학교 등의 활동은 성

도들이 경험, 참여, 몰입, 배움이라는 과정을 통해 신앙 공동체성과 정서적 관계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례의 연구 결과로 ‘EPIC L.I.F.E.’ 라는 신앙생활 모델은 성도 간 심정적 관계 증진과 공동체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실천적 대안으로써 긍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나타났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COVID-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목회적 과제를 해결하고,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며, 새로운 신앙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목차

감사의 글	xiii
표 목차	x
그림 목차	xi
I. 서론	1
A. 연구 동기와 문제 제기 목적	1
B. 연구 목적	3
C.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4
D. 연구의 방법과 구성.....	6
II. COVID-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이해	9
A. 한국사회와 교회의 변화	9
B. 한국 교회의 현실 목회	11
C.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한 심정적 관계의 정의.....	13
III. 레너드 스윗의 “EPIC”	17
A. 레너드 스윗의 사상	17
B. EPIC 이론의 배경과 필요성	18
1. EPIC 이론의 배경	18
2. EPIC 이론의 필요성	20
C. EPIC 이론에 대하여	21
1. 경험적 교회(Experiential Church): 이해를 넘어 체험으로 ..	21
2. 참여적 교회(Participatory Church): 대리에서 공동 창조로 .	23

3. 이미지 지향 교회(Image-driven Church): 개념에서 상징과 이야기로	26
4. 연결된 공동체(Connected Community): 개인주의에서 관계적 존재로	27
D. 한국교회 안에서의 EPIC 이 갖는 의미	29
IV. 새로운 패러다임 EPIC L.I.F.E. (Learning-Immersive-Fellowship-Experience)	33
A. EPIC 에서 EPIC L.I.F.E.로의 확장	35
B. EPIC L.I.F.E. : 월광교회 적용형 모델	37
1. Image-driven(I)의 확장 : Learning(배움)	37
2. Image-driven(I) + Experiential(E)의 확장 : Immersive(몰입)	38
3. Participatory(P) + Connected(C)의 확장 : Fellowship(교제)	39
4. Experiential(E) + Connected(C)의 확장 : Experience(경험)	40
C. EPIC-Learning : 말씀 묵상을 통한 영적 성숙의 여정.....	41
1. 말씀묵상학교	42
a. 멈추기	47
b. 머물기	51
c. 나아가기	60
2. 관찰된 변화와 EPIC 분석	66

D. EPIC-Immersive: 삼중기도와 가정예배를 통한 전이적인 몰입 ...	67
1. 몰입하는 ‘삼중기도’	68
2. 삼중기도의 영적 의미와 월광교회의 기도의 회복	70
3. 사례 요약 및 EPIC 분석	81
E. EPIC-Fellowship: 가정예배를 통한 믿음의 공동체 형성	83
1. 가정예배와 Fellowship 의 형성구조	85
2. 월광교회의 가정예배의 실제적 운영 모델	87
a. 말씀가정형	87
b. 식탁교제형	88
c. 일반가정형	89
3. 관찰 결과와 이론적 접목	90
F. EPIC-Experience: 바자회를 통한 나눔과 섬김의 실천	93
1. 경험 중심 교회로의 전환과 바자회의 의미 변화	95
2. 나눔과 섬김의 체험화와 신앙 형성의 토양, 가정	98
3. 관찰된 변화와 목회적 시사점	108
V. 결론: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도약	113
A. 연구의 기여	113
B. 목회적 적용 가능성	116
C. 연구의 한계	117
D. 후속 연구 제안	118
참고문헌	120
부록	125

표 목차

(표 4-1) 심정적 관계 분석틀	34
(표 4-2) 말씀묵상 읽기의 도구들	57
(표 4-3) 영성훈련 ‘삼중기도’ 시간표	72
(표 4-4) 영성훈련 인도자 매뉴얼	73
(표 4-5) 가정예배 시작을 위한 사전 점검표	86
(표 4-6) 바자회 만족도 조사	109
(표 4-7) 바자회 만족도 조사	110
(표 4-8) 바자회 만족도 조사	110
(표 4-9) 심정적 관계 다섯가지 요소와 EPIC L.I.F.E. 사례 적용표	112

그림 목차

(그림 4-1) 월광교회 말씀묵상학교	43
(그림 4-2) 말씀묵상학교 ‘성경’	43
(그림 4-3) 말씀묵상학교 첫 주제	44
(그림 4-4) 말씀묵상학교 성경을 배우는 다양한 방법들	45
(그림 4-5) 말씀묵상학교 비전적 제시	46
(그림 4-6) 말씀묵상학교 개인차원, 교회차원	47
(그림 4-7) 말씀묵상 ‘멈추기’ 목표와 과제	51
(그림 4-8) 말씀묵상 ‘머물기’ 목표와 과제	59
(그림 4-9) 말씀묵상 ‘나아가기’ 의 세 가지 방법	61
(그림 4-10) 말씀묵상 ‘나아가기’ 목표와 과제	65
(그림 4-11) 영성훈련 ‘삼중기도’	72
(그림 4-12) 영성센터 일일훈련(삼중기도) 인도자 자리	80
(그림 4-13) 가정예배 드리는 다자녀 가정	92
(그림 4-14) 3대가 화상으로 드리는 가정예배	93
(그림 4-15) 바자회 개요	94
(그림 4-16) 바자회 설명자료	96
(그림 4-17) 바자회의 변화를 위한 조직도	97
(그림 4-18) 바자회 포스터	99
(그림 4-19) 바자회 먹거리존 대표메뉴판	100
(그림 4-20) 바자회 놀이존의 놀이기구들	101

(그림 4-21) 바자회 체험존의 ‘복음텐트’	103
(그림 4-22) 바자회 체험존 ‘새끼꼬기’	103
(그림 4-23) 바자회 공연존의 실내 ‘가족뮤지컬’	105
(그림 4-24) 바자회 공연존의 ‘야외 공연’	105
(그림 4-25) 바자회 피크닉존	107
(그림 4-26) 바자회 후 피크닉존 이용 모습	107

감사의 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목회적 전문성을 더욱 깊이 하기 위해 시작한 학업의 여정이 한 편의 논문으로 결실을 맺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 선하게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은혜와 지혜로 채워 주신 주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학문과 목회의 깊이를 일깨워 주신 조병호 박사님과 레너드 스윗 교수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통찰과 가르침은 이 논문을 넘어 제 목회 전반에 분명한 방향성과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또한 논문 전 과정에서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격려로 함께해 주신 김영래 교수님을 통해 깊이 있는 신학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의 헌신적인 가르침은 이 논문이 완성될 수 있었던 큰 힘이었습니다. 특별히 사역과 함께 학업을 진행 토록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김요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과 함께하며 섬김과 기다림의 목회를 경험할 수 있었음은 저에겐 큰 은혜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여년에 가까운 세월을 함께 걸으며 지속적인 기도와 격려로 걸을 지켜 준 아내, 천란에게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자신의 교직활동을 포기하고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은 어느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잘 압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헌신으로 포기가 아닌, 도전을 선택하게 해 준 사랑과 지지는 이 여정을 가능하게 한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후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누님에도 감사드립니다. 그 지원은 한계를 넘어 새로운 용기를 갖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생을 먼저 생각하며 헌신했기에 이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헌신의 삶을 살아오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보여 주신 부모님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두 분의

변함없는 사랑이 오늘의 저를 있게 했습니다. 힘든 시기마다 기도로 채워 주시며 버팀목이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인 송율, 송슬, 송결에게도 사랑과 감사를 전합니다. 사춘기의 시기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가장인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으며, 이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함께해 주셨으나 일일이 다 언급하지 못한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면의 한계를 넓혀 모두를 기록할 수 없음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이 논문이 하나님 나라와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작은 도구로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2026. 5

송규상

I. 서론

A. 연구 동기와 문제 제기

2019년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 팬데믹’은 개인의 삶과 사회 전반에 심대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여기에 한국사회와 한국교회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면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라는 형태가 보편화되면서, 성도 간 관계 방식으로 이루어진 교회 공동체에 혼란이 온 것이다. 이는 단순히 예배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 공동체성의 약화라는 심각한 문제를 불러왔다. 온라인 예배는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공하였지만, 동시에 성도 간의 관계와 소속감을 약화시켰다. 나아가 여러 교회의 예배와 설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은 특정 교회에 정착하지 않는 새로운 신앙 양식을 낳았다. 바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다.

‘플로팅(floating)’은 ‘물이나 공중에 떠 있는 상태, 유동적인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이들은 고정값이 없는 상태나 가치나 비율을 가지지 않고 계속해서 유동적 모습을 취하는 성도를 말하는 것이다.¹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신앙 활동을 하는 그러한 성도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팬데믹 이후 온라인 예배 확산과 다양한 교회의 콘텐츠 소비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신앙의 모습이다.

¹ 정재영, “플로팅 크리스천에 대한 이해” (2023),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15660> [2023. 2. 6. 최종접속].

최근 한국교회 구성원의 약 33%가 특정 교회에 소속되지 않은 채 신앙 활동을 이어가는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통계 결과는 공동체 위기의 심각성을 방증한다.² 그렇기에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목회적 해답을 모색하는 일은 한국교회가 직면한 핵심 과제가 되었다. 또한 ‘2022년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 결과 발표’에 의하면 엔데믹이 되었음에도 한국교회의 평균 출석수가 80%가 못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영적 갈급함을 느낀다’라고 응답하였다.³ 본 연구 시점인 2025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예배 참여의 문제만이 아닌, 교회 공동체가 본래 지니고 있던 관계적 신뢰와 정서적 결속이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팬데믹 이후 교회의 다양한 사역과 프로그램이 재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간의 관계 회복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장기간의 단절로 인해 관계 형성에 대한 부담과 거리감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 목회 구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던 소그룹 사역은 이러한 변화의 직격탄을 맞았다. 기존처럼 프로그램 중심과 조직 중심 운영 방식만으로는 더 이상 공동체 회복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한국교회의 위기는 운영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유지되는 방식 자체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교회의 회복은 제도의 변화나 프로그램의 재편에 있지 않고 관계가 어떻게 다시 형성되고 회복되어야 하는지를

²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228호): 한국교회 추적조사 2024”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13&page=4 [2025. 8. 25. 최종접속].

³ 한지은, “코로나 이후 목회자·교인 인식 조사 결과발표,” 「한국장로신문」, 2022년 5월 31일자.

신학적, 목회적으로 접근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공동체 위기의 핵심을 성도 간 심정적 관계의 약화로 진단한다. 이에 본 연구의 핵심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소그룹 사역은 성도 간 심정적 관계의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 과정은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을 통해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다음의 하위 질문을 설정한다.

- 첫째,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소그룹 안에서 심정적 관계는 어떠한 방식으로 약화되었는가?”
- 둘째, “EPIC 이론의 네 요소는 이러한 관계 변화와 회복 과정을 설명하는 데 어떠한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가?”
- 셋째, “월광교회의 소그룹 사례는 심정적 관계 회복의 실제 가능성과 구조적 한계를 어떻게 보여주는가?”

B.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이전의 교회로의 회복이 아닌, 새로운 시대에 맞는 심정적 관계를 회복하며 실천적으로 탐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레너드 스윗의 EPIC(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driven, Connected) 이론을 팬데믹 이후 시대의 교회 정체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틀로 주목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의 연구는 월광교회의 사역 평가 자료를 활용한 문헌 연구와 현장 사례 분석을 병행함으로써 이론과 실재를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천 모델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하여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상황에 맞게 재구성한 ‘EPIC L.I.F.E.’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목회 현장의 사례 분석을 통해 그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C.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본 논문은 사례 연구를 주요 연구 방법으로 한다. 또한 심정적 관계를 정서적 유대, 영적 공감, 신뢰, 소속감, 수용성의 다섯 가지 요소로 분석한다. 이 다섯 요소는 이후 사례 분석과 EPIC L.I.F.E. 모델의 해석 기준으로 일관되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COVID-19 팬데믹 이후의 한국교회와 현실 목회 현장의 고충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목회적 대안 및 목회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고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연구 동기와 목적에 따라 관련 서적과 학술 논문을 중심으로 문헌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스윗(Leonard Sweet)의 EPIC 이론의 실천적 사례를 제시하여 목회적 대안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EPIC을 ‘실천 모델’로 재구성하여, 한국교회 소그룹 사역의 실제 흐름 속에서 성도 간 심정적 관계 회복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PIC의 네 요소를 Learning(배움), Immersive(몰입), Fellowship(교제), Experience(경험)라는 네 가지 실행 범주로 전환한 ‘EPIC L.I.F.E.’ 모델을 제시한다. 이 모델을 통해 스윗의 EPIC 이론이 한국교회의 현장 목회에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신앙 틀로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 말하는 ‘심정적 관계’는 정서적 친밀감을 넘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정서적 유대, 영적 공감, 상호 헌신, 신앙적 신뢰가 통합된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 간 감정 교류를 넘어, 공동체 구성원들이 삶과 신앙 여정에서 서로 깊이 연대하며 정서와 영성이 교차하는 유기적 관계 구조이다.

신학적 관점에서 관계성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과도 깊이 연결된다. 위르겐 몰트만은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에서 관계성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며 사랑의 구조”라 설명하면서, 인간 역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고 말한다.⁴ 따라서 교회의 공동체성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된 생명 공동체로 이해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심정적 관계’는 성도 간 관계를 단순한 사교적 친밀감이 아닌, 신앙 안에서 형성되는 영적 결합 관계로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스윗 박사의 ‘EPIC’ 이론을 통해 이 관계의 회복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특히 ‘Connected’ 개념은 성도 간의 정서적 연결과 영적 유대를 강조하며, 이는 심정적 관계의 회복을 위한 핵심 신학적 근거로 활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개념을 분석하기 위해 심정적 관계를 네 가지 방향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정서적 유대는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의미한다. 둘째, 영적 공감은 고민과 영적 질문, 신앙 생활에서 갖게 되는 경험을 나누고 그 의미를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이해해 가는 관계적 깊이를 의미한다. 셋째, 신뢰는 개인의 삶과 신앙의 깊이까지 공유할 수 있을 만큼 형성된 관계적 신뢰를 뜻한다. 넷째, 소속감은 교회 공동체가 단순한 참여 공간만이 아닌, ‘내가 속한 그룹’으로 인식하며,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수용성은 공동체 안에서 개인의 차이, 신앙의

⁴ 위르겐 몰트만(Jürgen Moltmann, 1926-2024),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광미숙 역 (서울: 동연, 2009), p45-47.

속도, 삶의 상황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험을 의미한다.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관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다섯 가지 분석 요소를 기준으로 소그룹 사역 안에서 나타난 관계의 변화를 사례 분석 및 관찰과 심층 면담을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시대에 한국교회가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할 관계 형성의 구조를 신학적, 목회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단일 교회의 성공 사례를 보고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전반에 나타나는 관계적 단절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틀과 기준을 제시하려는 시도이다.

D. 연구의 방법과 구성

본 논문 연구는 월광교회의 소그룹 사역 현장을 중심으로 한 질적 사례 분석에 기초한다. 자료는 문헌 연구, 참여 관찰, 심층 면담,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수집되었다. 실제적 사례 연구 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기간 동안 월광교회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한 관련 프로그램(말씀묵상학교, 삼중기도, 가정예배, 바자회)에 참여한 성도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방법은 참여 관찰, 심층 면담, 설문조사를 병행하였으며, 참여 관찰은 정기적인 소그룹 모임과 신앙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성도 간 상호작용과 관계 변화 양상을 기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심층 면담은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여 성도들의 신앙 경험과 관계 인식을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수집된 설문과 면담 자료는 주제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면담 자료와 설문 응답을 반복적으로 검토하며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고, 이를 유사한 개념끼리 범주화하였다. 이후 정서적 유대, 영적 공감, 신뢰, 소속감, 수용성이라는 다섯 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코딩하여, 소그룹 사역이 심정적 관계 형성에 미친 영향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였다.

그 결과로 ‘EPIC L.I.F.E.’ 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 세부적 요소인 ‘Learning’ , ‘Immersive’ , ‘Fellowship’ , ‘Experience’ 를 분석의 주요 범주로 삼아 소그룹 사역이 성도 간 심정적 관계 형성에 미친 영향을 해석하였다. 이를 통해 신앙적 경험의 변화, 공동체 소속감의 강화와 정서적 친밀감의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EPIC L.I.F.E.’ 라는 공동체적 신앙 모델의 실천적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Learning(배움)’ 은 ‘Image-driven’ 에서 확장되어 지식 축적이 아니라 말씀과 상징이 마음속에 ‘이미지로 남는’ 과정을 의미한다. 말씀묵상학교에서 사용된 구조(머무르기, 멈추기, 나아가기)은 텍스트를 이미지로 전환하고, 그 이미지가 다시 성찰과 변화로 이어지도록 돕는다. 결국 EPIC의 Image-driven은 소그룹에서 ‘Learning’ 의 구조로 자연스럽게 재구성된다. ‘Immersive(몰입)’ 은 ‘Image-driven’ 과 ‘Experiential’ 에서 확장된다. 삼중기도를 통해 신앙의 내적 깊이를 ‘몰입’ 을 통해 실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삼중기도를 통해 그려지는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 전인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즉, EPIC의 두 요소가 결합된 형태가 ‘Immersive’ 가 된다. ‘Fellowship(교제)’ 는 ‘Participatory’ 와 ‘Connected’ 에서 확장된다. 소그룹 교제는 단순한 친교 시간을 넘어 서로의 이야기 나눔에 참여함으로써 관계가 형성되는 참여의 장이다. 또한 정서적 유대와 영적 신뢰는 공동체 안의 연결성을 회복하는 핵심이다. 그렇기에 ‘Fellowship’ 은 EPIC의 P와 C의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목회적 형태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Experience(경험)’는 ‘Experiential’과 ‘Connected’의 확장이다. 바자회를 통해 봉사와 섬김이라는 공동의 실천을 체험하고 경험함과 동시에 현장이라는 실천 속에서 관계적 연결을 형성하게 된다. 그렇기에 EPIC의 E와 C의 요소가 동시에 구현된다. 이는 작은 소그룹과 큰 공동체의 공동의 경험이기에 가장 강력한 공동체성의 회복을 이루며 ‘EPIC L.I.F.E.’의 핵심이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I장에서는 연구의 동기와 목적을 밝히며 COVID-19 팬데믹으로 흔들렸던 한국교회가 회복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겨진 회복의 공백에 대한 연구 배경과 목적에 대해 구성하였다. II장에서는 COVID-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성도의 인식변화와 신앙적 실태를 통계를 통해 분석하고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을 파악하여 현실목회의 심각성을 규명하였다. III장에서는 스윗박사의 EPIC이론을 소개한다.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이라는 네 가지 핵심 개념이 어떻게 목회 현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지를 설명한다. 이를 위해 신학적 의의와 실천적 방안을 밝혔다. IV장에서는 EPIC이론으로 접근하는 대안적 모델로서 ‘EPIC L.I.F.E.’의 실천적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통해 공동체의 회복과 성도 간의 심정적 유대 강화에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한다. V장에서는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밝히며 나아가 한국교회의 다양한 목회 현장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사례로서 ‘EPIC L.I.F.E.’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실천적 제언을 제시한다.

II. COVID-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이해

A. 한국사회와 교회의 변화

COVID-19 팬데믹은 정치, 경제와 환경 전반에 구조적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인간의 정서와 관계 형성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대면 활동의 제한과 비대면 일상의 확산은 공동체를 유지하던 기존의 관계 구조를 약화시켰고, 그 결과 종교 공동체인 교회도 동일한 위기를 경험했다. 결국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위기는 단순한 사회적 배경 변화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는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전제 조건 자체가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이후 소그룹 안에서 심정적 관계가 약화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사회적 전제가 된다.

그렇기에 본 장의 현실 분석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 자체를 기술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팬데믹 이후 소그룹 내 심정적 관계가 왜 급격히 약화되었는지, 그리고 그 회복이 왜 한국교회에서 시급한 과제인지를 규명하기 위한 기초 분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시 말해 사회적 불안정성과 관계적 단절이 심화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소그룹의 정서적 결속과 신뢰 구조가 어떤 방식으로 흔들렸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후 제시할 새로운 신앙의 패러다임인 EPIC L.I.F.E. 모델의 필요성과 신학적, 목회적 타당성을 드러내고자 한다.

한국 사회의 탈종교화는 단순한 종교 이탈이 아니라, 신앙이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화된 영성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팬데믹 이후 이러한 경향은 온라인 콘텐츠와 비대면 신앙 실천을 통해 더욱 가속화되었으며, 이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과 지속적 관계 형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⁵ 이 변화는 교회 출석의 감소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맺어야 할 필요성 자체가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⁶

팬데믹은 사회적 변화와 종교의 지각 변동뿐 아니라 공동체 구조 전반의 변화를 가져왔다. 사람은 사람과 만나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로 나아가는 기반으로 학교라는 공동체를 갖추게 되었다. 이를 통해 대학, 기업, 국가라는 공동체 활동을 이루며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팬데믹은 사람의 기본 활동을 제약하므로 활동의 반경을 최소한으로 한정하였고, 이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 활동이라는 새로운 삶의 형태로 우리를 변화케 하였다. 통계청의 ‘팬데믹이 가져온 일상생활과 여가활동의 변화’ 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오프라인 모임, 여행과 집합 활동이 급감하고 있다. 대신 온라인 기반 활동과 자연친화적 여가 활동, 즉 제한적인 이동수단을 이용한 여행이 증가했다.⁷ 이는 주변 사람을 인식하고 배려하는 한국사회의 특징에서 개인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삶의 양식으로 변화되었음을 의미한다.⁸

이는 공동체의 결속의 지표라 할 수 있는 자원봉사 참여율에서도 극명하게

⁵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224호)-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8 [최종접속:2025.10.16].

⁶ 한국리서치, “2024 종교인식조사,” <https://hrcopinon.co.kr/archives/31683>[2025. 11. 18. 최종 접속].

⁷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대전: 통계개발원, 2023), p244-247.

⁸ Ibid., p248-251.

나타난다. 1365자원봉사포털에서 보고한 ‘2023년 자원봉사 통계’에 의하면 10년간 가장 많은 자원봉사 활동이 있었던 2018년엔 4,290,985명이 참여했으며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된 2019년에도 이와 비슷했다. 그러나 2023년 엔데믹을 향해 가는 상황에서도 자원봉사 참여자는 2,081,554명으로 2018년 대비 48.5%에 불과했다.⁹ 이는 오프라인의 모임 기반의 전통적 공동체 구성과 활동이 약화되었고, 온라인 기반의 새로운 사회구조와 활동 속에서 오프라인으로의 회귀가 매우 더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단순한 시대적 배경 설명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팬데믹 이후 소그룹의 위기는 프로그램의 문제라기보다는 관계 형성 구조의 위기로 이해되어야 한다.

B. 한국교회의 현실 목회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변화는 예배 형식의 전환에 그치지 않고 성도들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과 참여하는 방식 전반의 변화를 동반했다. 한국사회의 변화는 한국교회의 예배 문화와 목회 구조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면 예배가 제한되면서 온라인 예배는 불가피한 대안으로 도입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며 성도들의 신앙 습관 안에 하나의 안정된 예배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목회데이터연구소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현장 예배 참여율은

⁹ 보건복지부, “2023년도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지표누리), https://www.vms.or.kr/statistics/yearbookView.do?board_seq=1302761 [2025. 10. 2. 최종접속].

50.2%에 그친 반면, 온라인 예배 참여율은 34.6%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예배 만족도는 83%에 달했다.¹⁰ 이러한 수치는 온라인 예배가 단순한 임시 수단을 넘어 성도들의 일상적 신앙 실천의 일부로 정착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절반 이상의 성도가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 외에 다른 교회의 온라인 예배나 설교를 시청하고 있다는 점은, 성도들이 더 이상 하나의 교회 공동체에 고정되지 않고 신앙 콘텐츠를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강화되었음을 시사한다. 온라인 공간에서 성도들은 설교의 내용과 전달 방식, 예배의 완성도를 비교·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교회를 ‘소속의 공동체’ 라기보다 ‘영적 자원을 제공하는 공간’ 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기존의 목회 구조와 공동체성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다.

온라인 예배의 정착과 신앙 콘텐츠의 선택적 소비는 성도들의 신앙을 개인화하는 동시에, 교회 공동체에 대한 소속 의식을 약화시켰다. 가나안 성도와 플로팅 크리스천의 증가는 이러한 변화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현상이다.¹¹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단순한 교인 수 감소나 프로그램 약화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교회가 사회와 성도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고, 공동체로서 기능하는 힘이 약화되고 있다는 보다 근본적인 위기를 반영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는 더 이상 권위적 구조나 이벤트 중심의 목회 전략으로는 공동체성을 회복하기 어렵다.¹²

특히 신앙의 개인화와 소비주의화가 심화되는 현실 속에서, 교회는 성도들이 실제로 관계를 맺고 신뢰를 형성할 수 있는 공동체적 공간을 회복해야 하는 과제에

¹⁰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147호)-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9&page=8 [2025. 9. 28. 최종접속].

¹¹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서울: 규장, 2022), p31-40.

¹² 신정우, 『한국교회 위기의 진단과 대안』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2013), p15-18.

직면해 있다. 예배가 ‘참여’에서 ‘시청’으로 이동한 상황에서, 공동체적 신앙을 어떻게 다시 경험하게 할 것인가는 오늘날 목회의 핵심 질문이 된다.¹³

이러한 현실은 기존의 프로그램 중심 목회나 조직 운영 방식만으로는 공동체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따라서 성도 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회복되는지를 중심에 두는 새로운 분석 틀이 요청된다. 그렇기에 한국교회의 회복은 구조 조정이나 프로그램의 추가가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을 어떻게 경험하고 공동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 전환을 요구한다. 특히 소그룹은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동시에, 성도 간 심정적 관계 회복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핵심 공동체로 기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동체 위기를 ‘심정적 관계’의 약화로 분석하고, 소그룹 사역을 그 회복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중심 장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 맥락에서 소그룹은 교회의 보조적 사역이 아니라, 관계적 신앙이 실제로 형성되고 검증되는 핵심 공간으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C.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심정적 관계의 정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공동체 안에서의 정서적 연결의 약화가 되었다는 것이다. 성도들은 신앙생활의 목적과 과거 해왔던 신앙패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대적, 상황적으로 만남의 규제를 받아 서로의 마음과 삶이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는 교회 공동체의 근본적 구조를 흔드는 신호임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본 논문의 연구는

¹³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p49-50.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의 회복의 핵심으로서 ‘심정적 관계’에 주목하고 있음을 밝힌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심정적 관계’는 공동체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경험하는 정서적 유대감, 신뢰, 수용, 공감, 소속감을 포함하는 관계적 결속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친밀감의 수준을 넘어, 신앙의 경험과 해석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을 포함한다. 그렇기에 ‘심정적’¹⁴ 단어 자체가 주는 의미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에 의한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 호감을 말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향한 생각과 감정을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서로가 연결되어 반응하고 함께 있음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렇기에 이러한 정서적 관계 결속은 “신앙의 형성은 관계적 맥락 속에서만 가능하며, 인간은 정서적 지지와 상호 반응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한다”¹⁵ 라는 임성빈 교수의 설명대로 신앙 공동체의 본질적 요소이며, 이는 한국교회 공동체 이해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인간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 방식을 닮은 존재로 이해된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서적 연결과 신뢰의 회복은 단순한 심리적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성에 참여하는 신학적, 영적 차원의 것이다.¹⁶ 그렇기에 한국교회가 팬데믹 이후 감당해야 할 책임을 논하게 된다면, 개인의 내적 경건을 넘어 관계의 정의와 공동체적 책임을 포함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¹⁴ 네이버 국어사전, “심정적,”

<https://ko.dict.naver.com/#/search?range=all&query=%EC%8B%AC%EC%A0%95%EC%A0%81&from=nsearch> [2025.12.10. 최종접속].

¹⁵ 임성빈, 『기독교윤리학 입문』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2), p45-46.

¹⁶ 임성빈, 『한국교회와 사회적 책임』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출판부, 1997), p72-75.

인간관계가 단순한 차원을 넘어 치유, 공감, 수용의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가치가 드러나며 믿음의 모습이 영적 행위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심정적 관계는 개인의 인간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본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과정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현실은 단순한 예배 참여 감소나 프로그램 약화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 간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구조 자체가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맥락에서 소그룹은 공동체 회복의 주변부가 아니라, 심정적 관계가 실제로 재형성될 수 있는 핵심 장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심정적 관계’는 심리학적 친밀감이나 정서적 만족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적 존재 방식에 참여하는 교회 공동체의 신학적 구조를 의미한다. 이는 성도 개인의 감정 상태를 넘어,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신뢰, 수용, 헌신과 책임의 관계적 실천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기존 EPIC 적용 연구들이 주로 예배 형식이나 교육 방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논의해 왔다면, 본 연구는 EPIC을 성도 간 심정적 관계 회복이라는 관계 중심의 분석 틀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본 연구는 단일 교회의 성공 사례를 일반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오히려 심정적 관계를 정서적 유대, 영적 공감, 신뢰, 소속감, 수용성이라는 분석 기준으로 구조를 만들어 다른 교회들도 자신의 맥락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해석 틀을 제시한다. 또한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다음 장에서는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관계적 위기를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틀로서 스윗의 EPIC 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관계적 위기를 해석하고 회복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팬데믹 이후 신앙 경험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필요하다. 다음 장에서는 이 과제를 설명하기 위한 해석 도구로 스윗의 EPIC 이론을 검토하고자 한다.

Ⅲ. 레너드 스윗의 “EPIC”

A. 레너드 스윗의 사상

본 연구가 레너드 스윗의 EPIC 이론에 주목하는 이유는, 이 이론이 현대 사회에서 신앙이 형성되고 수용되는 방식을 통합적으로 설명하는 해석 틀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스윗은 교회의 위기를 제도적 쇠퇴나 신앙적 해이의 문제로 보지 않고, 신앙 경험 방식과 소통 구조의 변화로 진단하였다. EPIC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제시된 신학적, 목회적 모델로서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공동체 위기를 분석하고, 소그룹 사역의 회복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적합한 이론적 도구로 기능한다.

스윗은 신앙이 단순한 교리 습득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인식 과정이라고 전제한다. 그는 이 과정을 네 가지 상호의존적 차원으로 설명하는데, 이는 삶의 장에서 해석되는 체험의 차원, 공동체 안에서 의미가 생성되는 상호작용의 차원, 상징과 이야기로 내면화되는 인식의 차원,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소를 지속 가능한 유대로 통합하는 관계의 차원이다. 이 네 차원은 개별적으로 작동하지 않으며, 신앙이 개인의 내면에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적 실천으로 확장되는 연속적 구조를 형성한다.¹⁷ 본 연구는 이러한 EPIC의 이 네 요소의 병렬적 나열이 아니라, 신앙이 형성되는 관계적 과정의 연속선으로

¹⁷ 레너드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p18-34.

이해한다. 경험은 삶의 현장에서 신앙이 해석되는 부분으로 작용되며, 참여는 공동체 안에서 의미가 생성되는 상호작용의 장을 형성한다. 이미지는 상호작용이 기억과 감정의 차원으로 내면화가 되고, 연결은 모든 과정을 지속 가능한 공동체적 구조로 통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B. EPIC 이론의 배경과 필요성

1. EPIC 이론의 배경

스윗 박사는 근대적 패러다임이 강조하던 합리주의적 논증과 문자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 더 이상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다. 스윗 박사는 근대 사회가 ‘듣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였다면, 포스트모던 사회는 ‘참여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며 반영되고 있음을 말한다.¹⁸ 이는 곧, 교회가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성도가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이 점차 설득력을 잃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은 진리를 단순히 설명으로 배우기보다,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고 체험함으로써 더 깊이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미디어 환경의 혁명과 이미지의 위주의 디지털 미디어의 발전이 있다. 문자보다 이미지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의미를 전달하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스윗 박사는 이를 ‘이미지 언어’의 회복이라 표현한다.¹⁹ 이미지는 단순히

¹⁸ 레너드 스윗(Leonard Sweet, 1942-),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김영래 역 (서울: IVP, 2004), p45.

¹⁹ 레너드 스윗, 『예수 선언』 장택수 역 (과주: 넥서스, 2006), p88.

보조 자료가 아니라, 메시지를 해석하는 새로운 방식이며, 복음의 상징성과 은유적 언어가 현대 사회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소통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통로이다. 목회데이터연구소가 제공하는 “기독교 청소년 신앙의식” 조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청소년들이 기존 방식인 언어전달과 문자 중심 신앙생활 환경에 심각할 정도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²⁰ 이러한 세대를 스윗 박사는 “텍스트보다 이미지에 더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세대” 라고 분석한다.²¹ 포스트모던 시대의 신앙 수용 방식에서 이미지의 중요성이 강화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청소년과 청년 세대에게 이미지는 텍스트보다 더 직관적인 언어로 기능하며 이로 인해 교회는 ‘이미지 중심(Image-driven)’ 의 사고를 적극 수용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스윗 박사는 현대 사회가 극도의 개인주의와 경쟁 논리에 의해 사람들을 고립시키는 동시에, 역설적으로 새로운 방식의 연결을 추구하고 있음을 말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의 확산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임을 보여주며, 교회가 이러한 연결 욕구를 신앙 공동체 속에서 건강하게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²² 따라서 ‘연결성(Connected)’ 은 단순한 기술적 네트워크를 넘어, 신학적으로 ‘성도의 교제’ 와 ‘하나님의 공동체’ 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스윗 박사는 전통적 예배와 교육이 지나치게 지식 전달 중심으로 고착화되었음을 비판한다. 예배는 단순한 강의 형태를 넘어, 성도들이 감각적으로

²⁰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214호)-기독교 청소년 신앙의식”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0&page=5 [2025. 9. 18. 최종접속].

²¹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p112-115.

²² 레너드 스윗, 『가장 고귀한 세 단어 I LOVE YOU』 윤종석 역 (서울: IVP, 2009), p54.

참여하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²³ 이러한 비판은 교회의 예배와 교육 방식이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오감을 활용한 경험으로 확장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2. EPIC 이론의 필요성

현대사회라는 급변하고 초고속화 되는 시대 속에서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난제는 메시지의 진리성 자체라기 보다는 전달의 방식과 수용의 장(場)에서 발생하는 불일치일 것이다. 산업화 이후 활자문화 속에서 한방향 커뮤니케이션에 최적화된 교회는 디지털 세대에게 설득력을 주기엔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스윗 박사가 제시한 EPIC(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driven, Connected)는 이러한 소통 인프라의 전환을 신학적, 실천적으로 정식화한 패러다임으로 교회의 자기 정체성과 공적 소통을 동시에 갱신해야 한다는 과제를 제시한다.²⁴ 스윗의 논의가 유용한 지점은 교회가 소비자주의를 모방하라는 제안이라기보다는, 공동체가 반복적 제공하는 ‘환대의 경험’이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이 논점을 소그룹의 ‘관계 회복 설계’로 전화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보다 경험의 일관성과 상호작용의 지속성이 심정적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그렇기에 EPIC은 복음이 공동체 안에서 해석되고 실천되도록 안내하는 관계적 설계 틀이다. 이는 교회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체에 머무르지 않고, 성도들이 신앙의 의미를 함께 형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²³ 레너드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p102.

²⁴ 스윗,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p45.

구조를 전환하는 신학적·목회적 방향성을 제시한다. 이러한 접근은 소그룹 사역에서 경험의 연속성과 상호작용의 지속성을 중시함으로써, 신뢰와 소속감이 축적되는 관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둔다. COVID-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EPIC을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복음이 전통이라는 경직된 교회 구조와 흐름 속에서 정체되고 멈춤이 아니라, 다시 사람들 한가운데서 체험되고 함께 이루어지며 이야기로 기억되고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려는 신학적이면서 실천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C. EPIC 이론에 대하여

1. 경험적 교회(Experiential Church): 이해를 넘어 체험으로

스윗의 문화 분석에 따르면, 현대 사회에서는 물질이나 정보보다는 개인이 체감하는 사건과 만남의 질이 사회적 가치 형성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⁵ 산업 중심 사회가 제품을, 후기 산업 사회가 정보를 중심 가치로 삼았다면, 포스트모던 사회는 경험 그 자체를 핵심 가치로 전환하였다. 사람들은 더 이상 사물 자체를 소비하기보다 그것을 통해 얻게 되는 감각적 경험과 정체성을 소비한다.²⁶ 이러한 변화는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신앙이 형성되고 수용되는 방식에도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스윗은 이와 같은 문화적 전환이 신앙의 영역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고

²⁵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p66.

²⁶ Ibid., p66-70.

분석한다. 과거 교회가 교리 설명과 논리적 설득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신앙인은 “무엇을 믿는가” 보다 “그 믿음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를 통해 진실성을 판단한다.²⁷ 즉, 신앙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 속에서 체험되는 만남을 통해 형성된다. 성경 역시 교리 설명보다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 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경험 중심 신앙은 개인적 체험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공유되고 해석될 때 성도 간 정서적 유대와 신뢰를 형성하는 관계적 자원이 된다. 본 연구는 이 점에서 경험을 심정적 관계 회복의 핵심 요소로 이해한다.

스윗의 따르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인간은 주로 감각과 경험을 통해 현실을 인식하고, 이러한 인식 과정 속에서 의미를 형성해 간다.²⁸ 따라서 신앙 역시 감각의 차원을 배제할 수 없으며, 예배는 단순히 듣는 시간이 아니라 몸으로 참여하는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는 이를 신비주의적 체험의 강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삶 속에서 총체적으로 만나는 방식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예배가 감정적 자극의 장이 아니라, 감각을 통해 진리를 인식하는 공간이어야 함을 전제한다.

물론 경험 중심 신앙은 주관적이거나 감정적으로 흐를 위험을 내포한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대해 스윗은 참된 경험은 언제나 성경의 진리 안에서 해석되어야 하며, 개인적 감정에 머물지 않고 공동체적 차원에서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²⁹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험을 단순한 개인적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

²⁷ Ibid., p74-75.

²⁸ Ibid., p79-81.

²⁹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p17-21.

안에서 공유되고 해석되며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험적 교회는 성도 간 심정적 관계가 회복되는 중요한 통로로 기능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험’을 개인적 체험 차원이 아니라, 소그룹 안에서 공유되고 해석되며 신뢰와 소속감을 형성하는 관계적 과정으로 재정의한다. 이를 통해 경험이 심정적 관계 회복에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분석한다.

2. 참여적 교회(Participatory Church): 대리에서 공동 창조로

스윗 박사는 포스트모던 사회를 ‘참여의 시대(age of participation)’로 규정한다.³⁰ 그의 진단에 따르면 현대인은 더 이상 수동적인 ‘시청자’가 아니라, 의미 형성의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자 하는 ‘참여자’로 나아가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와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변화를 가속화하였으며, 이는 단순한 문화적 유행을 넘어 사회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앙 역시 전달받는 교리나 규범이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해석하는 과정으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교회가 여전히 ‘말하는 자’와 ‘듣는 자’로 분리된 구조를 유지한다면, 포스트모던 세대의 신앙 감수성과 점점 더 멀어질 수밖에 없다.

역사적으로 교회는 언제나 참여 공동체였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보더라도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서로 교제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³⁰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p93.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³¹

초대교회에서 새로운 신자와 기존의 신자 모두에게 예배는 단순한 관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참여하는 하나의 사건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의 교회는 점차 전문화되고 제도화되면서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이 강화되고 대부분의 신자는 ‘청중화’ 되었다.³² 오늘날 많은 교회가 여전히 설교자 중심적이며 프로그램 중심의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어떠한 의미에서 회중은 ‘참여자’ 라기보다 ‘수용자’ 이며, 예배는 ‘공동 창조’ 가 아닌 ‘공연(performance)’ 처럼 느껴지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요소로 판단된다.

스윗의 비판은 참여의 결여가 신앙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단순한 도덕적 지적이 아니다. 그는 신앙이 ‘위임된 행위’ 로 전환될 때, 공동체 구성원은 의미 생산의 주체가 아니라 종교 서비스의 소비자로 위치하게 된다고 분석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예배와 사역이 공동의 응답이 아니라, 특정 집단의 수행을 관람하는 행위로 인식되며, 그 결과 신앙의 형성은 관계적 과정이 아닌 제도적 절차로 축소된다. 본 연구는 이 현상을 소그룹 안에서 발생하는 신뢰 약화와 정서적 거리감의 구조적 원인으로 해석한다.³³ 교회가 사람들에게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신앙을 가르쳤으며, 목회자만이 봉사하고 평신도는 관람하는 교회의 모습이 신앙을

³¹ 사도행전 2장 38절-42절.

³²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p97-99.

³³ Ibid., p100-101.

체험적 에너지와 공동체적 활력을 잃게 만들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교회는 점점 더 폐쇄된 행정 시스템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다.

스윗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교회를 ‘참여의 네트워크’로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³⁴ 그에게 참여란 단순히 활동의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 참여란 모든 성도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의 주체로 부름받아, 서로의 삶과 신앙 여정에 책임 있게 관여하는 관계적 행위이다. 이러한 참여의 구조 속에서 신앙은 개인적 실천을 넘어 공동체적 경험으로 전환되며, 성도 간 신뢰와 소속감은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본 연구는 이 점에서 참여를 심정적 관계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이해한다.

스윗은 참여를 예배, 사역, 사회적 실천이라는 세 차원에서 설명하지만, 이 세 영역은 모두 공동 창조라는 공통된 신학적 토대를 공유한다.³⁵ 예배는 관람의 시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사건이며, 사역은 소수의 리더가 수행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은사와 삶의 자리에서 동역자로 참여하는 과정이다. 또한 교회의 참여는 공동체 내부에 머물지 않고, 세상 속에서 정의와 섬김으로 확장될 때 공적 증언의 힘을 갖는다.

물론 참여가 민주주의적 취향 존중이나 소비자 중심 구조로 오해될 위험도 존재한다. 그러나 스윗이 말하는 참여는 자기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응답이며, 소비가 아니라 헌신이다. 참여적 교회는 느슨한 합의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유기체적 공동체이다. 이러한 참여의 회복은 신앙을 개인의 내면적 경험에 가두지 않고, 공동체 안에서 관계적으로 형성되는 과정으로

³⁴ Ibid., p103-106.

³⁵ Ibid., p107-110.

이끈다. 본 연구는 ‘참여’를 단순한 활동 참여가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의 삶과 신앙 여정에 책임 있게 관여하는 관계 형성의 메커니즘으로 이해하며, 이 요소가 신뢰와 소속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3. 이미지 지향 교회(Image-driven Church): 개념에서 상징과 이야기로

스윗 박사는 포스트모던 사회를 ‘이미지의 시대(the age of image)’로 규정한다.³⁶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미디어 형식의 전환이 아니라, 사람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억하는 인식 구조 자체가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 속에서 현대인은 긴 설명보다 한 장의 이미지와 짧은 이야기에서 의미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며, 이러한 변화는 신앙이 전달되고 수용되는 방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만약 교회가 여전히 텍스트 중심의 교리 설명에만 머문다면, 복음은 오늘의 소통 체계와 점점 더 단절될 위험에 놓이게 된다.

스윗은 복음의 전달 방식이 변화하는 문화 환경과 분리될 수 없다고 본다. 그에게 상징과 서사는 장식적 요소가 아니라, 신앙의 의미가 기억되고 해석되는 인식 구조 그 자체이다. 그렇기에 추상적 개념은 설명을 통해 전달되지만, 이미지는 공동체의 감정과 경험 속에 각인된다. 이러한 인식 방식은 소그룹 안에서 성도들이 동일한 신앙 경험을 공유하도록 돕는 정서적 토대를 형성하며, 신앙을 개인의 이해 수준을 넘어 공동체의 기억으로 확장시킨다.³⁷ 이러한 이미지 중심 신앙은 추상적 개념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공동체가 공유하는 기억과 감정을 형성하는

³⁶ Ibid., p133.

³⁷ Ibid., p137.

힘을 지닌다. 본 연구는 이 점에서 이미지를 단순한 전달 수단이 아니라, 성도들이 동일한 정서적 지평 안에서 신앙 경험을 공유하도록 돕는 관계 형성의 매개로 이해한다.

스윗의 이미지 지향 교회론은 세 가지 핵심 관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신앙은 은유와 상징을 통해 인식되며, 사용되는 이미지가 신앙인의 세계관과 삶의 태도를 형성한다. 둘째, 교회의 상징과 예전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시각화하는 신앙의 언어이다. 셋째, 궁극적으로 복음은 성육신적 이미지로서, 교회는 이 이야기를 오늘의 문화 속에서 살아 있는 방식으로 재현해야 한다.³⁸

이러한 관점에서 이미지 지향 교회는 감각적 자극을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복음의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서 ‘보여지고 기억되는’ 신앙의 장이 된다. 이미지를 통해 형성된 공감과 몰입은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의 신앙 경험과 감정을 이해하도록 돕고, 이는 공동체 안에서 심정적 유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요소를 성도 간 심정적 관계 회복을 촉진하는 정서적·서사적 매개로 활용한다. 또한 이미지를 소그룹 안에서 정서적 공감과 영적 기억을 형성하는 서사적 매개로 설정하고, 이것이 심정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4. 연결된 공동체(Connected Community): 개인주의에서 관계적 존재로

스윗의 연결 개념은 기술적 네트워크에 대한 비유가 아니라, 존재론적

³⁸ Ibid., p137-147.

관계성에 대한 신학적 진술에 가깝다. 그는 공동체를 개별 신앙인의 집합이 아니라, 상호 책임성과 돌봄이 순환되는 관계적 장으로 이해한다.³⁹ 이러한 관점에서 신앙의 성숙은 개인의 경건 수준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형성되는 신뢰의 밀도와 지속성에 의해 측정되는 것을 말한다. 본 연구는 이 연결 구조를 소그룹 사역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유대와 소속감의 실천적 기반으로 분석한다. 디지털 네트워크의 확장은 사람들을 물리적으로는 더 가깝게 만들었으나, 정작 깊이 있는 관계와 상호 돌봄은 오히려 약화되었다. 오늘의 사회는 ‘연결되어 있지만 외로운’ 상태에 놓여 있으며, 이러한 관계의 빈곤은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스윗의 EPIC 모델에서 ‘Connected’는 단순한 기술적 네트워킹을 의미하지 않는다. 연결은 인간 존재의 본질과 직결된 개념이며, 성경적으로 인간은 처음부터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교회는 개인 신앙의 집합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가 교차하는 공동체이다. 본 연구는 이 점에서 연결을 EPIC의 마지막 요소가 아니라, 경험·참여·이미지를 관통하는 중심축으로 이해한다. 경험은 관계 속에서 의미를 얻고, 참여는 관계를 통해 지속되며, 이미지는 관계적 맥락 속에서 해석되기 때문이다.

스윗은 연결된 공동체를 세 가지 관계 차원에서 설명한다.⁴⁰ 첫째는 하나님과의 연결로서, 예배는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관계 맺는 사건이다. 둘째는 이웃과의 연결로서, 교회는 서로의 삶을 돌보고 책임지는 관계망이다. 셋째는 세상과의 연결로서, 교회는 사회 속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공적 공동체로 존재한다. 이 세 차원은 교회가 고립과 단절의 시대 속에서

³⁹ Ibid., p163.

⁴⁰ Ibid., p172-176.

관계의 복음을 구현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결은 감정적 친밀감에 머물지 않고, 희생과 헌신, 용서와 화해를 포함하는 관계적 실천으로 드러난다. 연결된 공동체는 느슨한 친목 집단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서로의 삶에 지속적으로 반응하는 유기체적 공동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onnected’를 성도 간 심정적 관계 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구조로 이해하며, 소그룹 사역이 이러한 연결이 실제로 형성되고 유지되는 중심 장으로 기능함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 관점에서 본 연구는 연결성을 EPIC의 결과가 아니라, 심정적 관계 형성의 구조적 기반으로 설정하고, 소그룹 사역이 이 연결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구현하는지를 사례를 통해 검증한다.

D. 한국교회 안에서의 EPIC이 갖는 의미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는 단순히 출석률 감소나 프로그램 축소의 위기를 넘어, 공동체 내부의 정서적 연결이 약화된 구조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온라인 예배의 장기화, 소그룹 모임 단절과 관계적 피로감의 누적은 성도들에게 신앙적 고립감을 심화시켰으며, 이는 교회가 본래 지니고 있던 공동체성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무엇보다 ‘함께 있음’에서 형성되던 정서적 안정과 영적 상호작용이 사라지면서, 성도들은 신앙의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서로의 마음과 삶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않는 단절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순한 조직 개편이나 프로그램의 활성화만으로는 공동체 회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렇기에 정서적, 경험적, 참여적 관계 중심의 새로운 신앙 형식이 절실한 오늘의 한국교회의 모습이다.

이러한 문제 상황에서 스윗 박사의 EPIC(Experiential, Participatory, Image-driven, Connected) 패러다임은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핵심 요소를 세밀하게 짚어준다. EPIC은 전통적인 ‘지식 전달 중심’의 교회 교육과 달리, 신앙을 경험하고 참여하며 이미지와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총체적 구조로 이해한다.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이 접근이 유효한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첫째로 ‘Experiential’은 신앙이 단순한 가르침이 아니라 삶의 경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오랫동안 설교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정답 형태의 신앙’을 제공하는 데 익숙했지만, 팬데믹 이후 성도들은 정보보다 ‘실제 삶에서 체감되는 신앙 경험’을 갈망하게 되었다. 경험 중심의 접근은 성도들이 자신의 감정, 신앙의 여정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며, 이는 교회와의 정서적 연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로 ‘Participatory’은 성도를 ‘수동적’에서 ‘능동적’로 전환시키는 구조를 제공한다. 한국교회에서는 소그룹 안에서의 나눔조차도 종종 형식화되거나, 소수 리더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능동적 참여 중심의 EPIC 접근은 모든 구성원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타인의 이야기에 공감하며, 공동체 구성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만든다. 이는 신뢰와 소속감을 강화하며 공동체의 정서적 회복을 촉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로 ‘Image-driven’은 현대인의 소통 방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는 한국교회가 언어 중심의 신앙 형성에 치중해 왔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이미지, 상징, 스토리가 신앙 반응을 촉발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미지는 정서적 공감과 몰입을 가능케 하며, 소그룹 안에서 나눔과 영적 활성화를 가능케 한다. 이는 성도들이 서로의 내면과 삶을 보다 깊이 이해하도록 돕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로 ‘Connected’ 은 팬데믹으로 약화된 공동체 내부의 관계 구조를 다시 회복시키는 중심 요소이다.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형태의 연결이 아니라, 서로의 삶을 지속적으로 지지하고 반응하는 정서적 연결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그렇기에 특별히 한국교회는 팬데믹 이전에도 ‘관계 피로’, ‘교회 내 갈등’, ‘세대 간 단절’ 등의 어려움을 겪어 왔기에 EPIC의 Connected 를 통해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을 제시함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EPIC은 팬데믹 이후의 한국교회 정서적, 관계적, 영적 구조를 회복시키는 방향성 그 자체이다. 소그룹이 다시 관계 중심의 생태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경험·참여·상징·연결이라는 구조가 필수적이며, EPIC은 그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매우 적합한 도구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스윗 박사가 말하는 EPIC의 경험, 참여, 이미지, 연결에 대한 비판적 논의도 존재한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미지, 경험, 참여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신앙의 본질적 내용(content)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다. 스탠리 그렌츠는 포스트모던 문화 환경에서 신앙이 객관적 진리의 탐구보다 개인의 체감적 경험과 정서적 반응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분석한다. 그는 이러한 흐름이 공동체의 신학적 기준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신앙의 해석이 개인 또는 집단의 위험에 과도하게 의존할 위험이 있음을 경고한다.⁴¹ 또한 공동체 참여와 감정적 연결이 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오히려 신학적·교리적 깊이를 약화시키고 신앙의 기준을 공동체의 경험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⁴¹ 스탠리 그렌츠,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포스트모던 시대와 기독교의 복음』 김운용 역 (서울: IVP, 2010), p87.

비판한다.⁴² 이러한 논의는 EPIC이 한국교회 목회 현장에 적용될 때, 경험과 이미지의 효과를 활용하되 신앙 내용의 깊이를 유지하는 균형과 신학적 분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이미지, 참여를 무조건 억제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언제나 말씀과 공동체적 해석의 틀 안에서 이해되고 검증되도록 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신앙의 경험은 내용을 대체하는 기준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 해석되고 공동체 안에서 성찰 될 때 비로소 건강한 신앙 형성의 자원이 된다.

COVID-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소그룹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 단절된 관계의 회복과 정서적 신뢰의 재구성이라는 과제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EPIC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 한국교회의 현실 목회 현장에서 실천 가능하도록 재구성할 필요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EPIC 이론의 핵심 개념을 유지하면서 소그룹 사역의 실제 흐름과 관계 회복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실행 구조로서 ‘EPIC L.I.F.E.’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EPIC L.I.F.E.는 Learning, Immersive, Fellowship, Experience의 네 요소로 구성되며, 이는 EPIC의 경험·참여·이미지·연결 개념이 한국교회 소그룹 사역의 맥락 안에서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방식이다.

⁴² Ibid., p102.

IV. 새로운 패러다임 EPIC L.I.F.E.(Learning-Immersive-Fellowship-Experience)

본 장은 앞선 III장에서 제시한 EPIC 이론과 EPIC L.I.F.E. 실천 모델을 이론적으로 재진술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 오히려 본 장의 초점은 이론적 틀을 월광교회의 소그룹 사역이라는 구체적 목회 현장에 적용하는 사례 분석 중심의 연구이다. 성도 간 심정적 관계 형성이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관찰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참여 관찰, 심층 면담, 설문 자료를 통해 수집된 질적·양적 자료를 통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출된 의미 단위를 정서적 유대, 영적 공감, 신뢰, 소속감, 수용성이라는 다섯 가지 분석 기준에 따라 범주화 한다.

각 절은 이론 설명이 아니라 사례에서 도출된 의미 단위와 관계적 변화의 양상을 EPIC L.I.F.E.의 네 요소에 대응시켜 해석하는 구조로 구성된다. 또한 참여 관찰, 면담, 설문을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연구 참여자는 총 342명이며, 면담 참여자는 21명, 심층면담은 6명, 소그룹 면담 4회, 설문 응답자는 101명이다. 이를 통해 얻은 자료로부터 참여 성도들의 정서, 관계 중심 의미 단위를 도출하였고, 활동 과정에서 관찰된 패턴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심정적 관계’의 기본틀을 표 1.과 같이 구성하였고 분석 결과를 만들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분석은 EPIC L.I.F.E. 모델과의 연결을 가능케 하였으며, 월광교회 안에서 소그룹의 심정적 관계 회복이 어떠한 경로를 통해 일어나는지를 체계적으로 규명할 수 있게 하였다.

(표 4-1) 심정적 관계 분석틀

구성	의미	분석기준	소그룹에서 나타나는 변화 지표
정서적 유대	함께 있을 때 경험하는 정서적 안정감과 친밀감	'편안하다', '부담없다', '감정완화' 정서적 긴장 해소	성도간 거리감 감소, 친밀감 증가
영적 공감	영적 경험, 신앙심과 기도의 정서가 서로에게 공유되는 상태	함께 드리는 기도에서 오는 감정의 일치, 신앙 고백에 대한 정서적 반응, 같은 마음	영적 친밀감 증가, 기도 나눔의 질적 변화, 영적 신뢰강화(동반자)
신뢰	관계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확신	'말해도 안전하다', '비밀유지가 된다', '진솔할 수 있는 소그룹이다'	민감한 이야기 증가, 리더 신뢰
소속감	공동체의 일부라는 정체성과 결속감	지속적 참여, 공동체 함께 하는 시간, '우리'라는 용어 사용	공동체 참여율 증가
수용성	조건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경험	편견 없는 경청, 비판없는 태도, 긍정적 반응	자기표현 증가, 방어적 태도 감소

이 표는 심정적 관계의 다섯 가지 분석 요소인 정서적 유대, 영적 공감, 신뢰, 소속감, 수용성이 월광교회 소그룹 사역 안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관찰되었는지를 구조적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이를 성도 간 관계 형성이 정서적 차원과 영적 차원, 그리고 공동체적 참여의 수준이 상호 연동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본 연구자는 월광교회 사역에 참여하는 부교역자로서 연구 대상 공동체의 내부 관찰자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2022년부터 본 연구 시점인 2026년까지 해당 공동체에서 지속적으로 사역하고 있다. 이러한 장기적 참여 관찰의 위치는 성도들의 신앙 실천과 관계 형성 과정을 일회적 조사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자료 수집과 해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관적 해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면담 자료, 설문 응답, 참여 관찰 기록을 상호 교차 검증하는 방식으로 분석의 신뢰성과 연구 윤리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A. EPIC에서 EPIC L.I.F.E.로의 확장

21세기 초, 교회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문화적 전환 앞에 서게 되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소통 방식과 인식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고, 사람들은 활자보다 이미지를, 설명보다 체험을, 논리보다 감정을 신뢰하는 세대가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레너드 스위트(Leonard Sweet) 박사는 교회가 여전히 근대적 언어 즉, 이성, 분석 그리고 강단 중심의 전달 방식에 머물러 있으며 복음은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살아 있는 언어’로 들리지 않을 것이라 하였다.⁴³ 그는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와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를 통해 교회가 단순히 메시지를 전하는 기관이 아닌, 사람들이 복음을 ‘경험하도록 초대하는 생명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⁴⁴ 그는 이러한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 EPIC(Experience, Participation, Image-driven, Connected)이라는 네 단어를 제시한다. 이 네 가지는 단순한 슬로건이 아니라, 포스트모던 사회의 감각 구조와 복음의 전달 방식이 교차하는 ‘신학적 지형도’이다. 경험(Experience)은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는 사건’을 의미하고, 참여(Participation)는 신앙을 ‘관람’이 아닌 ‘동참’으로 재정의한다. 이미지는 이성 중심의 교리적 언어를 넘어, 이야기와 상징, 예술과 은유의 언어를 회복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결(Connected)은 기술과 관계의 네트워크 속에서, 참된 코이노니아(koinonia)의 가능성을 다시 모색한다.⁴⁵ 이러한 EPIC 교회를 ‘물 위를 항해하는 유기체적

⁴³ Ibid., p21-24.

⁴⁴ 스위트,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p28-31.

⁴⁵ Ibid., p35-40.

배(Aqua Church)’로 비유했듯이 정지된 건물이 아닌, 끊임없이 흔들리고 적응하는 공동체임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잃지 않는 생명체임을 강조한다. 교회가 “흐름 속에서 진리를 지키는 유기체적 공동체”⁴⁶로 변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전세계 교회를 향해, 특별히 한국교회를 향한 도전을 주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이 패러다임을 충분히 소화하지 못했다. 일부 교회는 예배에 영상 장비나 시각적 장치를 도입하는데 사역의 중점을 두었고, 청년사역에서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EPIC의 본래 의도가 왜곡되어 이벤트성 프로그램이나 감정 고양으로 축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경험은 흥분으로, 참여는 활동 동원으로 변질되는 등 핵심 개념이 단순한 이벤트 중심으로 재해석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단지 전략의 문제가 아닌, 신학적 기반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교회는 여전히 ‘가르침’과 ‘삶’, ‘이론’과 ‘체험’, ‘진리’와 ‘관계’를 분리한 채, 신앙의 각 영역을 따로 운영하는 경향이 있다. 예배는 감정적 고양의 장으로 한정되며, 교육은 지식 전달의 교실로, 공동체는 친목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 지금의 모습이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EPIC이 본래 추구했던 통전적 복음 체험이 불가능하다.

이에 본 논문은 EPIC의 네 가지 핵심 요소를 신학적, 교육학적으로 재배열하여 교회가 지속 가능한 예수의 가르침, 예배, 공동체와 영성 형성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틀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것이 바로 ‘EPIC L.I.F.E. (Learning-Immersive-Fellowship-Experience)이다.’ 이 개념은 EPIC의 통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교회의 본질적 기능을 다시 네 가지 축으로 정리한다.

‘Learning(배움)’은 말씀, 신학, 문화를 통합적으로 배움을 갖추는 것을

⁴⁶ Ibid., p62-65.

의미한다. ‘Immersive(몰입)’은 신앙을 전인적 경험으로 받아들이며, 예배, 예전과 감각을 통한 체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Fellowship(교제)’는 관계의 양(Quantity)이 아닌 질(Quality)을 회복하며, 역사종말론적 백성 공동체로서의 코이노니아를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Experience(체험)’은 복음을 이론이 아닌 ‘살아 있는 사건’으로 맞보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임재를 증언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론적 틀로서만 머물지 않고 목회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방식으로 재구성되어야 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러한 필요성 속에서 본 연구는 EPIC을 소그룹 사역에 실제적 적용을 하여 L.I.F.E.(Learning, Immersive, Fellowship, Experience)라는 실천적 모델로의 확장을 한 것이다. 이는 EPIC의 핵심 정신을 한국교회와 월광교회의 실제 사역 구조 안에서 재배치하므로 그 과정을 연구한 것이다. 이를 통해 EPIC의 각 요소는 소그룹 안에서 성도들에게 실제적 경험으로 흘러 들어가며 L.I.F.E.의 네 단계 과정을 통해 신앙의 패러다임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B. EPIC L.I.F.E.: 월광교회 적용형 모델

1. Image-driven(I)의 확장 : Learning(배움)

EPIC의 Image-driven(I)은 이미지·상징·스토리를 통한 직관적 신앙 이해라는 EPIC의 강점을 한국교회의 말씀 중심 전통과 결합하여 Learning(배움)의 구조로 심화하였다. 이는 말씀이 정보 전달이 아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미지로 형성되고 거주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는 신앙의 이미지가 단회적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라는 배움의 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월광교회의 말씀묵상학교에서 활용된 과정을 통해 성경 본문을 이미지로 내면화 하여 성도로 하여금 이해를 넘어, 자신의 감정, 관계, 삶의 방향을 재해석하도록 배우고 이끄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EPIC의 Image-driven은 한국교회의 소그룹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Learning의 구조로 확장되어 말씀이 이미지가 되고, 그 이미지가 학습과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연속적 흐름 갖게 된다. 지식 중심 교육을 넘어 “삶을 변화시키는 배움”으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Learning은 EPIC의 I를 소그룹 안에서 실제로 구현하는 형태이며, 이미지 기반의 신앙 형성이 학습 과정의 중심이 되는 목회적 전환이다.

2. Image-driven(I) + Experiential(E)의 확장 : Immersive(몰입)

EPIC의 Image-driven(I) + Experiential(E)은 Immersive(몰입)을 가능케 만드는 중요 요소이다. 신앙의 내용을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존재 자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영적 몰입 상태를 이루기 때문이다. 이는 삼중기도라는 실천적 과정을 통해 말씀이 이미지 속으로 들어가 전인적으로 참여하는 경험을 가능케 한다. 성도는 텍스트를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상상하고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과 자신을 마주하게 된다. 이 때 실제적 경험을 하게 되며, 말씀으로의 완전한 Immersive(몰입)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 두 요소의 통합은 삼중기도라는 과정을 통해 영적 깊이와 정서적 안정감을 가능하게 한다. 그렇기에 Immersive는 단지 EPIC의 한 요소를 확장한 것이 아니라, EPIC의 I와 E를 소그룹

영성 형성의 실제적 심장부로 재배치한 개념이다.

3. Participatory(P) + Connected(C)의 확장 : Fellowship(교제)

EPIC의 Participatory(P) + Connected(C)은 Fellowship(교제)을 이룬다. 이는 소그룹 안에서 단순히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관계를 형성하는 참여적 교제를 의미한다. 이 교제는 EPIC의 Participatory(P)와 Connected(C)가 결합될 때 가장 온전하게 나타난다.

먼저, 교제는 Participatory(P)가 있어야 실질적으로 형성이 가능하다. 수동적 청취나 형식적 만남으로는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각 구성원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타인의 삶에 정서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공동체적 역동이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에 Connected(C)을 통해 회복하는 과정 이룬다. 반복된 나눔과 상호 반응 속에서 정서적 유대와 신뢰가 형성되고, 이는 소그룹의 분위기, 안정감과 소속감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이다.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에서 가장 약화된 요소가 바로 이 ‘정서적 연결’이었으며 이를 통해 Fellowship은 회복의 중심적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Fellowship은 EPIC의 P와 C가 결합한 목회적 형태이다. 참여가 관계를 만들고, 연결이 그 관계를 지속하게 하여 두 요소의 통합은 소그룹을 단순한 모임이 아닌, 정서적 지지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힘이 되는 것이다. 결국 Fellowship은 EPIC의 핵심 정신을 관계적으로 구현한 형태인 것이다.

4. Experiential(E) + Connected(C)의 확장 : Experience(경험)

EPIC의 Experiential(E) + Connected(C)은 Experience(경험)을 가능케 한다. 이는 단순한 신앙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실천적 경험의 누적을 의미한다. 바자회를 통해 지역사회 섬김과 공동의 프로젝트 수행 등은 모두 소그룹 구성원들이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직접 체험하도록 만들며, 이러한 체험은 EPIC의 Experiential(E) 요소를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다.

그러나 Experience는 개인적 체험을 넘어서, 공동 실천 속에서 관계적 연결을 강화하기 때문에 EPIC의 Connected(C) 요소가 동시에 구현 되어야 하는 것이다. 함께 땀을 흘리며 함께 실패를 경험하고, 함께 성취를 기뻐하는 과정은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깊게 하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케 한다. 이는 공동체성을 가장 강력하게 회복시키는 방식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Experience는 EPIC의 Experiential(E)과 Connected(C)를 통합한 결과이며, 특히 한국교회의 공동체 문화에서는 ‘함께 하는 실천’이 관계 회복의 핵심 동력임 보여준다. 그렇기에 Experience는 소그룹이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모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며 공동체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확장은 EPIC 이론의 네 요소가 한국교회, 특별히 월광교회의 소그룹 사역이라는 구체적 현장에서 어떻게 신앙의 여정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실천적 모델이다. 다시 말해 EPIC L.I.F.E.는 EPIC의 핵심 정신을 유지하면서, 이를 말씀, 영성, 가정과 공동체라는 강점 속에서 실제로 살아내도록 돕는 적용형 패러다임이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EPIC L.I.F.E.의 네

요소가 월광교회의 소그룹 사역에서 어떻게 실천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이
성도들의 심정적 관계 형성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다음 단락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C. EPIC - Learning : 말씀묵상을 통한 영적 성숙의 여정

‘EPIC L.I.F.E.’의 첫번째는 ‘Learning’이다. 신앙의 시작은 언제나
‘듣는 것’에서 비롯된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⁴⁷ 이라 하였다. 진정한 신앙의 배움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시대의 소리를 동시에 경청하는 감각이다. 존 R.
W. 스토틀은 이를 ‘이중 청취(double listening)’라 불렀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고통 모두에 귀 기울이지 않는 교회는 어느 쪽에도 의미 있는 응답을
하지 못한다”고 지적한다.⁴⁸ EPIC L.I.F.E.의 첫 번째 축인 ‘Learning’은 바로
이러한 도전 위에 세워진다. 이는 스윗 박사의 ‘Experiential’을 한국교회의 성경
묵상 전통 속에서 재해석한 것으로, 단순한 체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한 경험의
구조화’를 의미한다. 그렇기에 ‘EPIC L.I.F.E.’의 ‘Learning’은 듣는 배움과
보는 배움의 통합이다. 사람은 시각적 존재이면서 동시에 청각적 존재이며,
하나님은 말씀(Word)과 사건(Event) 모두로 자신을 계시하셨다. ‘EPIC
L.I.F.E.’의 ‘Learning’에서 이 두 가지의 결합이 신앙 교육의 본질을 이룬다.

⁴⁷ 로마서 10장17절.

⁴⁸ 존 R. W. 스토틀 (John R. W. Stott, 1921-2011),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정옥배
역 (서울: IVP, 1995), p45-47.

예수의 마지막 명령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⁴⁹였다. 이는 교회가 단순한 ‘선포의 기관’이 아니라 ‘배움의 공동체’임을 선명히 보여준다. 초대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didachē)에 전념했으며⁵⁰, 그 가르침은 교리 강의가 아니라 삶의 훈련이었다. 본회퍼는 『나를 따르라』에서 “예수의 제자도는 앎이 아니라 순종으로 배우는 삶의 방식”이라고 말했다.⁵¹ 배움은 머리로 하는 일이 아니라, 삶 전체가 하나의 교과서가 되는 신앙적 여정이다. 따라서 ‘Learning’은 교리적 정보의 축적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씀이라는 진리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존재적 훈련이다.

1. 말씀묵상학교

‘Learning’은 ‘공동체 말씀묵상학교를 통해서 실천적 의미를 갖게 된다. 성경이라는 중심에서 시작된 ‘Learning’은 ‘멈추기’, ‘머물기’, ‘나아가기’라는 단계를 통해 성경을 통해 배움에서 실천으로 행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묵상에서 그치지 않고 소그룹과 연결이 되며 ‘혼자만의 신앙 성장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의 성장’으로 발전하며 확장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말씀묵상의 구조를 도식화하면 그림 4-1과 같다. 이 그림은 말씀묵상학교가 EPIC L.I.F.E. 모델의 핵심 요소로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⁴⁹ 마태복음 28장19절.

⁵⁰ 사도행전 2장42절.

⁵¹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 1906-1945), 『나를 따르라』 김순현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6), p95-97.

월광 말씀묵상학교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정돈하는
말씀중심 하루묵상

(그림 4-1) 월광교회 말씀묵상학교

성경

이 과의 목표

1.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를 안다.
2. 말씀묵상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배운다.
3. 성경을 배우는 통상적인 방법과 신앙 성장 과정을 이해한다.

준비 과제

1. 주일 예배 설교를 기록하십시오.
2. '성경'을 미리 공부하십시오.
3. 요한수아 1:8절을 암기하십시오.
4. 말씀묵상을 실천하십시오.
5. 조별 말씀과 삶의 나눔을 실천하십시오.

월광 말씀묵상학교

(그림 4-2) 말씀묵상학교 '성경'

이 그림 4-2는 참여자의 신앙 경험이 개인 차원에서 공동체적 나눔과 실천으로 확장되기 위한 원리를 제시한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과 이를 묵상하고 삶의 적용하며, 신앙의 성장에 첫 번째 목적을 둔다. ‘EPIC L.I.F.E.’에서의 ‘Learning’은 세 가지 방향에서 작동한다. 첫째는 성경적 교육, 말씀과 교리를 깊이 있게 배우는 교회 교육의 회복이다. 둘째는 문화적 식별, 이중 청취를 통해 세상의 담론을 신앙의 언어로 비판하고 해석하는 역량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감각적 배움, 스토리와 이미지와 은유를 통해 감정과 상상력을 열어가는 통합적 배움이다. 이를 이루기 위해선 제일 먼저 작동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기에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개인을 넘어 공동체와의 연결을 통해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림 4-3처럼 주제를 정확히 하여 성도들의 접근을 돕는다.

01. 성경

말씀묵상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성경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이 왜 기록되었고 어떤 권위가 있으며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지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가 성경을 더 욱더 사랑하고 신뢰하게 해줄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01 우리가 존재하는 주된 목적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이동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목적 중에 주된(Chief) 목적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목적, 최고(가장 가치 있는) 최선(가장 우선이 되는)의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주된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천지창조 목적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므로 그 피조물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창조를 통해 밖으로 드러난 자신의 영광을 보며 기뻐하십니다. 또한 다른 피조물과 달리 특별한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창조하신 인간들이 그 영광을 보면서 창조주를 기뻐하는 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된 존재 목적은 자신의 존재가 피조세계의 일부가 되어 천지창조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이 선(善)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가장 행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주된 존재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이사야 43:21 _____

고린도전서 10:31 _____

(그림 4-3) 말씀묵상학교 첫 주제

이 그림은 EPIC L.I.F.E. 모델의 ‘Learning’ 요소가 소그룹 안에서 말씀 이해와 나눔 구조로 구현되는 과정의 주제를 선명하게 제시하므로 공동체 안에서의 인지적 학습, 정서적 유대, 영적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진리는 강단 위의 개념이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심장으로 들어올 때 살아나기에 ‘EPIC L.I.F.E.’의 ‘Learning’은 이성과 감성, 교리와 스토리, 전통과 문화가 만나는 자리에서 이루어진다. 그 중심이 성경을 강조하고 배우고, 공동체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서로가 연결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며 그 방법들은 그림 4-4와 같다.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다양한 방법들**

01 통상적인 5가지 방법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듣기, 연구하기, 읽기, 묵상하기, 암송하기입니다. 각각의 방법은 나름의 장점이 있어서 서로 보완적이고 종합적으로 사용하면 성경을 더 많이, 더 자주, 더 깊게 알아 갈 수 있으며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5가지 통상적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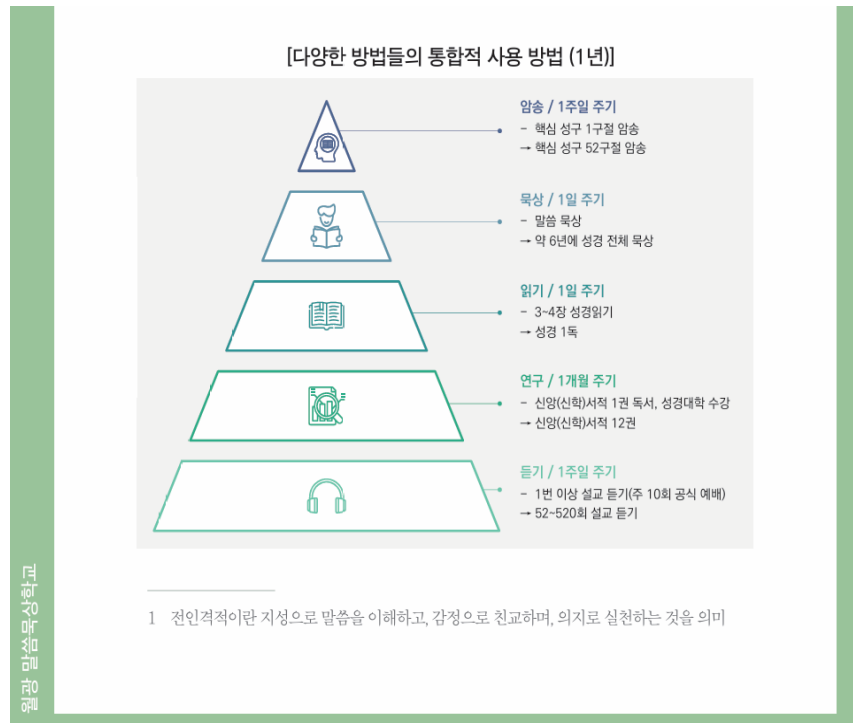
				
듣기	연구	읽기	묵상	암송
(롬 10:17)	(행 17:11)	(계 1:3)	(시편 1:1-2)	(시편 119:11)

·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말합니까?
로마서 10:17 _____

· 베뢰아 사람들은 말씀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사도행전 17:11 _____

말씀묵상학교
말씀묵상학교
말씀묵상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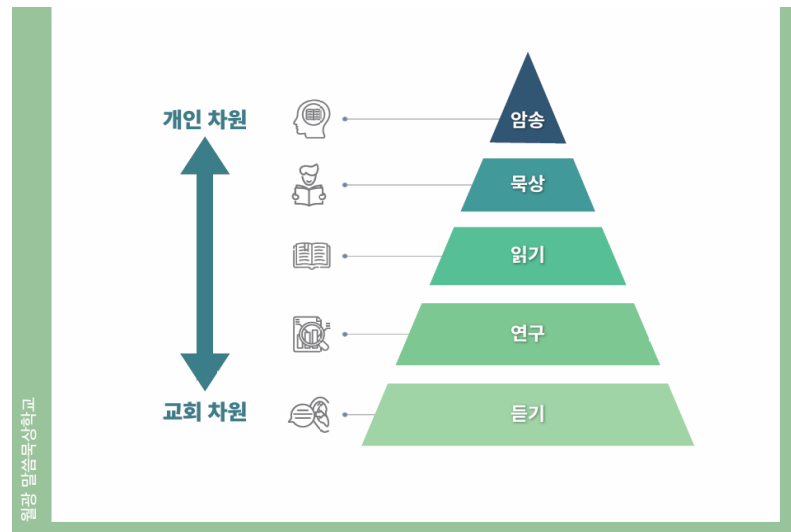
(그림 4-4) 말씀묵상학교 성경을 배우는 다양한 방법들



(그림 4-5) 말씀묵상학교 비전적 제시

이 그림은 말씀묵상의 다양함을 도식화한 구조를 보여준다. 이를 통해 ‘Learning’ 에서 EPIC L.I.F.E. 모델의 ‘Immersive’ 요소가 공동체적 몰입과 소속감 형성을 이루는 단계로 해석한다. 진정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성장 시키는 일에 매진함으로써 얻어졌다. 일반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자신의 삶을 차지하는 것들 중에 ‘(회개)기도’, ‘성경’ 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렇기에 그림 4-5와 같은 말씀묵상의 과정을 가시화하여 ‘Learning’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며, 성경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며 신앙 성장을 해내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교회 차원에서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동체 구성원과의 연결을 이루어 내어 듣기, 연구하기를 통해 영적 성장 초기를 이룬다. 이는 개인 차원의 신앙 훈련 방법인 읽기, 묵상하기, 암송하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인 것이다. 그림 4-

6은 이를 통합한 것이다.



(그림 4-6) 말씀묵상학교 개인차원, 교회차원

이 그림은 말씀묵상학교에 참여한 성도의 신앙 경험이 개인 차원에서 공동체적 나눔과 실천으로 상호적 이동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관계 형성이 개인적 체험에서 공동체적 신뢰와 소속감으로 이동하는 구조로 해석하난.

a. 멈추기

결국 EPIC L.I.F.E.의 ‘Learning’은 말씀을 향한 경청의 습관을 공동체 전체에 심어 주는 훈련을 의미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과 이웃의 고통을 함께 듣고 함께 짊어지는 실천의 장을 형성한다. 이러한 순환이 반복될수록 교회는 ‘성경만 잘 아는 공동체’도, ‘사회 문제에만 예민한 공동체’도 아닌, 말씀과 이땅의 삶이라는 사이에서 복음적으로 응답하는 균형 잡힌 공동체로 성숙해 간다. 이를 위해 말씀묵상학교에서는 개인이 아닌 소그룹으로 움직이며 자신의 삶을 작은

공동체 안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요소가 바로 ‘멈추기’와 ‘머물기’ 과정이다. 말씀묵상의 단계는 구분되지만, 모든 단계는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마치 운동을 처음 배울 때 각 단계의 원리와 방법을 구분하여 배우듯이 말씀묵상도 각 단계의 원리와 방법을 배우고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말씀묵상을 익혀 가는 과정인 것이다.

‘멈추기’ 과정은 성도로 하여금 바쁜 일상 속에서 쫓기듯 살아가는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는 바쁘고 버거운 하루를 보낸 날이면 뒤늦게야 하나님 없이 산 자신을 발견하는 오류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는 과정이며,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의 습관과 기분대로 사는 삶을 잠시나마 멈추게 하는 도움을 준다.

‘멈추기’는 ‘누군가 몰아가는 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룩한 저항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기다리는 믿음의 행위인 것이다. 바쁜 생활 가운데 우리는 멈춰야 한다. 멈출 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이 시작되며 가능해진다. 이러한 멈추기 안에는 ‘기도’, ‘시간·장소’, ‘준비’라는 과정별 주제를 갖게 된다.

첫 번째 주제는 기도이다. 말씀묵상의 시작부터 끝까지 기도가 동반된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정리하는 하루 묵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이 각 단계별 세밀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 이는 성도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철저히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진행되며 기도로 마무리 되어지는 과정을 의미한다.

- 말씀묵상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기도
- 말씀묵상을 시작하기 전의 기도
- 말씀묵상을 적용하기 위한 기도

- 말씀묵상을 삶으로 실천하는 기도
- 말씀묵상을 정리하며 성찰하는 기도

다음 주제는 ‘시간·장소’이다. ‘주일’이라는 정해진 시간과 ‘교회’라는 정해진 공간이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게 해주는 것처럼, 말씀묵상을 위해서도 정해진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루 중 언제가 가장 방해받지 않고 말씀 묵상에 집중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면, 많은 성도들은 ‘새벽’, ‘출근 후 업무시작 전’, ‘점심시간’, ‘퇴근 후’ 아니면 ‘저녁식사 후’라고 생각할 것이다. 이 중에 매일 규칙적으로 지킬 수 있는 시간대를 결정하여 시작해야 한다. 10분이 될 수 있으며, 그 이상이 될 수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말씀묵상 시간이 정해진 시간에 지켜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대에 은혜가 있는지, 유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경험하고 소그룹에서 나누는 것이 핵심이다.

말씀묵상을 위해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과 장소를 정했다면 이제 말씀묵상을 위한 도구를 사용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묵상 교재, 성경, 필기구 등을 필요로 한다. 묵상 교재를 사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방향성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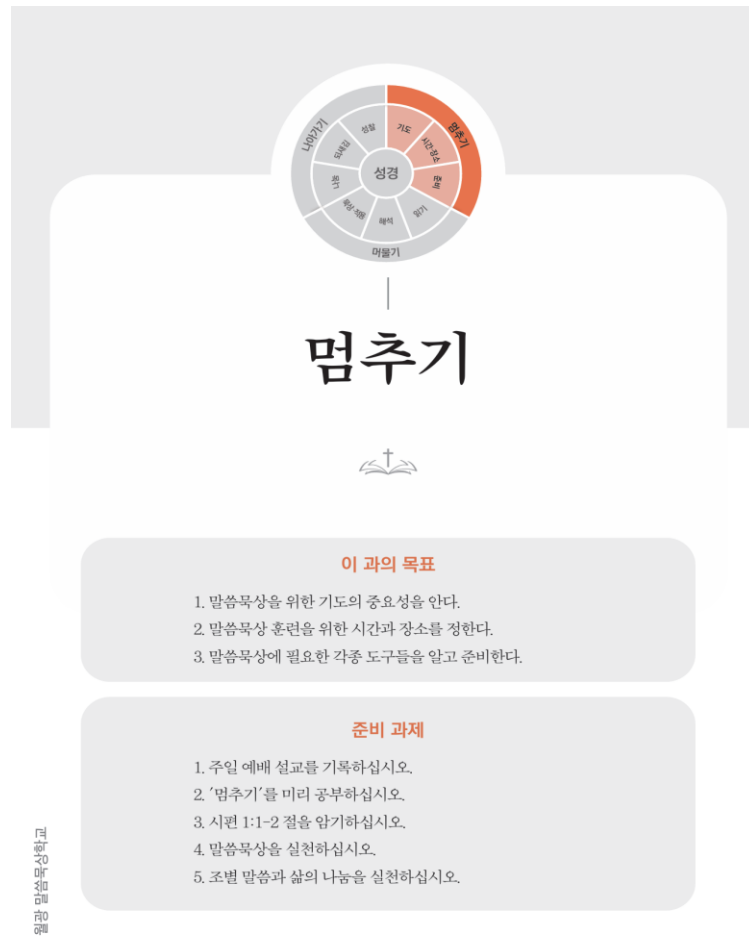
- 매일 일정한 분량의 말씀을 꾸준히 묵상하는 습관을 형성하게 된다.
- 성경 전체를 통전적이며, 체계적으로 묵상을 할 수 있다.
- 성경 본문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절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 공동체(가정, 교회, 직장)가 동일한 본문으로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

성경은 다양한 번역본이 있으며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원어에 가깝게 문자적으로 번역한 ‘문자적 번역’이다. 여기에는 ‘형식일치 번역(Formal Correspondence)’으로 원문의 문장 구조와 어휘적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려는 번역 전략의 특징을 갖는다.⁵² 다른 하나는 현대에 맞도록 의역한 ‘역동적 번역’이다. 독자의 자연스러운 이해를 위해 원문의 의미 기능을 현대 언어로 옮기는 방식의 특징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나 초신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번역한 ‘자유 번역’이 있다. ‘설명적 번역, 의미 확장적 번역’으로 이해되며, ‘교육과 전도’의 목적으로 쉽고 간결한 문체를 갖는 특징이 있다.⁵³

성경 본문을 다양한 번역본으로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는 ‘개역개정’, 전문적 접근을 위해선 ‘표준새번역’, 구약의 예언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쉬운성경’, ‘우리말 성경’으로 접근할 때 말씀 묵상에 도움이 된다. 영어 성경은 문자적 번역인 ‘NIV’를 추천하며, 역동적 번역으로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CEV’를 추천한다. 또한 번역 성경은 아니지만 현대적인 언어로 묵상하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Message)성경’을 함께 읽으면 유익하다. 결론적으로 다양한 번역본을 통해 동일한 본문을 여러 번 읽음으로써 1년 1독 뿐 아니라, 정확한 해석과 이해를 하는 강점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그림 4-7와 같이 과정의 목표 제시한다.

⁵² 이근희, 『번역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2015), p35-38.

⁵³ 유선명, 『신화적 맥락을 살린 구약성경 번역 모색』 (부천: 한국기독교학회, 2019), p52-55.



(그림 4-7) 말씀묵상 ‘멈추기’ 목표와 과제

이 그림은 말씀묵상의 첫 단계에서 설정되는 목표와 과제를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Learning’의 정서적 안정과 영적 공감 형성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으로 해석한다.

b. 머물기

말씀묵상은 멈추기에서 머물기로 이어진다. 분주한 활동과 말을 멈추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므로 말씀 앞에 머물러야 한다. 말씀 앞에 머물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시작된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⁵⁴

머물기는 말씀 읽기와 해석, 묵상 및 적용으로 구분된다. 현대 교회 안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고 영적인 변화와 성장보다 세속적인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⁵⁵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그리스도의 도에는 초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가치관과 사고방식이 세속적인 사람들, 인격과 행동에 변화가 없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그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 데에서 기인하지 않는다고 부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려면 깊은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해야 한다. 말씀읽기 원리를 습득하여 본문에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이에 뒤따르는 실천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과정이 오늘날 현대 교회에 필요한 것이다.

주로 한국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말씀 묵상 유형은 C형이다. 읽기-묵상-적용으로 이루어진 C형 말씀묵상은 D형과 달리 ‘해석’의 과정이 생략되어

⁵⁴ 요한복음 8장31절-32절

⁵⁵ 박종원, 『민간종교 세계관을 통한 세속화된 한국 교회 이해와 신학적 고찰』 (고양: 복음과 선교, 2016), p113-152.

있기 때문에 자신이 해석한 말씀묵상의 내용이 성경의 문맥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래서 ‘말씀이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보다 ‘오늘 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받을 은혜는 무엇인가?’ 에 집중되어 자의적 해석을 하게 되는 오류를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자의적 해석의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A형’, ‘B형’, ‘C형’ 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D형의 말씀묵상의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기에 한 번이 아닌, 반복적 말씀묵상과 머물기를 통해 이를 해낼 수 있다.

머물기 과정에는 ‘읽기’, ‘해석’, ‘묵상 및 적용’ 이 있다. 이 과정에서는 읽고 과찰의 중요성을 알도록 하고, 읽기의 원칙과 실제적 방법을 제시한다. 또한 말씀을 구체적 관찰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말씀묵상의 필요성과 유익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 번째 주제는 ‘읽기’ 이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계시이다.⁵⁶ 따라서 성경에는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성경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의적 해석으로 자신에게 맞는 해석과 읽기가 이루어지면 안되는 책인 것이다.⁵⁷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읽어야 하며, 이를 기반으로 시대적 해석, 역사적 해석, 문화적 해석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뜻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 성경의 언어, 역사와 문화가 요청하는 건전한 읽기 원리를 따라 읽어야 하는 것이다. 방법은 다음과 같다.

⁵⁶ 김세운, 『칭의와 하나님나라』 (서울: 두란노, 2020), p52.

⁵⁷ 정훈택, 『공관복음 입문』 (서울: 감은사, 2021), p112-118.

(1) 원칙적 방법

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자세로 말씀을 읽습니다.’

- 단지 묵상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② ‘천천히, 꼼꼼히, 반복해서 읽으며 본문의 내용을 파악한다.’

- 최소 3회 이상 본문을 읽는다.

- 내가 아는 것을 찾거나 내 마음에 맞는 구절을 찾는 시간 아니다.

-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읽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③ ‘본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때까지 읽는다.’

- 본문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본문 내용을 한두 줄로 요약할 수 있을 때까지 성경을 읽는 훈련을 해야 한다.

- 본문 내용을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은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실제적 방법

① 첫 번째 읽기 : 눈으로 읽기

- 천천히 눈으로 주의 깊게 읽는다.

-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

- 눈(보기)을 통한 읽기를 한다.

② 두 번째 읽기 : 소리 내어 읽기

- 천천히 소리 내어 읽는다.
- 저자의 의도를 생각하며 읽는다.
- 등장인물이 되어 읽는다.
- 눈(보기), 입(소리), 귀(듣기)를 동시에 사용하여 읽는다.

③ 세 번째 읽기 : 관찰하며 읽기

- 관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밑줄이나 사선을 치며 읽는다.
- 사실, 인물, 배경, 사건,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4) 구체적 방법

① 육하원칙 읽기

- 기사를 쓰거나 글을 분석할 때 사용하는 누가(Who), 언제(When), 어디서(Where), 무엇을(how), 왜(why)를 적용하여 스스로 질문 만들기

② 구조를 파악하며 읽기

- 주어 파악하기
- 동사 집중하기
- 접속사에 유의하기

말씀읽기의 방법들은 결국엔 말씀 안에서의 그 뜻과 맥락을 벗어나지
않음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삶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에 대해 존 스토틀는
『성경이란 무엇인가』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성경은 인간의 말이기에 우리는 다른 책과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성을 사용하여 성경의 단어와 구문을 분석하고, 역사적

기원을 찾으며, 문학적 구성을 살펴야 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다른 책과는 구별된 방법으로 연구해야 합니다.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성령의 조명과 일하심을 구하며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⁵⁸

말씀묵상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며 하나님의 메시지가 문자적으로 남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닌 실천적 삶으로의 길을 열수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임에 분명하다. 그렇기에 ‘읽기’는 계속되어야 하며, 다양한 방법과 성령의 조명으로 그 길을 찾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 주제는 ‘해석’이다. 성경의 해석은 가장 핵심적이다. 그 원리와 다양한 도구를 알게 되었을 때, 말씀의 방향성과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의 해석이 갖춰지고, 이를 통한 삶의 변화는 신앙의 발판이 되기에 필수적 주제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했다는 것을 전제로 가능하다.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질문은 가장 높고 가장 거룩한 것들과 영원하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전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상 언어의 기록으로 바라보는 첫 시도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⁵⁹

이는 특별한 통찰력을 지닌 소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간다는 의미가 아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⁵⁸ 존 R. W. 스토틀, 『성경이란 무엇인가』 박지우 역 (서울: IVP, 2006), p42.

⁵⁹ 시편 119장 34절.

의도인 것이다. 성경은 비밀로 가득찬 책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다. 성경은 당시의 시대적 언어, 문화, 지리적 배경 속에서 쓰여졌으며 삶 속에서 적용되었다. 이는 해석하지 않는 말씀은 이해할 수 없으며, 이해하지 못한 말씀은 기억할 수 없다. 기억하지 못한 말씀은 삶으로의 적용을 할 수 없기에 해석은 말씀묵상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영역이기도 하다. 다양한 해석의 도구는 표 4-2과 같다.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도구들]

도구의 종류	설명	어떤 도움을 주는가?
성경지도	본문의 지도를 모은 지도 사전으로 때로는 지명의 역사와 중요성도 설명	지리적 장벽을 제거
성경사전	본문의 주요 단어나 표현들의 기원, 의미, 활용 등을 설명함	언어적 장벽을 제거
성경핸드북	성경 각 권에 대한 간략한 개론 제공	문화적 장벽을 제거
스터디바이블	역사적 배경 연구를 위한 기본정보와 성경 전체에 대한 간략한 주석 제공	언어, 문화, 문화적 장벽을 제거
성경주석	처음부터 끝까지 각 구절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매우 상세히 다룸	언어, 문화, 문화적 장벽을 제거
다양한 번역본 성경	원문을 포함한 다양한 번역본 성경 제공	언어적 장벽을 제거

(표 4-2) 말씀묵상 읽기의 도구들

이 그림은 말씀묵상의 ‘멈추기’에서 말씀을 심도 있도록 돕는 도구이다. 본 연구는 이를 성경 텍스트에 대한 인지적 이해가 공동체적 나눔과 영적 공감으로 확장되는 해석의 장치로 해석한다.

성경은 30여 명의 저자를 통해 약 1,600년에 걸쳐 기록되었다.⁶⁰ 그럼에도

⁶⁰ 김지찬, 『구약개론』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1998), p27-28.

불구하고 성경의 궁극적인 저자이신 하나님은 성경에 통일성과 일관성을 부여하셨다. 그렇기에 성경은 그분의 마음에서 흘러나온 말씀이며 오류가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하는 성경을 향한 관점이어야 한다. 분명한 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도구들이 성경을 지나치게 분해하거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만 제한하여 해석하게 될 때, 사람의 사유에서 비롯된 오류가 성경 해석에 개입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목적에 의해 자세한 기록이 제공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의 영감성과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학적·문법적·역사적 원리를 균형 있게 적용해야 한다.⁶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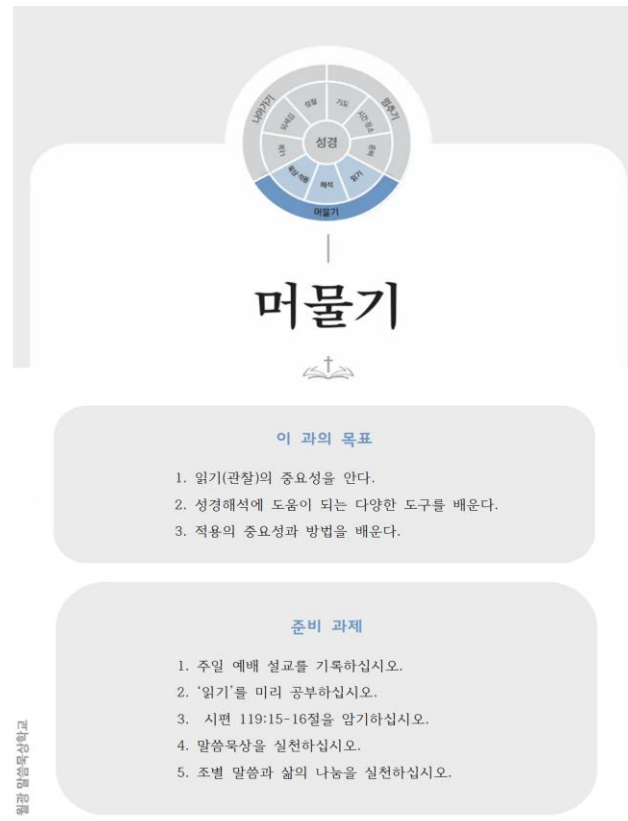
세 번째 주제는 ‘묵상 및 적용’이다. 이는 말씀묵상의 실천적 사항으로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에 대한 중요성과 방법을 알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발견되는 삶의 대한 방향성을 접목하여 신앙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읽기’와 ‘해석’을 통해 본문을 객관적으로 이해했다면, ‘묵상 및 적용’은 그 말씀을 내 삶에 연결하여 다루는 과정이다. 이 과정은 묵상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다.

내 아들이야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네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네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말씀묵상의 목적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⁶¹ 김세윤, 『바울신학과 새 관점』 (서울: 두란노 2002), p57-63.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그리스도를 닮은 삶과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다. 우리의 영혼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는 지성, 감정, 의지가 모두 수반된다. 우리가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는 과정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과정과 유사하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며 결실하기 위한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영혼의 뿌리를 통해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를 맺기 위한 말씀을 섭취해야 하는 것이다.⁶² 이를 위해 그림 4-8과 같이 과정의 목표 제시한다.



(그림 4-8) 말씀묵상 ‘머물기’ 목표와 과제

⁶²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이 그림은 말씀 묵상에 있어 관찰의 단계로 실천적 목표와 과제를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정서적, 영적 차원에서 깊이 연결되도록 돕는 과정이며, 공동체적 나눔을 통해 신뢰와 영적 공감의 형성이 형성되는 단계로 해석한다.

c. 나아가기

실천적 묵상의 단계인 ‘나아가기’는 ‘나눔’, ‘되새김’, ‘성찰’이라는 주제를 갖는다. 이는 나눔의 내용, 방법, 유익을 배우는 과정이며, 되새김의 중요성을 알아 자신의 삶을 성찰해내는 과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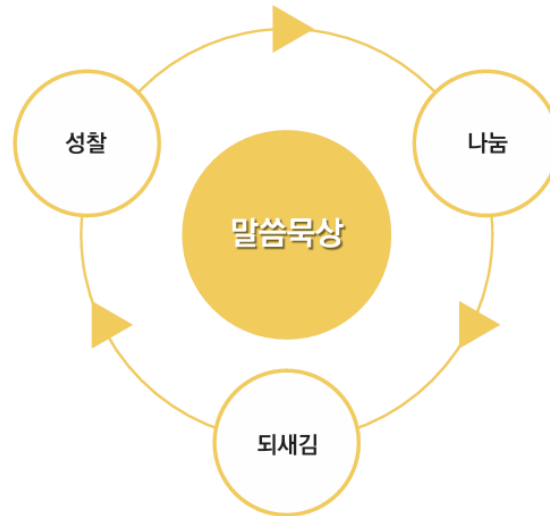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고 말씀 앞에 머무는 동안 성도들은 말씀 관찰을 통해 신학적 이해를 확장하게 되며, 자신의 생각의 변화와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직후 한 행동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⁶³

나아가기의 목표는 말씀묵상을 통해 받는 깨달음과 말씀 묵상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억하며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도전이며, 세상의 압박과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함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큰 과제이기도 하다. 말씀묵상의 나아가기 단계는 그림 4-9와 같은 세 가지 방법이다.

⁶³ 누가복음 24장 32절-33절.

[말씀묵상을 삶에 적용하는 방법]



(그림 4-9) 말씀묵상 ‘나아가기’의 세 가지 방법

이 그림은 말씀묵상의 ‘나아가기’ 단계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인의 성찰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공동체적 신뢰와 소속감 형성으로 연결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나눔, 되새김, 성찰이 그것이다. 나눔을 통해서 말씀묵상으로 받은 은혜와 결단의 내용을 공유하게 된다. 이는 소그룹 안에서 그리고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어서 핵심 말씀구절과 기도문을 하루 종일 읊조리고 되새기며 살아내는 방법으로 이어진다. 끝으로 영성일기를 통해 하루의 삶을 성찰하고 감사와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하루의 시작과 끝, 삶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 갈 수 있게 된다.

첫 번째인 ‘나눔’은 말씀묵상의 꽃이다. 묵상을 통해 깨닫거나 적용한 것을

나누는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찬양하는 시간이자 소그룹과 함께 하나님을 믿고 아는 일에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 가는 시간이 된다. 이러한 묵상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의 내용이 나의 이야기가 되며 이를 공유하므로 공동체적 경험으로 통합된다. 말씀묵상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리는 것이 ‘기도’가 되며, 소그룹 안에서 말하는 것이 ‘나눔’이 되는 것이다. 이 나눔을 위해 다음을 알아야 한다.

- 말씀묵상을 통한 본문의 새로운 발견과 질문
- 말씀묵상을 통한 내 삶의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
- 말씀묵상 후 새로운 행동의 시도와 변화
- 적용을 위한 개인과 소그룹의 기도제목
- 결단과 작용을 삶에 실천한 결과

말씀묵상은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 봉사하는 부서, 순(구역), 가정에서 나눌 수 있다. 또한 매일 SNS를 통해 자신의 묵상을 나누며 그 확장성을 갖으며 진행해도 좋다. 이는 나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묵상과 적용’ 이기에 이를 위해 나눔 자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닌, 삶의 실천성을 갖기 위한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지켜주는 좋은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스스로를 말씀 안에서 살아내려는 장치가 되기에 나눔의 깊이를 경험하게 된다.

두 번째 주제는 ‘되새김’이다. 말씀묵상의 목적이 말씀을 매개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 삶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라면, 그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이라 생각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책상에 앉아 머리와 가슴으로만 묵상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지배하고 삶을 구체적으로 인도하며, 모든 상황에서 힘과 위로와 지혜를 공급하는 원천이 되게 해야 한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묵상’⁶⁴ 단어가 있다. 이는 히브리어로 ‘하가’ , ‘학가온’ , ‘시아흐’ , ‘시하’ 등이 있다. 이 단어들의 원어상의 의미는 ‘묵상하다(meditate)’ 라는 의미와 함께 ‘중얼거림(murmuring)’ , ‘속삭임(whispering)’ 이라는 의미가 포함 되어있다. 이중에 중얼거림, 속삭임이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다시 말해 ‘묵상하다’ 라는 것은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으르렁대듯이, 사자처럼 말씀을 움켜잡고 으르렁대며 중얼거리는 ‘소리’ 와 ‘동작’ 을 묘사하는 단어이다.⁶⁵ 다시 말해 말씀묵상의 완성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중얼 읊조리면서 나의 삶과 인격에 체화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말씀을 읊조리는 것은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했다는 방증이며,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다.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온몸을 다 동원하여 씹어 먹고 소화 시키는 과정인 것이다. 솔로몬은 잠언에 이렇게 말하였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⁶⁶

⁶⁴ ‘묵상’ 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성경(개역개정): 창세기 24장 63절, 여호수아 1장 8절, 열왕기상 18장 27절, 시편 1편 2절, 시편 19편 14절.

⁶⁵ 유진 피터슨, 『이 책을 먹으라』 양혜원 역 (서울: IVP, 2018), p19-22.

⁶⁶ 잠언 3장 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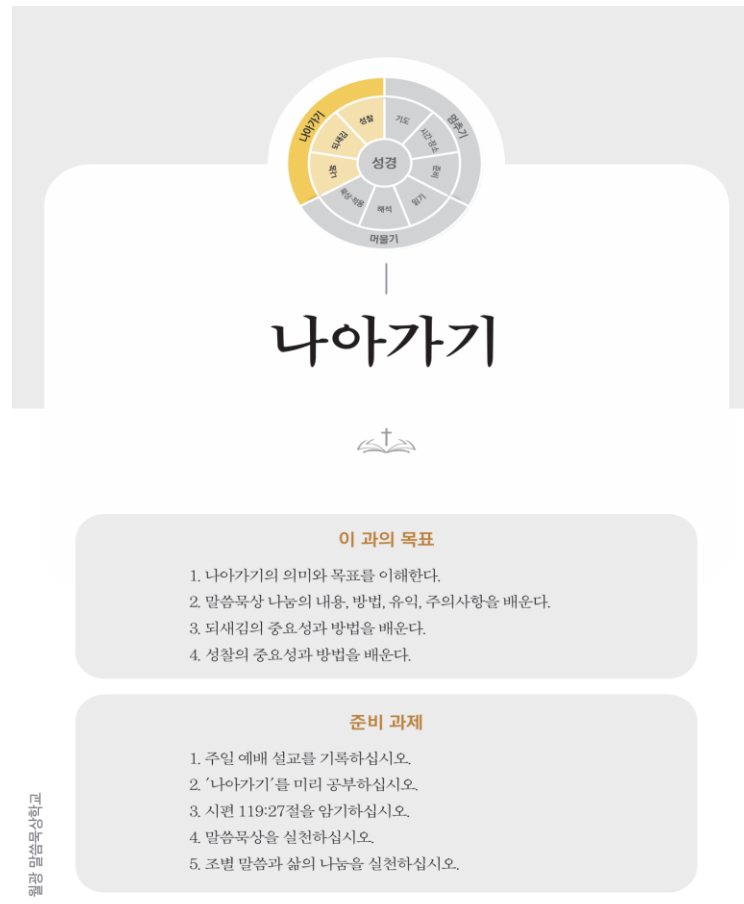
오늘의 말씀묵상이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읊조림은 그를 인정하는 과정이며 그 과정의 결과물로 그분의 지도하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기에 말씀을 되새기는 과정과 장소는 때를 따르지 않게 된다.

침대에 누워서, 차를 운전하면서 버스를 기다리면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면서, 당신은 이 구절의 한마디 한마디를 당신의 생각 속에서 천천히 되풀이할 수 있다. 단지 그 구절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당신의 전 존재로 들으려 하면서 말이다. 여러 가지 염려로 계속해서 주의가 흩어지겠지만, 그 말씀으로 계속해서 돌아가면, 점차 염려에 덜 집착하고 진정으로 기도를 즐기기 시작한 당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도가 생각에서부터 당신의 존재의 중심으로 내려갈 때 치유하는 능력을 발견할 것이다.⁶⁷

세 번째 주제는 ‘성찰’이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를 꼽는다면 바로 ‘성찰’이다. 성찰은 일정 기간 동안의 활동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반성할 수 있으며 새로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성찰이 없는 개인과 공동체는 성장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를 위해 다음의 방법이 있다. 바로 ‘영성일기’이다. 영성일기는 하루의 신앙 실천 과정을 기록·반성하도록 구성된 도구로 성도의 영적 자기인식 증진을 목표로 한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얼마나 읊조리며 삶에 적용했는지 등을 기록하는 과정이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과 삶에서 역사하신 내용을 기록함으로써 참여자들은 내·외적 변화를 보다 의식하게 되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더욱 민감하게 된다. 이를 기록하여 남겨둬므로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다. 영적 거장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존 웨슬리와 같은

⁶⁷ 헨리 나우웬, 『예수, 우리의 복음』 최형락 역 (서울: 두란노, 2007), p112.

인물들의 영성일기를 통해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익히 알 수 있다.⁶⁸ 이러한 방법을 통해 그림 4-10에서 제시한 ‘나아가기’ 단계의 목표인 ‘성찰’을 해내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실제적 관계를 맺으며 삶의 변화로 이어지는 좋은 훈련 도구임은 분명하다.



(그림 4-10) 말씀묵상 ‘나아가기’ 목표와 과제

이 그림은 ‘나아가기’ 단계에서 설정된 목표와 과제를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인의 성찰이 공동체적 나눔으로 확장되는 지점으로 해석한다.

⁶⁸ 유기성, 『영성일기』 (규장, 2012), p13.

2. 관찰된 변화와 EPIC분석

관찰된 핵심 변화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성도들 사이의 조심스러움과 거리감이 줄어들어 정서적 유대 형성이 이루어 졌으며, 더 깊은 나눔까지 가능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과정에서 영적 민감성과 공감 능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응답자A 성도는 “주일 예배시간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으며, 듣는 중에 설교가 상상이 되어지고 있다” 고 하였다. 이는 EPIC의 Image-driven(I) 요소가 강하게 작동한 결과이며, 동시에 묵상 과정에서의 실재적 성찰이 Experiential(E) 요소와 결합된 효과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종합하면, EPIC-Learning은 단순한 개인 경건 훈련을 넘어, ‘배움-몰입-교제-체험’ 이라는 네 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중심 축임을 보여준다. 말씀 앞에 멈추는 행위는 예배와 영성의 몰입을 가능하게 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되새기는 실천은 공동체적 코이노니아를 형성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경험은 복음을 삶의 사건으로 체화하게 한다. 말씀묵상은 교회가 ‘생명체로 존재하기 위해 반복해야 하는 삶의 리듬’ 이다. 따라서 한국교회가 말씀묵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큐티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교육·소그룹·영성훈련의 전 영역을 통합하는 신학적·교육학적 재구성을 의미한다. ‘멈추기-머물기-나아가기’의 순환적 구조가 교회의 공식 사역과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작동할 때, 교회는 말씀과 삶, 진리와 관계, 배움과 실천이 하나로 통합된 공동체로 성숙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EPIC L.I.F.E.에 기초한 말씀묵상은 포스트모던 시대 속에서 교회의 생명성과 복음의

생동성을 회복하는 실천 신학적 대안이다.

D. EPIC - Immersive : 삼중기도와 가정예배를 통한 전인적인 몰입

EPIC L.I.F.E.의 두 번째 축인 ‘Immersive(몰입)’은 신앙 형성을 전인적인 참여로 이해하도록 이끈다. 이는 신앙을 단순한 지적 동의나 정보 습득의 차원으로 축소하지 않고, 몸, 관계, 시간과 공동체의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살아 있는 형성인 것이다. 이는 신앙이 ‘가르쳐진 것’이라기 보다는 ‘살아내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몰입적 신앙교육이 재조명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⁶⁹ 오늘날 신앙교육의 많은 영역은 지적 학습에 치우쳐 있으며, 예배와 영성 형성 또한 ‘보는 예배’, ‘듣는 예배’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전통적 기독교 공동체에게 신앙은 ‘정보’가 아닌, 몸으로 참여하며 소그룹의 관계 속에서 체화되는 실제적 경험으로 이해해 왔다.⁷⁰ 몰입은 단순히 감정의 고양이나 현장 분위기의 집중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성도의 시간, 공간, 감각, 사고, 습관 등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재조명되는 영적 구조를 의미하며, 이러한 몰입적 구조 속에서 신앙의 깊이를 갖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EPIC-Immersive’는 성도의 삶을 회복하는 작업으로 정의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예배는 주일 하루의 활동이 아니라, 일주일의 시간을 내면과 외면을 형성하는 영적 호흡이 되는 것이다. 교회는 예배당 안에서만 신앙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살아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⁶⁹ 최진경, 『기독교 교육학의 아버지 코메니우스』 (용인: 킹덤북스, 2012), p45-52.

⁷⁰ 제임스 F. 화이트, 『예배의 역사』 정장복 역 (서울: 콤파출판사 1997), p36-39.

공동체로 재구성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Immersive’ 은 EPIC L.I.F.E. 전체 구조의 핵심을 이룬다.

본 논문은 이러한 ‘Immersive’ 의 실천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통적 기도 시간의 회복을 의미하는 ‘삼종기도’ (아침-정오-저녁의 규칙 기도)와, 신앙의 생활화를 이루는 ‘가정예배’ 를 두 축으로 제시한다. 이 두 실천은 각각 시간과 공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성도의 일상 전체가 하나님께로 몰입되는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삼종기도는 분주한 하루 속에 신앙의 리듬을 심어 주는 몰입을 가능하게 하고, 가정예배는 가정이라는 생애의 첫 소그룹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재구성하는 몰입을 제시한다. 결국 ‘Immersive’ 는 신앙을 교회 프로그램의 결과가 아니라, 성도의 일상 전체를 삶의 형성(Life Formation)으로 이해하도록 돕는 핵심 범주이다.

1. 몰입하는 ‘삼종기도’

예수님께서서는 공생애 동안 많은 무리들과 함께하시는 사역 속에서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셨다. 복음서 기자 마태는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내신 후 혼자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다’ 고 증언하며, 누가는 ‘예수께서 하루 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보내셨다’ 고 기록한다.⁷¹ 이 두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가 단순한 상황적 기도가 아니라, 하루의 흐름 속에서 반복되고 축적되는 영적 습관이었음을 보여준다.

초대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영적 삶을 본받아 하루의 시간을 구별하여

⁷¹ 마태복음 14장 23절, 누가복음 6장 12절.

하나님께 봉헌하는 신앙적 시간을 형성하였다. 이는 단순히 특정 시각에 기도하는 행위를 넘어, 그리스도인의 일상이 하나님을 향해 재구성되는 영적 구조로 이해되었다. 이러한 신앙적 시간 관념은 고대 유대교의 전통에서 출발하는데, 유대교는 아침-정오-저녁의 특정 시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경건의 습관을 체계화하였다.⁷²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유대교의 시간 기도 전통을 자연스럽게 계승하며 하나님께 일상을 열고 닫는 신앙을 몸으로 습득하였다.

초대 교회 공동체와 가정 예배에서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 드리는 신앙적 리듬이 강조되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라, 하루 속에서 신앙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회복하는 영적 실천이었다. 정장복 교수는 이를 “시간의 성별을 통해 신앙적 방향성이 매일 새롭게 재확인된다”고 설명하며, 초대교회의 정시기도가 공동체의 정체성과 신앙 형성을 견고히 하였다고 분석한다.⁷³

이러한 전통은 중세 수도원 영성에서 더욱 깊이 있게 발전하였다. 수도자들은 하루를 세분화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곱 번 혹은 여덟 번의 기도 시간을 가짐으로써, 하루 전체를 하나님을 향한 구조 안에 배치하였다. 이를 성무일과라 표현하며, 시간 전체가 하나님께 봉헌되는 몰입적 영성의 구조라고 한다. 성무일과는 이후 삼종기도라는 아침-정오-저녁이라는 원리를 체계적으로 확장하여 형태를 갖추는 기도로 변화하였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도 이러한 ‘정시기도’의 영성은 다양한 형태로 계승되고 있다. 개인 묵상과 공동체 기도, 전통 예배, 혹은 현대적 재해석을 통해 하루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한다는 신앙의 리듬으로 계속 이어지는

⁷² 이정구, 『예배의 역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p45-47.

⁷³ 강용원, 『기독교 교육학 개론』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p112-115.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삼종기도는 옛 관습의 반복이 아니라, 신앙의 일상화와 몰입적 신앙 형성을 위한 영적 구조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2. 삼종기도의 영적 의미와 월광교회의 기도의 회복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전통은 초대교회의 ‘정시기도’에서 출발하지만, 중세 수도원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수도자들은 인간의 일상이 얼마나 쉽게 분주함과 욕망에 묻히는지를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를 일정한 시간대마다 하나님께 다시 돌려놓는 의도적 구조를 만들었다. 이러한 구조가 바로 성무일과(Liturgy of the Hours)이며, 이는 하루 전체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깊은 영적 질서를 형성하였다.⁷⁴ 특히 수도원에서는 하루의 시작과 끝뿐 아니라 그 중간 시간에도 기도를 놓치지 않았다. 이러한 시간을 드린 영성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가능하게 했으며, 수도자의 내면을 하나님 중심으로 유지하게 한 핵심 원리였다. 이는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존재 방식이며, 수도원 기도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삶의 구조 자체를 하나님께 재구성하는 실천인 것이다. 삼종기도는 이러한 수도원 전통을 현대적으로 단순화한 형태로써 ‘아침-정오-저녁’이라는 하루의 큰 줄기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는 중요한 영적 회복의 시간이 되었다.

오늘의 사회는 무엇보다 빠르다. 우리는 하루 종일 쏟아지는 정보와 속도를 견디며 살아간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앙의 핵심인 ‘멈춤’과 ‘기억’의 시간은 가장 먼저 사라진다. 현대 영성의 문제는 ‘고요함의 상실과 내면 집중의 약화’에

⁷⁴ Ibid., p8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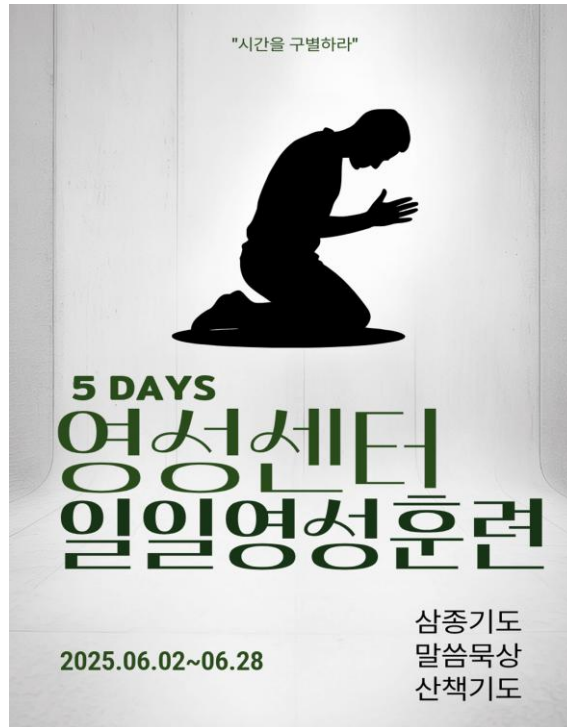
있다. 분주함과 효율성의 논리에 압도될 때 영성의 중심도 함께 흔들림을 경험하는 것이 현실이다.

팬데믹 이후의 상황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온라인 예배는 편리함을 제공했지만, 공동체적 예배의 깊이를 약하게 만들었고, 신앙의 일상적 루틴은 점차 해체되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

‘일상의 기도 습관 약화’, ‘공동체 예배 감각 상실’, ‘신앙이 개인화되고 고립됨’, ‘예배 감동이 삶 속으로 연결되지 못함’, ‘신앙의 지속성 약화’가 바로 그것이다.⁷⁵ 시간을 특별하게 구별하지 않는 것은 기존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큰 도전이요, 성도의 신앙의 침체를 방치하는 것과 같다. 그렇기에 작은 습관일지라도 시간의 구별 하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회복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월광교회는 그림 4-11, 표 4-3과 같이 ‘삼종기도’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잃었던 공동체의 영적 흐름을 다시 세우는 시도를 하였다. 성도로 하여금 시간의 구별의 필요성을 알렸고, 영성훈련인 ‘삼종기도’를 통해 단순히 한 번 기도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하루 전체를 훈련 함으로써, 전인적인 몰입을 하도록 돕는 구조를 제시하였다.

⁷⁵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151호)-한국 개신교인의 온라인 신앙생활’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62&page=8 [2025. 9. 5. 최종접속].



(그림 4-11) 영성훈련 ‘삼종기도’

(표 4-3) 영성훈련 ‘삼종기도’ 시간표

여성센터 일일영성훈련 시간표

시 간	내 용
09:00 - 10:00	- 9시 교회출발, 9시 50분 여성센터 도착
10:00 - 10:30	삼종기도(오전)
10:30 - 10:40	오리엔테이션
10:40 - 12:00	개인 시간
12:00 - 12:30	점심 식사
12:30 - 15:00	개인 시간
15:00 - 15:30	삼종기도(정오)
15:30 - 17:00	개인 시간 (교역자와 성도간의 교제의 시간)
17:00 - 17:30	저녁 식사
17:30 - 19:00	개인 시간
19:00 - 19:30	삼종기도(저녁)
19:30 - 20:00	개인 시간
20:00	여성센터에서 출발

이 그림과 표는 삼중기도 훈련의 일정, 시간 배치를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반복적 영성 실천이 개인의 신앙에서 공동체적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몰입과 소속감을 강화하는 관계적 훈련 단계로 해석한다. 그렇기에 공동체적 흐름 속에서 강화되는 영적 구조는 매우 필요하다. 특히 반복적 영성 훈련이 공동체를 영적으로 통합시키는 분명하다.⁷⁶ 이를 위해 구별된 장소인 영성센터에 모여 개인의 영적 구조의 흐름과 소그룹(교구의 순)원들과 공동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은 COVID-19 펜데믹 이후 월광교회라는 공동체에 교구의 순이라는 소그룹에서 더 나아가 가정 회복의 바람을 넣어 주었다. ‘교회는 관계의 생태계’ 라는 표현처럼 삼중기도를 통해 개인과 개인이 연결되는 경험을 했으며, 이 힘으로 가정에서도 활력을 찾게 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

또한 요일 별 진행자의 변화에 따른 흐름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뉴얼을 만들어 진행하였고, 참여하는 성도로 하여금 균일한 몰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이는 삼중기도가 인도자에게 요구되는 이행방식와 참여하는 성도의 태도, 즉 몰입에 따라 정서적 안전감과 상호신뢰가 달라질 수 있기에 표 4-4와 같이 매뉴얼은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림 4-12는 매뉴얼을 기반으로 인도자의 자리이다.

(표 4-4) 영성훈련 인도자 매뉴얼

순서	시간	내용	담당자
준비		주일에 신청자(화~금)들에게 전체 안내 문자를 보냅니다.	

⁷⁶ 장왕식, 『영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10), p101-110.

	09: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회에서 차량(3644)으로 출발, 40-45분 소요 / 9시 50분 도착 - 도착하여 숙소(식당 2층)에 짐을 풀도록 안내한다.(여성은 식당동 2층 숙소 사용 / 남성은 예배당 2층 사용) - 삼중기도 준비 - 인도자 : 마이크, 패드 - 조력자 : 컴퓨터(기도음악), 조명, 음향 확인 	
	09:5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도자 : 삼중기도 준비 - 조력자 : 종탑의 종을 3번 쳐서 삼중기도 시간을 알린다. (쉽지 않음) 	
	09:5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력자 : 예배당에 오는 성도들에게 삼중기도 파일을 나눠줍니다. - 인도자 : 시작 전에 삼중기도 설명 및 안내사항 전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멘트 : 영성센터 일일 훈련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설명 및 안내사항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파일 1페이지를 보시면 삼중기도에 대하여 나와 있습니다. - 삼중기도 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 후에는 인도자가 삼중기도에 대하여 읽으면 됩니다. <p>영성센터에서 하루 세 번 삼중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4가지의 경건훈련의 코스가 있습니다. 삼중기도를 마치고 10시 30분까지 식당동으로 이동하시면 그 곳에서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p> <p>이제 삼중기도를 드리겠습니다.</p>	

	<p>10:00 ~</p>	<p><10시 삼중기도> 15분</p> <p>(1) 삼중기도 알림</p> <p>멘트 :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타종을 3번 하고 삼중기도를 드리겠습니다.</p> <p>종을 3번 칩니다.</p> <p>(2) 찬송가 623장 찬양</p> <p>멘트 : 3페이지에 있는 찬송가 623장 찬양하겠습니다.</p> <p>비치된 패드에 있는 찬송가 음원을 틀고 찬양</p> <p>(3) 복음 선포의 기도 읽기 (인도자부터 한 단락씩 이어서 읽기)</p> <p>읽는 방법과 순서가 어색하고 낯설 수 있으니 시작하는 성도님의 이름으로 설명을 해드립니다. (첫 시작에 진행이 잘 안됨)</p> <p>멘트 : 한 단락씩 000(성도님 이름) 읽은 후에 왼쪽에 있는 분이, 그리고 뒤에 있는 분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됩니다.</p> <p>한 단락이 끝날 때 회중은 “아멘” 으로 화답하며 이어갑니다.</p> <p>(4) 성경 읽기</p> <p>6페이지에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보고 읽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읽습니다.</p> <p>멘트 : 신명기 5장과 시편 88편을 읽어 드릴 때,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p> <p>(5) 성찰 기도 (준비된 성찰 기도 내용을 담당자가 읽습니다.)</p> <p>성찰 기도 파일에서 오전 삼중 기도 분위기에 맞는 구절을 6-7개 찾아서 천천히 읽습니다.</p> <p>멘트 : 침묵하고 자신의 삶과 마음을 살피는 시간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 구절을 듣고 자신을 살피며 합당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면 인정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침묵으로 기도합니다.</p> <p>(6) 주기도문</p>	
--	--------------------	---	--

		<p>멘트 : 다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p> <p>(7) 개인기도</p> <p>주기도문이 끝나면 조력자가 기도 음악을 틀고, 조명을 약하게 소등합니다.(십자가 조명 빼고 모두 off, 십자가 조명은 무대 쪽에 스위치있음.)</p> <p>28분이 되어도 기도가 마무리 되지 않으면</p> <p>식당동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교역자가 이동 멘트를 합니다.</p>	
	<p>10:30 ~</p>	<p><오리엔테이션></p> <p>10명 이상일 경우 2개조 운영. 10명 이하 인도자가 오리엔테이션 진행.</p> <p>조력자는 실외 음악(떼제 찬양 재생 - 예배당 사무실)</p> <p>식당동에 함께 모여서 4가지 방(아하독서방, 우와말씀방, 중보기도방, 마음살핌방)함께 돌면서 방에 들어가 교역자가 참석자들에게 각 방을 설명합니다.</p> <p>아래에 있는 멘트를 참고 하셔서 멘트를 더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p> <p>멘트 : (아하독서방) 영성에 관련된 최신 책들과 일반 책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책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p> <p>(우와말씀방) 성경필사를 할 수 있도록 성경필사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일훈련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경을 필사하여 한 권의 성경을 필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가져가시면 안됩니다.</p> <p>본인이 현재 필사를 하고 있는 노트를 가져오신 분은 이곳에서 개인 필사 노트에 기록하셔도 됩니다.</p> <p>(중보기도방) 이곳에는 성도들이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치유기도문과 영성센터기도문, 성찰기도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p> <p>맨 위 칸에 있는 파일은 치유기도문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p>	

		<p>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파일 마지막 부분에는 월광교회 환우 명단과 목요중보 기도문이 있습니다. 환우 명단에 어떤 성도님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치유기도문을 읽어도 좋습니다. 영성센터기도문도 처음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p> <p>성찰기도문은 성경 구절을 한 구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묵상하시면 됩니다.</p> <p>(마음살핌방) 비치된 마음살피기 질문지에 따라 나의 마음을 살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깊이 묵상하며 나의 이름을 지어보는 장소가 됩니다. 마음살피기 질문지는 작성하신 후에 가져가시면 됩니다.</p> <p>(숙소 안내) 숙소에는 잠깐 쉴 수 있도록 침구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p> <p>경건 훈련을 위해서 준비된 방들은 편안하게 자유롭게 이용하시면 되고, 주변을 자유롭게 산책을 하시면서 편안하게 하루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p> <p>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칩니다. 질문 있으신가요?</p> <p><u>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참석자들에게 회비(1만원)를 받습니다.</u></p>	
	<p>~ 12:00</p>	<p>개인 시간</p>	
	<p>12:00 ~</p>	<p><점심식사 시간></p> <p>교역자는 점심식사 2분전에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식당동 1, 2층과 숙소에 알립니다.</p> <p>(안내방송 가능 : 예배당 사무실 차임벨, 마이크 사용)</p> <p>식후 티타임은 개인적으로 하게 함.</p> <p>3시 삼중 기도 후 목회자와 티타임 때 드립커피.</p>	

		(식후 티타임이 길어지지 않도록 주의)	
	12:30 ~	개인 시간	
	15:00 ~	<p><오후 3시 삼중기도> 15분</p> <p>(1) 삼중기도 알림</p> <p>교역자가 예배당 자리에 앉아 종을 3번 친 후 삼중기도를 시작합니다.</p> <p>(2) 찬송가 630장 찬양</p> <p>비치된 패드에 있는 찬송가 음원을 틀고 찬양</p> <p>(3) 성경 읽기</p> <p>6페이지에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보고 읽습니다. 오전에 2장, 오후 2장씩 읽습니다.</p> <p>멘트 : 신명기 5장과 시편 88편을 읽어 드릴 때, 묵상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p> <p>(4) 개인 믿음 성숙을 위한 기도</p> <p>멘트 : 한 문장씩 이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앞에서 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며, 회중은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으로 화답하며 이어갑니다.</p> <p>(5) 찬송가 631장 찬양</p> <p>비치된 패드에 있는 찬송가 음원을 틀고 찬양</p> <p>(6) 마무리 기도</p> <p>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p>	

		(7) 개인기도 - 조력자 : 음악, 소등	
	15:30 ~	교역자들과 참석자들이 티타임 하는 시간 - 티타임 시간에는 주일 설교, 영성훈련, 삼중기도 등을 통해 느꼈던 감정 등을 나눕니다.	
	17:00 ~	<저녁식사 시간> 교역자는 저녁식사 2분전에 식사가 준비되었음을 식당동 1, 2층과 숙소에 알립니다.	
	17:30 ~	개인 시간	
	19:00 ~	<오후 7시 삼중기도> 15분 (0) 오후 7시 삼중기도 후 한 문장 소감문 광고 하루 동안 받은 은혜와 누린 평화에 대한 감사를 쓰게 합니다. (볼펜, 한 문장 소감문 준비) 작성 장소 : 개인 기도 후 예배당 또는 식당동 (1) 삼중기도 알림 교역자가 예배당 자리에 앉아 종을 3번 친 후 삼중기도를 시작합니다. (2) 찬송가 632장 찬양 비치된 패드에 있는 찬송가 음원을 틀고 찬양 (※ 2번 찬양합니다.) <u>한번은 반주를 틀고, 한번은 무반주로 천천히 부릅니다.</u> (3) 저녁 기도 멘트 : 하루를 마치며 주님께 저녁 기도합니다. 제가 낭독할 때 성도들은 침묵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4) 성찰 기도 준비된 성찰 기도 내용을 담당자가 읽습니다. 성찰 기도 파일에서 저녁 삼중 기도 분위기에 맞는 구절을 6-7개	

	<p>찾아서 천천히 읽습니다.</p> <p>(5) 교회를 위한 기도</p> <p>멘트 : 한 문장씩 이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앞에서 뒤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며, 회중은 문장이 끝날 때마다 “아멘!” 으로 화답하며 이어갑니다.</p> <p>(6) 평화를 구하는 기도 (인도자부터 한 단락씩 읽고, 아멘)</p> <p>(7) 마무리 기도</p> <p>인도자가 마무리 기도를 합니다.</p> <p>(8) 개인기도</p> <p>- 조력자 : 음악, 소등</p>	
19:30 ~	한 문장 소감문 작성, 개인 시간	
20:00 ~	교회로 출발	



(그림 4-12) 영성센터 일일훈련(삼종기도) 인도자 자리

이 표와 그림은 인도자의 역할, 진행 단계, 준비 절차를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소그룹 안에서 정서적 안전감과 상호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리더십과 운영의 표준화 장치로 해석한다.

3. 사례 요약 및 EPIC분석

본 연구는 ‘EPIC-Immersive’의 관점에서 현대 교회 신앙 형성 과정에서 삼종기도가 수행한 역할을 분석하고, 이를 월광교회의 적용하여 살펴보았다. COVID-19 팬데믹 이후 해체되듯 했던 신앙의 흐름과 약화된 소그룹의 공동체성이 다시 회복되어야 한다는 교회공동체 요청 속에서, 삼종기도의 실천은 단순한 전통 재현이 아니라 일상의 시간, 공간과 전체를 하나님께로 다시 정향 시키는 영적 재구조화의 시도였다.

특히 월광교회가 시행한 삼종기도 프로그램은 성도들이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기도 흐름 속에 몸과 마음을 담그도록 돕는 ‘몰입형 신앙훈련(Immersive Faith Formation)’의 특성을 분명히 드러냈다. 하루 세 번 시간을 멈추고 기도하는 경험은 성도들이 일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영적 리듬을 회복하도록 이끌었으며, 영성센터라는 구별된 공간은 성도들이 ‘보는 예배’를 넘어 직접 참여하는 기도, 함께 누리는 소그룹의 공동체성,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영성을 경험하도록 촉진하였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삼종기도와 영성훈련이 개별 성도에게서 끝나지 않고 교구의 순(소그룹)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함께 이동하고, 함께 침묵하며 기도하고, 하루의 경험을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소그룹은 단순한 조직 단위를 넘어 신뢰와 영적 친밀감이 회복되는 관계의 장이 되었다. 이러한 관계적 에너지는 다시 가정으로 확장되어, 가정예배가 자연스럽게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였다. 결국 삼중기도는 교회라는 큰 공동체와 순이라는 작은 공동체, 개인과 개인의 사이를 유기적으로 연결 시키며, ‘교회는 관계의 생태계’ 라는 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실천이 되었다.

“기도에 깊이 잠겨드는 느낌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하나님의 임재가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였다” 라는 성도들의 결과 보고는 ‘삼중기도’ 가 성도들의 신앙을 종합적으로 Immersive(몰입)토록 하였다는 것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제시한 실천은 그 자체로 완성이라기보다, 향후 더 풍부하게 발전될 여지를 품고 있다. ‘지속성을 위한 구조화’ 의 부분에서 삼중기도 참여는 분명 강한 영적 체험을 제공하지만, 하루 방문형 프로그램은 반복적 참여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이를 일정한 주기(월 1회, 분기별 등)적인 교구별 정례화로 만들어 1회성 체험이 아닌 지속성을 갖춘 훈련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소그룹 리더 교육의 보완이 필요로 하다. 삼중기도에서 경험한 공동체성을 실제 소그룹 모임으로 가져오려면, 순장(리더)의 영성 교육이 중요하다. 소그룹 공동체 기도 방법 훈련을 받은 리더가 은혜를 나누며 이끄는 순모임은 서로를 이끌어 주는 관계를 넘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공동체성을 형성해야 한다. 또한 주중인 5일 동안만 시행하는 훈련이기에 참여자의 다양성 확대가 필요하다. ‘직장인’, ‘초신자’, ‘중장년층’ 등 서로 다른 삶의 리듬을 가진 이들이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평일 저녁형’, ‘토요 오전형’ 더 나아가 ‘온라인 연동형’ 등 다양한 형태의 삼중기도 확장이 고려될 수 있다.

결국 삼중기도를 통한 회복은 성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살아 있도록 돕는 영적 생태계 복원 작업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월광교회 공동체가 다시 서로를 연결하고, 더 나아가 가정 속에서 신앙의 숨결이 회복되며, 신앙이 ‘정보’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나는 선순환을 만들어 냈다. 앞으로도 이 실천이 교회와 소그룹, 그리고 가정을 이어주는 중요한 영적 축으로 더욱 깊어지고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E. EPIC - Fellowship : 가정예배를 통한 믿음의 공동체 형성

EPIC L.I.F.E.의 두 번째 축인 Immersive(몰입)은 신앙 형성을 단지 교회 프로그램이나 주일 예배의 영역에 머물게 하지 않고, 신자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잠기게 하는 전인적 참여로 이해한다. 신앙이란 특정한 순간이 아니라, 일상의 시간·공간·관계 속에서 반복되고 지속될 때 비로소 깊이 있는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관점에서 ‘EPIC L.I.F.E.’의 세 번째 축인 ‘Fellowship’이 가정 안에서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생활 속의 예배성’을 되찾게 하는 중요한 실천적 의미를 갖게 된다. 가정은 성도가 가장 오래 머무르는 생활 세계이며, 감정, 관계, 대화, 습관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가정 안에서의 부모세대의 믿음이 자녀세대로 계승됨은 당연하다. 사도바울도 디모데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⁷⁷

신앙의 계승이 스승과 제자로서의 관계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먼저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특별히 디모테에게는 외조모 로이스로부터 시작된 신앙이 어머니 유니케로, 그리고 디모테에게로 계승 되었다는 것이다. 그 신앙의 특징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 단절되지 않고 세대를 넘어 계승되는 구조를 확인하게 된다. 디모테의 믿음은 개인적 신앙 체험에 그친 것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경험되고 전수된 신앙이었다. 이는 가정이 곧 1차적 신앙 공동체임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러한 신앙의 계승은 단순한 종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태도와 가치관, 고난을 향한 자세까지 포함하는 전인적 신앙 전수이다.⁷⁸

신약 성경에서 ‘가정’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오이코스(oikos)’이다. 이 단어는 단순히 혈연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공유하고 돌보며 운영해 나가는 삶의 단위로 이해된다. 여기서 파생된 ‘오이코노미아(oikonomia)’는 오늘날 ‘이코노미(economy)’의 어원이 되며, 이는 가정이 곧 경영해야 할 삶의 공동체임을 함의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은 단순히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돌보고 가꾸며 영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소그룹이다. 부모는 단순한

⁷⁷ 디모테후서 1장 3절-8절.

⁷⁸ 임경근, 『가정예배 가이드』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p22-25.

보호자가 아니라, 자녀의 신앙 여정의 동반자이자 영적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이는 말로만 가르치는 차원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함께 실천하는 신앙의 모델링을 통해 이루어진다.⁷⁹ 가정예배는 이러한 신앙 경영의 출발점이다. 예배를 통해 가정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서게 되며, 이를 통해 세대 간 Fellowship이 자연스럽게 형성된다. 이 Fellowship은 단지 정서적 유대감을 넘어, 하나님 중심의 연대감과 영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1. 가정예배와 Fellowship의 형성 구조

가정예배는 Fellowship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요소이다. 이는 예배가 교회 공동체라는 소속적, 장소적 의미에서의 공간에 국한 되지 않고 일상의 삶 속으로 확장되는 실천적 장치로 기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교회와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구조적 변화의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정의 영적, 정서적 준비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하였다. 이는 가정예배가 단순히 예배 순서를 도입하는 것이 아닌, 가족 구성원 모두가 정서적으로 준비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임을 의미한다. 그 시작을 돕는 도구가 표 4-5와 같다.

⁷⁹ Ibid., p26-27.

(표 4-5) 가정예배 시작을 위한 사전 점검표

가정예배를 위한 신앙 점검표					
항 목	매우 나쁨	나쁨	보통	좋음	매우 좋음
신앙의 일상화					
세대 간 영적 소통					
말씀 중심의 가족 문화					
기도를 통한 정서적 유대관계					
신앙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내면화					
신앙 언어의 일상화					
영적 권위의 건강한 회복					
신뢰 기반의 의사소통					

이 표는 가정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점검해야 할 준비 요소를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개인과 가정의 신앙 실천이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는 출발점이며, 신뢰와 소속감을 형성하는 준비 단계로 해석한다.

가정 안에서의 세대별 믿음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으며, 그 신앙의 형성은 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간의 Fellowship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를 위해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말씀 앞에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신앙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의 구조가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이 과정 속에서 자녀는 신앙을 강요받는 대상이 아닌, 동행하는 참여자가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자발적 신앙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에 가정예배는 의사소통 구조를 개선하는 영성적 측면의 순기능을 하게 된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감정이 정제되고, 갈등이 중재되며, 신앙이 관계 회복의

도구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Fellowship을 감정적 친밀함을 넘어 영적 연대감으로 심화시킨다.

2. 월광교회의 가정예배의 실제적 운영 모델

a. 말씀가정형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에서 제공하는 1년 52주의 말씀을 전세대가 동일하게 주일 말씀으로 사용하는 월광교회에서는 3가지 형태의 가정예배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는 가정 기본형인 ‘말씀가정형’이다. 이는 매우 간단하면서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주일의 말씀을 세대별 각 공동체에서 선포된 말씀을 듣고 주중에 정해진 시간에 가정예배의 시간을 갖는다. 이는 부모가 설교를 하고 자녀가 듣는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그 때의 느낌을 나누는 형식을 취한다.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거나, 돌아가면서 읽은 후 ‘쉐마의 대화’의 시간에 주어진 질문을 읽으며 당시의 느낀점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부모는 자녀의 느낀점에 대한 피드백을 해서는 안된다. 자신의 느낀 솔직한 고백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공동체, 서두에서 살폈듯이 ‘신뢰 기반의 의사소통’이 여기서 이루어 지기에 반드시 부모는 듣고, 평하지 말아야 한다. 이후 ‘대화 나누기’에서 자신의 실천 사항을 정하게 된다. 무엇을 실천에 옮길 것인지 정하고 이를 점검하는 시간이다. 이는 감시의 기능이 아닌, ‘도전’이라는 시도적 의미가 크다. 가정 안에서 여러 시도를 해봤을 때 서로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되며 이를 통해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b. 식탁교제형

두 번째로 ‘식탁교제형’이다. 첫 번째인 ‘말씀가정형’이 주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복습형 가정예배이면, 이는 예습형의 가정예배이다. 교회의 후보가 나오는 토요일 순서를 배부 받고 온 가족이 토요일 저녁식사 시간에 모여 예배하는 형태이다. 이는 정해진 시간에 온 가족이 모여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며 가족 안에서의 교제까지 가능한 예배이다. 이뿐 아니라 주일 예배 본문 말씀을 미리 읽고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 당일의 집중력을 부모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갖는 장점이 있다. 미리 듣고 생각한 말씀과 설교자의 말씀을 비교하며 말씀의 새로움을 발견하는 예배가 되며 매우 집중도 높은 예배가 된다.⁸⁰

먼저 가족 구성원과 상의하여 1년 동안 사용할 복음송을 한 곡 정한다. 정한 찬양은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입례송처럼 활용되며 나이와 상관없이 반복적으로 찬양하며 암기하게 되는 장점이 있다. 또한 평소 집이라는 공간만이 아닌 자신이 머무는 장소에서도 흥얼거리는 찬양으로 가족송처럼 활용된다. 또한 선택찬양을 하여 가족 구성원이 순번으로 부르고 싶은 찬양을 고민하고 준비하여 찬양한다. 이어서 ‘말씀 탐험하기’를 진행한다. 말씀가정형과 비슷하지만 부모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아이들의 질문을 받아 설명을 해야 한다. 그래서 후보가 나옴과 동시에 시대적 배경, 본문의 스토리 정도는 파악하고 읽는 것을 추천하고 있다. 말씀을 읽은 후 부모가 간단한 설명을 한 후 ‘가치 발견하기’로 넘어가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눈다. 이 때에도 부모는 자녀들을

⁸⁰ 임경근, 『가정예배 가이드』, p33-34.

가르치는 것이 아닌, 듣는 시간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후 서로의 기도제목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나눔을 한다. 자녀가 어려도 그만의 기도제목이 있다. 유치원에서의 일도, 자신의 걱정도 기도제목으로 받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다. 이 때에 부모는 자녀들의 기도를 기록하여 이들이 지금 어떠한 고민 속에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끝난 후 게임 시간을 갖는다. 이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월별 게임세트로 진행한다. 자녀들의 연령에 맞는 게임도구를 제공하므로 가정예배가 식상한 형식이 아닌 재미도 함께 누릴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임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게임을 진행하며 식탁교제의 메인을 준비하는데 이는 외식이 아닌 특별한 식사로 가족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준비한다. 월광교회에서는 치킨 쿠폰을 보내 가정예배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c. 일반가정형

세 번째로는 ‘일반가정예배’⁸¹이다. 모든 순서와 과정이 인도자 중심의 멘트와 자녀들이 함께 풀어나가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가정예배’이다. 이는 교단 공과와 연결되어 있는 자료로서 ‘말씀가정형’, ‘식탁교제형’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준비된 과정이다. 이는 순서에 따라 진행하며 시청각 교재를 활용하여 아이들과 흥미롭게 진행한다. 웹툰 형식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과정별로 만들기가 있어서 어린 자녀들과 재미있는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활용도가 좋다.

⁸¹ ‘부록’ 참조.

3. 관찰 결과와 이론적 접목

현대 한국사회는 핵가족화, 맞벌이 구조와 디지털 환경등으로 인해 가정 내 신앙 교육은 시도도 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부모와 자녀 간 신앙적 대화는 감소하고 예배의 중심은 교회 프로그램에 종속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가정예배의 회복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교회는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특히 COVID-19 팬데믹 이후 가정의 신앙적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으며, 온라인 예배 환경 속에서 가정이 예배의 중심 공간으로 재조명되었다. 이는 ‘Fellowship’ 을 다시 가정으로 되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에 ‘가정예배’ 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다.

부모세대가 느끼는 신앙 교육이라는 장벽, 신앙 언어의 단절, 예배 인도의 부담감을 교회가 줄여주며 실제적인 자료와 인도법, 부모 코칭까지 책임지고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역량을 강화한다면 가정이라는 소그룹은 ‘세대 간 영적 소통’ 이 가능한 곳이 되며, ‘말씀 중심의 가족 문화’ 를 갖게 되고, ‘기도를 통한 정서적 유대관계’ 를 나누는 공동체가 된다. 그럴 때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는 ‘신앙 정체성의 자연스러운 내면화’ 를 경험하게 된다. 다시 말해 자연스러운 계승이 되는 것이다.

대표적 사례로 성도B는 비교인의 가정에서 혼자 시작한 신앙생활의 버거움이 있었지만, 가정예배라는 틀 안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는 축복기도를 도구삼아 믿지 않는 아버지에게 축복기도를 받으며, 손주들에게 축복기도를 부탁했을 때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다음과 같이 고백 하였다. “기적을 신비로운 것으로

생각했는데 오늘 저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일어나며 손주들에게 축복기도해 주는 아버지를 보며 제가 더 뜨거워졌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가정예배는 정서적 유대, 신뢰, 수용성, 소속감을 고르게 강화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EPIC의 이론으로 볼 때 가정예배는 Participatory(P) 요소가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장인 것이다. 참여 없이는 가정 안에 예배가 성립될 수 없기에,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은 필수조건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참여는 자연스럽게 상호 연결성을 강화하며 Connected(C) 요소와의 강화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가족 구성원이 함께 경험하는 ‘가정예배’는 하나의 연결점을 만들고 이를 통해 구성원 안에 Fellowship이 가능케 하는 것이다. 이는 EPIC의 P와 C의 요소가 실제 사역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월광교회는 가정예배에 참여한 가정이 100가정이 넘기 시작하였다. 공식적으로 부서를 출범하고 시작한지 8개월 만의 일이다. 이를 통해 예배가 주일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가정에 이어지는 은혜를 고백하는 성도들이 많아졌다. 사춘기의 시기를 보내는 자녀들과 함께 말씀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는 가정,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없었는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함께 하는 시간에 감사하다는 가정, 3대가 모일 수 없지만 화상을 통해 함께 예배 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는 가정, 남편이 믿지 않는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예배 시간에는 참여하고 자녀들을 위해 좋은 말을 해준다는 남편의 변화에 놀라는 가정들이 가정예배의 필요성과 증거이다. 이를 위해 월광교회에서는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세밀하게 돌볼 필요가 있다. 특히 실패한 가정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다시 도전 할

수 있도록 돕는 돌봄의 사역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가정예배의 실패가 세대 간의 갈등을 더욱 깊게 만들거나, 실패의 원인을 부모에게나 자녀에게 두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목회의 돌봄 준비가 필요하겠다.

결과적으로 가정예배는 팬데믹 이후 약화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데 있어 신학적, 목회적 기반을 동시에 제공하는 실천 모델이며, 그림 4-13과 그림 4-14가 보여 주듯이 이론과 현장이 만나는 지점이며 회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그림 4-13) 가정예배 드리는 다자녀 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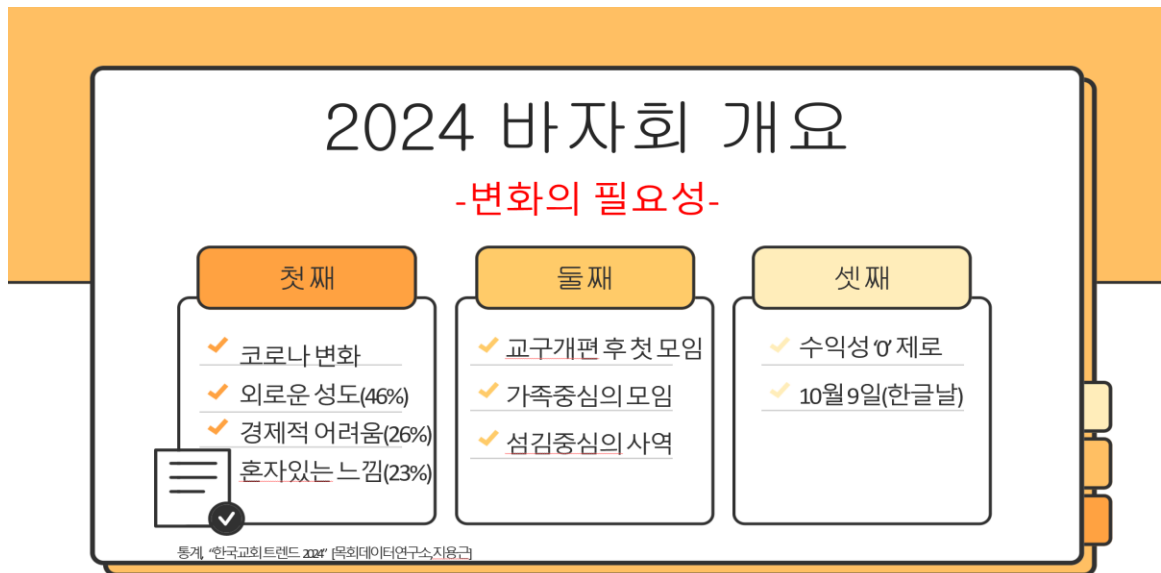
(그림 4-14) 3대가 화상으로 드리는 가정예배

이 그림은 다자녀 가족이 함께 가정예배에 참여하는 장면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신앙 실천이 가족 공동체의 관계 형성, 구성원 간의 신뢰, 소속감 강화로 확장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F. EPIC - Experience : 바자회를 통한 나눔과 섬김의 실천

COVID-19 팬데믹 이후 약 5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전통적으로 29년간 이어져 온 제 30회 바자회를 소규모 형태로 다시 개최하자는 의견들이 모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적 요소는 존재했으며, 엔데믹이 선포 되었음에도 ‘바자회’를 도전했던 M교회가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현실을 직시하며 혼란을 겪고 있던 시기였기에 30년의 역사를 잇고자 했던 생각엔 의구심이 들기도 했다. 기존대로 물품 판매와 기부금을 통해 기금 마련의 장을 만들어 지역사회에 장학금으로 전달하는 29년의 전통을 넘어서는 ‘Experience’가 필요했다. 그리하여

바자회TF팀이 구성되었고 7개월 동안의 연구 및 구상이 진행되었다. 성도와 지역 이웃이 함께 모여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적 자리가 되는 바자회, 세대와 세대가 모여 나눔과 섬김을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바자회를 바라며 준비하게 되었다. 일상의 신앙 안에서 ‘배움’이나 ‘예배’의 영역을 넘어 ‘체험’ (Experience)의 축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심점이 되는 바자회 즉, 교회의 내부적 프로그램을 넘어 열린 지역공동체로의 소통 창구이며, 또한 세대와 세대가 모여 구체적 실천으로 드러나는 장이 되는 바자회가 그것이였다. 그림 4-15는 변화의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그림 4-15) 바자회 개요

이 그림은 바자회의 전체 운영 구조와 참여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소그룹, 가정, 지역사회가 연결되는 관계적 확장 구조이며, 환대와 참여를 위한 첫 단계로 해석한다.

1. 경험 중심 교회로의 전환과 바자회의 의미변화

현대 사회는 정보의 과잉 속에 있으나 동시에 인간 내면의 공허함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교회 역시 전통적 신앙 전달 방식의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단순한 교리 교육이나 주일 중심의 예배만으로는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스윗 박사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며, 미래 교회는 더 이상 ‘설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경험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영성과 감성이 결합된 체험적 신앙이야말로 현대인이 요구하는 신앙 형태라고 보며, 교회가 복음을 개념이 아닌 삶의 사건으로 경험하도록 구조화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⁸²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바자회는 단순한 재정 확보의 수단이 아닌, ‘나눔과 섬김’이라는 복음의 핵심 가치를 공동체가 함께 살아보는 체험의 장으로 재정의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교회를 넘어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와의 새로운 체험이 바로 그것이다. 그동안 대부분의 교회에서 바자회는 행사 중심, 수익 중심의 활동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신앙 교육적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해 왔다. 그러나 ‘EPIC - Experience’의 신앙 패러다임 속에서 바자회는 성도들이 복음을 몸으로 체득하는 실천의 장으로 재구성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자회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 곧 나눔과 섬김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신앙 행위로 재해석된다. 성도들은 바자회를 통해 타인을 위한 배려, 자발적 헌신을 이루며, 교회 공동체적 책임을 경험하며, 소그룹

⁸² 스윗,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p45-47.

속에서 신앙의 내면화로 경험하게 된다. 이를 위해 바자회TF팀은 각 공동체를 만나 설득하며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바자회의 전화과 소그룹 형태의 구성, 특별히 세대별 통합과 체험이 가능한 바자회로의 의미를 말이다. 그 의미는 그림 4-16으로 정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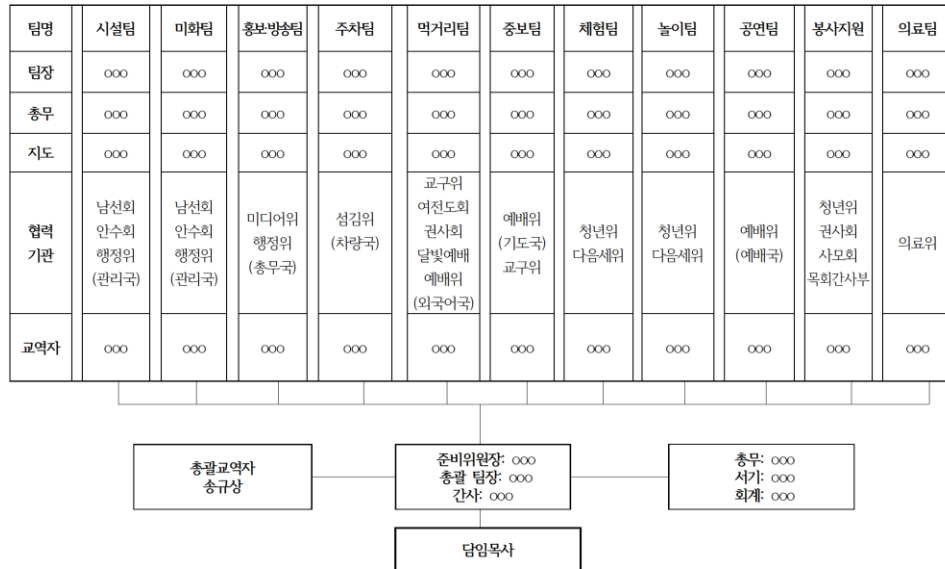


(그림 4-16) 바자회 설명자료

이 그림은 바자회의 목적, 운영 방식, 참여 절차를 시작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공동체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새롭게 시작하는 바자회의 의미와 역할을 공유하도록 돕는 소통장치로 해석한다. 그렇기에 경험 중심 교회의 원리에 기반한 바자회는 기존의 수동적 참여 구조를 탈피하여 능동적 참여와 관계 중심 구조로 재편되었다. 이는 참여자들이 단순한 소비자나 관람자가 아닌, 사역의 주체로 기능하도록 유도한 사역의 방향성이다. 이러한 원리에 부합하는 구조를 갖춰야만 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성도들이 직접 기획하고, 물품을 준비하며,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공동체적 협력과 연대가 형성되기에,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노동의 분담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앙적 연대와 섬김의 실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므로 그 소그룹 안에서의 심정적 증진이 일어나는 구조 그 자체다. 이를 위해 바자회 사역을 영역별로 재구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탑다운’ 방식의 조직이 아닌, ‘버튼업’의 조직을 만들어 성도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움직이며, 성도 간의 관계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024년 바자회 조직도



(그림 4-17) 바자회의 변화를 위한 조직도

이 그림은 바자회 운영을 위한 조직 구조와 역할 분담의 흐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본연구는 이를 책임과 권한이 갖는 리더십 구조를 통해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 소속감, 상호 신뢰가 형성되는 관계적 운영 체계로 해석한다. 이를 위해 성도가 팀의 중심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교역자는 감독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조직의 재편성을 통하여 ‘탑다운’ 방식의 사역운영이 아닌, ‘버튼업’ 방식이 새롭게 시작하는 바자회의 주된 요지였다. 특히 ‘체험팀’, ‘놀이팀’, ‘공연팀’은 세대별 만남을 주도할 수 있도록 사역의 방향을 잡았으며, 공간적 구분을 통해 만남과 체험을 통합적으로 가능토록 주도하였다. 특히 세대 통합적 구조는 바자회의 중요한 특징이다. 아동, 청소년, 장년층이 함께 참여하며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바자회는 세대 간 신앙 전수의 통로가 가능한 사역이 되었다. 이는 바자회 자체가 가정과 교회가 신앙 교육의 공동 주체로 기능하도록 돕는 계기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바자회는 단기 행사가 아니라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는 지속적 실천 구조로 발전하였다. 신앙은 특정 프로그램이 아닌 삶의 리듬 속에서 반복적으로 체험되며, 이는 성도 개개인의 영적 성장과 공동체의 건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도록 사역이 변화해야 할 바로 그 방향이다.

2. 나눔과 섬김의 체험화와 신앙형성의 토양, 가정

COVID-19 팬데믹 이후 처음 시작하는 바자회는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사역이다. 2만명이 넘는 방문객들이 있으며, 수익은 상당한 금액이 발생하며, 지역사회와 정치인들이 참여할 정도의 규모이다. 29년 동안 이러한 흐름으로 쌓아왔던 역사가 존재했기에 이를 지켜가며 새로운 방향을 공유하며, 연결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길이 필요했다. 이를 위해 월광교회TF팀은 ‘가족’에 집중하였다.

소그룹은 개인이 과편화된 시대 속에서 가족과 친한 친구 몇 명에 충실하고 싶은 현대인, 오래 지속되는 친한 친구 몇 명만 있어도 성공한 삶이라 여기는

현대인의 특성상 시대적 트렌드에 부합한 방식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연령, 직업, 취향, 동질성으로 모인 다양한 소그룹은 효과적이다.⁸³

목회데이터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전통적인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회들에서 형태의 변화가 교회의 회복의 긍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⁸⁴ 결국엔 모이고 연결할 때마다 서로의 안부를 자연스럽게 묻는 소그룹이 안정화가 되며 이 안에서 즐거움과 관계의 회복이 이루어 진다는 것이다. 더불어 외로움과 아픔 속에 있던 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다. ‘이러한 긍정적 영향이 가족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가족 공동체를 소그룹 안에 녹아 들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이 질문에서 시작되어 만들어진 것이 그림 4-18과 같다.



(그림 4-18) 바자회 포스터

⁸³ 지용근, 『한국 교회 트렌드 2024』 (서울: 규장, 2023), p217.

⁸⁴ Ibid., p218.

이 그림은 바자회의 주제와 주요 프로그램이 시각적 요소를 통해 전달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공동체의 정체성과 환대의 메시지가 이미지와 서사를 통해 구성원과 지역사회에 공유되는 도구로 해석한다. 또한 먹거리와 성인들의 공연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자회를 ‘가족 공동체’ 라는 소그룹 중심의 체험 중심의 바자회로 탈바꿈한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함께 참여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부모님을 초대하는 가정에는 자연스럽게 3040세대가 함께 하는 자리가 마련되기에 ‘세대 간 통합’ 이라는 위대한 체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5Z’ 가 탄생하게 되었다. 다섯 가지의 ‘Experience Zone’ 을 뜻한다.

먼저는 ‘먹거리존’ 이다. 교구별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여 어른들과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23가지의 먹거리를 개발 운영하는 곳이다. 또한 다문화에 속하는 필리핀공동체, 중국어공동체, 영어공동체가 선보일 수 있는 음식을 만들어 성도와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그림 4-19와 같이 먹거리를 제공하였다.

Oh, Happy Family		
간치국수 ... 5000원	김 밥 ... 2000원	통 닭 ... 14000원
비빔국수 ... 6000원	수 육 ... 15000원	어묵꼬불이 ... 1000원
팔 죽 ... 8000원	순 대 ... 5000원	어묵봉 2개 ... 1000원
장어탕 ... 9000원	전 어 ... 18000원	떡볶이 ... 3000원
마라탕 ... 8000원	닭강정(대) ... 7000원	닭 꼬 치 ... 3000원
마라탕 (고기추가) ... 10000원	닭강정(중) ... 5000원	소떡소떡 ... 2000원

CATS 뮤지컬 공연 1회 : 오후 1시30분 2회 : 오후 4시30분 은혜물

(그림 4-19) 바자회 먹거리존 대표 메뉴판

이 그림은 바자회 먹거리존에서 제공되는 대표 메뉴와 가격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환대의 실천이 음식 나눔을 통해 소그룹, 가정, 지역사회를 연결해주는 도구이며,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구조의 단계로 해석한다.

두 번째로 ‘놀이존’이다. 월광교회에서 운영하는 기독교초등학교의 강당과 주차장의 대형 놀이터를 조성하여 운영하였다. 이는 자녀들의 연령대를 고려하여 ‘영아, 유아, 유치 놀이터’, ‘아동(초등)놀이터’, ‘청소년 놀이터’를 만들어 가족 구성원에 맞춰 참여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이를 위해 청년들이 안전요원으로 참여하며, ‘형’, ‘누나’ 등이 함께 놀아주는 구성을 맞추게 되었다. 어른이라는 감독자의 기능보다는 ‘함께 놀아 주는 공동체’를 느끼는 공간적 배려를 한 것이다. 그 대표적 놀이 시설이 그림 4-20이다.



(그림 4-20) 바자회 놀이존의 놀이기구들

이 그림은 바자회 놀이존에 배치된 놀이기구에 참여한 아이들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놀이를 매개로 한 정서적 유대와 소속감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관계적 접촉 지점으로 해석한다.

세 번째로 ‘체험존’이다. 모든 세대가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부스를 운영하여 장년, 청년, 다음세대인 아이들까지 함께 활동 가능한 체험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아이들이 친구를 초대하여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어색함이 아닌, 편안함으로 교회를 피부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10가지의 체험을 할 수 있다. RC카 경주, 인생네컷, 에코백 만들기, 바람개비 만들기, 십자가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복음텐트, 전통체험(새끼꼬기), 생수 나르기 체험, 대형보드게임등을 체험할 수 있었다. 특별히 그림 4-21과 같이 ‘복음텐트’는 작은 텐트 안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스토리를 듣고 결단하는 과정이다. 친구들을 초대하여 복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다. 이 곳에서 60 여명이 넘는 아이들이 예수를 믿겠노라 결단하는 기적이 일어났다. 또한 ‘생수 나르기 체험’은 월드비전⁸⁵에서 진행하였으며, ‘대형보드게임’은 세이브더칠드런⁸⁶에서 운영하며 어려운 국가의 필요한 생수와 집의 소중함을 전하였다. 다양한 체험 속에서 기쁨과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경험을 하는 체험존이 되었음은 분명하다. 특별히 세대 간의 자연스러운 나눔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그림 4-22 전통체험인 ‘새끼꼬기’였다. 벧짚을 준비하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직접 손주, 손녀에게 방법을 전수하는 방식이었다. 나이들어 더 이상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꼈던 어른들이, 이곳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꼈고, 아이들에게 전수 할 내용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를 현장에서

⁸⁵ 한국월드비전- 한국전쟁에서 시작해 100개국과 함께하는 세계최대 국제구호개발 NGO단체이다.

⁸⁶ 한국세이브더칠드런- 인종, 종교, 정치적 이념을 추월하여 아동 권리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 NGO단체이다.

배우는 아이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새끼꼬기를 매우 잘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보며 신기해하는 장면은 이 장소가 어떠한 곳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최고의 순간이 되었다.



(그림 4-21) 바자회 체험존의 ‘복음텐트’



(그림 4-22) 바자회 체험존 ‘새끼꼬기’

이 그림은 복음텐트 안에서 복음 설명이 전수되는 장면과 세대 간 전통을 전수하는 공동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신앙 공동체 안에서 관계 형성이 지식 전달을 넘어 정서적 유대, 신뢰, 세대 간 소속감이 강화되는 경험적 과정으로 해석한다.

네 번째로 ‘공연존’이다. 공연존의 가장 큰 목적성은 교회를 찾아 오는 문턱을 낮추는 것에 있었다. 방문하여 예배장소를 간접으로 경험하며 메인 예배처소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동과 은혜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 과제였다. 이를 위해 수준이 높은 공연팀을 섭외하여 초대하게 되었고, 어린이들과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는 공연이 필요하였다. 이를 위해 그림 4-23과 같이 뮤지컬을 메인 공연장에 더하여고, 그림 4-24와 같이 외부 공연장도 운영하였다. 가족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찬양축제와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외부공연존이었다. 지역주민센터에서 모임으로 시작된 지역민들의 ‘풍물길놀이’, ‘하모니카’, ‘장고’, ‘전통춤’이 참여하였고, 가족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중창단’, ‘합창단’, ‘우쿨렐레’가 공연되었다. 이뿐 아니라 지역에서 운영하는 ‘태권도’를 참여 시켜 품세시범과 격파술을 공연하였다. 마지막으로 월광교회의 찬양으로 섬기는 ‘오케스트라’, ‘성악가팀’이 공연하였다. 이를 통해 가족구성원 모두가 시간대별로 함께 참여하고 관람하여 서로를 응원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그림 4-23) 바자회 공연존의 실내 ‘가족뮤지컬’



(그림 4-24) 바자회 공연존의 ‘야외 공연’

이 그림은 실내 가족뮤지컬 공연을 관람하는 경험과 야외 공연에 참여하는 교회와 지역 구성원들의 공동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문화적 참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세대 간 정서적 공감과 소속감 형성을 작동하는 과정이며 관계적 실천으로 해석한다.

다섯번째로 ‘피크닉존’이다. 이 곳은 그림 4-25와 같이 파라솔 그늘막 아래 잔디에서 즐기는 교제의 공간이다. 가족모임,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갖는 곳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곳은 향후 월광교회의 사역방향의 재편성과 맞닿아 있었다. 월광교회 법인재단인 ‘월광기독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는 교회의 주차장을 공유하며 교회의 맞은편에 위치한다. 교육청의 인가를 받은 법인학교로서 그 시설물과 운영은 학교와 교육청에 있지만 교회는 이를 돕기 위해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기에 바자회를 통해 나눔과 섬김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소, 향후 이곳을 기억하며 초등학교의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이웃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의 의미를 갖도록 준비하였다. 그리하여 이 곳에서 세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소그룹의 섬을 갖게 되었으며 이후 학교와 이웃주민들이 편안함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피크닉존이 갖는 의미였다. 이를 위해 최상급의 인조잔디를 준비하여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그림 4-26과 같이 이곳에서는 매일 아이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저녁에는 주민들이 찾아와 앉아서 쉬는 공간이 되었다.



(그림 4-25) 바자회 피크닉존



(그림 4-26) 바자회 후 피크닉존 이용 모습

이 그림은 바자회 피크닉존에서 지역 주민들이 휴식하는 장면과 바자회 이후 학교 학생들이 야외 공간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 관계 형성을 이루며 지역사회와의 접점으로 확장되어 공동체적 만남과 공동체적 신뢰로 확장되는 과정으로 해석한다.

3. 관찰된 변화와 목회적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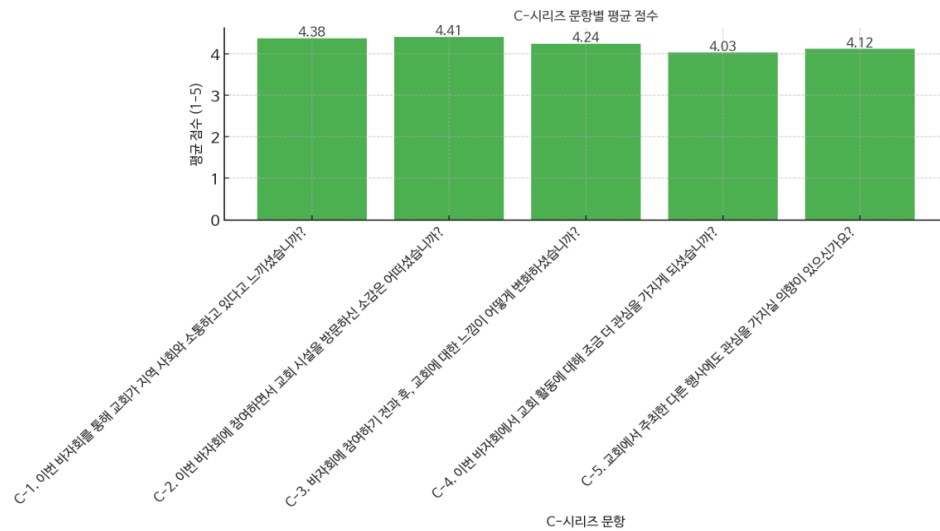
EPIC - Experience는 교회를 ‘가르침의 공간’에서 ‘경험하는 공간’으로 전환 시키는 핵심 실천 패러다임이다. 바자회를 통한 나눔과 섬김의 실천은 단순한 프로그램을 넘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재확인하는 장이 되었다. 또한 세대 간의 만남과 소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는 장이 되었다. 스윗 박사가 강조한 것처럼 ‘미래 교회는 지식이 아닌 경험을 통해 복음을 전달해야 하며, 교회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삶과 공동체의 경험 속에 구체화할 수 있는 곳’⁸⁷이라는 것 잊지 않고 제공해야 한다. 바자회는 그러한 구조를 실천적으로 구현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한국교회의 위기, COVID-19로 더욱 심각해진 플로팅 크리스천 현상, 가족의 중요성과 그 안의 신앙계승의 문제들이 이 바자회를 통해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음은 분명해 보인다. 또한 신앙의 내면화 공동체성 약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구체적 대안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회를 다시 신뢰받는 공동체로 회복시키는 통로가 되었던 것이다.

결국 EPIC - Experience는 나눔과 섬김을 통해 교회의 존재 이유를 재확인하고, 성도들이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도록 돕는 실천적 구조인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자회는 비전을 실현하는 현실적 모델이며, 지속 가능한 교회 갱신의 중요한 열쇠이다. 이를 위해 바자회TF팀은 방문자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표본 선정은 비교인으로 무작위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5척도 조사로 진행하였으며 눈에 띄는 것은 피 4-6과 같이 비교인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는

⁸⁷ 스윗,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p111-113 .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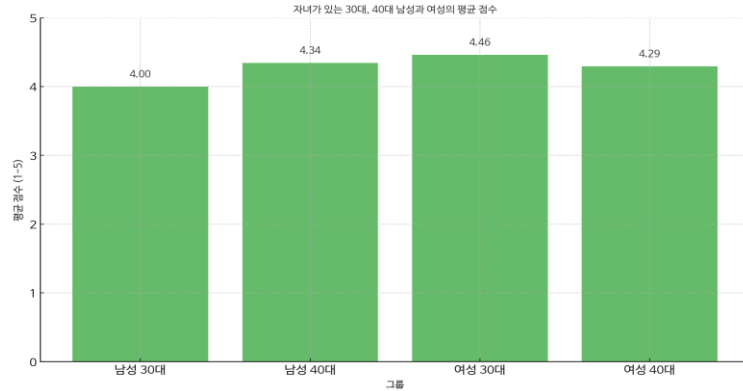
(표 4-6) 바자회 만족도 조사



이 표는 바자회 참여자 중 비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와 세부 평가 항목별 응답을 구조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비교인들이 바자회를 통해 신뢰, 정서적 유대, 소속감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관계적 지표로 해석한다.

교회 시설 방문 소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평가 되는 것을 통해 바자회의 주요목적인 ‘비교인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기회(예배당으로의 초대)를 제공한다’가 잘 달성되었을 볼 수 있었다. 이뿐 아니라 자녀를 둔 30대, 40대 남성과 여성의 만족도 분석을 통해 가족과 함께 바자회를 즐기면서 느낀 부분도 조사하였다. 그 결과가 표 4-7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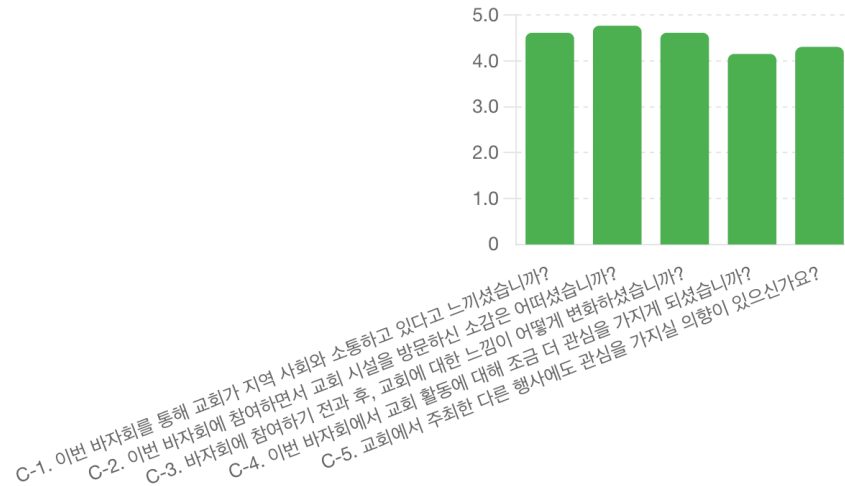
(표 4-7) 바자회 만족도 조사



이 표는 3040세대가 바자회 만족도 응답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50대, 60대에 집중 되었던 공동체의 프로그램에서 다음세대를 준비하는데 가능성을 보여주며, 관계 형성과 소속감 인식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한다.

30대 여성들은 교회와 소통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의 소통 전략이 효과적이었음 보여주고 있다. 또한 표 4-8에서 보여주듯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의 가능성에서도 교회의 다른 행사에 대한 관심을 보이며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이나 자녀를 동반한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음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계 형성의 사역을 해낼 수 있는 방향성이 발견되었다.

(표 4-8) 바자회 만족도 조사



이 표는 바자회를 통해 교회가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평균 4.0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바자회가 지역사회와의 관계적 신뢰와 참여 의향을 유의미하게 강화하는 지표로 해석한다.

관찰된 변화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로, 소그룹 안에서의 바자회라는 사역을 통해 서로간의 신뢰가 증대 되었다는 것이다. 둘째로, 나눔을 함께 실천하며 관계적 결속력이 강화되어 소속감을 크게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다. 셋째로, 이번 경험이 신앙생활의 섬김과 헌신에 대한 동기부여가 증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경험이 관계를 재구성하는 형성적 과정임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는 월광교회에 속한 소그룹 구성원들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닌, 비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음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비교인A는 “매년 마다 이러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를 핑계로 자녀들을 불러 올 수 있어서 좋았다.” 는 피드백은 ‘EPIC-Experience’ 가 교회 밖에 구성원들, 특별히 가족 구성원까지도 신뢰와 유대감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바자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EPIC-Experience’ 는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교회의 섬김 사역을 구조화하는 출발점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목회적으로도 의미를 갖는다. 바자회 이후 봉사팀 조직을 재정비하는 방향성을 알게 되었고, 이는 지속가능한 사역 구조로의 변화로 이어졌다. 즉, 단순히 교회의 큰 사역을 위한 것이 아닌, 소그룹으로의 연결과 동시에 소그룹 안에서의 경험을 주기 위한 교회의 변화를 의미 하는 것이다. 비교인들에게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며, 재방문 의사와 추천 의향이 높게 나타남은 교회의 소그룹 사역이 구심점이 되어 더욱 다양한 방향성으로

나아가며, 심정적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함을 보여준다.

다음의 표 4-9는 EPIC L.I.F.E.의 네 가지 실천 사례가 심정적 관계의 다섯 요소를 어떻게 형성하고 강화했는지를 요약한 것이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의 연구가 소그룹 사역에 일회적인 프로그램으로서의 효과를 넘어, 정서적, 영성적, 관계적인 구조 전반에 통합적으로 작용됨을 확인된다.

(표 4-9) 심정적 관계 다섯 가지 요소와 EPIC L.I.F.E. 사례 적용표.

심정적 관계 요소	의미	Learning (말씀묵상학교)	Immersive (삼중기도)	Fellowship (가정예배)	Experience (바자회)
정서적 유대	감정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수용받는 경험을 함	말씀 묵상을 통해 개인 감정의 언어와 공유 경험함	반복 기도를 통한 정서적 안정감 형성함	가정 단위의 친밀한 대화 속 정서적 유대가 강화됨	공동의 목적을 실천하며 정서적 연대를 형성함
영적 공감	신앙 경험을 함께 해석하고 공명하는 깊이	말씀 이미지를 공유를 통한 영적 해석의 공감함	동일한 기도 리듬을 통한 영적 동조 경험함	신앙 이야기를 삶과 연결하며 공감 형성됨	섬김의 의미를 함께 해석하는 영적 공감대 형성함
신뢰	삶과 신앙의 깊이를 나눌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함	개인 신앙 여정의 개방적 나눔을 통해 신뢰 형성함	기도 참여의 지속성을 통해 관계적 신뢰를 갖게됨	가정이라는 안전한 공간에서 상호 신뢰 강화됨	역할 분담과 책임 수행을 통한 실천적 신뢰를 갖게됨
소속감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인식과 지속성을 갖게됨	소그룹 정체성 인식 강화됨	정기적 참여를 통한 공동체 소속감 생김	가정-교회 연결을 통한 소속감 확장됨	공동 사역 경험을 통한 '우리' 의식 강화됨
수용성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경험함	신앙 수준과 속도의 차이를 존중하는 분위기 갖춤	침묵과 반복 속에서 존재 자체를 수용하는 경험함	다양한 삶의 조건을 존중하는 관계 형성됨	참여 방식의 다양성을 허용하는 열린 구조가 형성됨

이 표는 심정적 관계의 다섯 가지 요소(정서적 유대, 영적 공감, 신뢰, 소속감, 수용성)를 세로축으로, 의미, 말씀묵상학교, 삼중기도, 가정예배, 바자회를 가로축으로 배열하여 각 요소가 EPIC L.I.F.E.의 주요 실천 사례 안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관계 형성이 다양한 목회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로 해석한다.

V. 결론: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한 도약

A. 연구의 의의

본 연구에서 제시한 EPIC L.I.F.E. 모델은 특정 교회의 성공 사례를 일반화하기 위한 보편적 표준 모델이 아니다.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공동체 위기를 ‘심정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점검하기 위한 실천적 분석틀로 이해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모델은 교회의 규모, 리더십 구조와 소그룹 운영 방식에 따라 적용의 속도와 범위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각 교회의 맥락에 맞게 재구성되어 사용될 때 가장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EPIC을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나열하는 도구로 사용하기보다, 성도 간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회복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해석의 틀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공동체 위기를 단순히 출석률 감소나 프로그램 약화로 설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성도 간 심정적 관계의 약화라는 관계적 차원에서 이 위기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접근은 기존의 제도 중심의 교회 회복 논의와 구별된다. 소그룹 사역을 관계 회복의 핵심 장으로 재조명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는 의의를 지니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EPIC 이론을 예배 형식이나 교육 기법에 적용하는 기존 연구들과 달리, 팬데믹 이후 한국 교회 공동체 위기를 해석하는 관계 분석의 틀로 재구성하였다. 이는 EPIC을 ‘사역의 도구’가 아닌 ‘신앙 형성 구조를 해석하는 이론적 틀’로 사용했다는 점에서 기존

적용 연구들과 구별된다.

말씀묵상학교, 삼중기도, 가정예배, 바자회 등 다양한 실천 사례는 성도들로 하여금 단순히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준을 넘어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 그리고 영적 공감을 경험하게 하는 장이 되었다. 각 사역은 성도들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신앙의 실천이 다시 공동체적 경험과 만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였다. DI 과정에서 성도들은 개인화된 신앙 실천에서 벗어나 타인의 삶과 신앙 여정에 참여하고, 반복적인 만남과 나눔을 통해 신뢰와 정서적 유대를 재구성하는 관계적 전환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와는 동시에 한국교회는 ‘신앙의 개인화’, ‘플로팅 크리스천의 확산’, ‘관계적 거리감의 고착화’ 라는 구조적 위기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이는 결국 교회의 본질적 존재 방식에 대한 근본적 재질문을 요구하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위기속에서 본 연구는 스윗 박사의 EPIC 이론을 한국교회의 목회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여 ‘EPIC L.I.F.E.’ 모델을 도출하고, 월광교회의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소그룹 사역이 교회 공동체 회복과 심정적 관계 증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조명하였다

연구 결과 소그룹은 교회의 본질을 회복시키는 핵심 구조임이 확인되었다. 소그룹은 성도들이 신앙을 개인의 내면적 영역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삶의 실제 자리 속에서 서로를 향한 이해와 공감, 돌봄과 나눔을 실천하도록 이끄는 관계적 장으로 기능하였다. 이는 COVID-19 팬데믹 이후 시대에 심화된 개인 중심 신앙 형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이 되며, 공동체성의 회복이라는 교회의 본질적 과제를 다시금 현실화하는 통로가 되었다. 또한 새롭게 정의한 ‘심정적 관계’는 정서적 안정과 영적 공감, 신앙적 연대와 공동체 내 소속감이 통합된 관계 구조로, 성도들이 서로의 신앙 여정 안에서 영적 동반자로 연결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친교를 넘어, 관계 그 자체가 신앙 형성의 장이 되는 구조이다.

실천적 관점에서 EPIC L.I.F.E. 모델은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목회 구조의 형성을 의미한다.

‘Learning(배움)’의 영역에서는 ‘말씀묵상학교’를 중심으로 한 ‘멈추기-머물기-나아가기’의 구조가 성도들로 하여금 말씀을 단순한 지식이 아닌 삶의 방향과 영적 기준으로 내면화 하도록 도왔다. 이 과정은 교회가 단순한 교육 기관이 아닌, 영적 성숙을 위한 살아 있는 순환 구조로 기능해야 함을 보여준다.

‘Immersive(몰입)’의 영역에서는 삼중기도를 통한 전인적 참여가 신앙을 관조적 대상이 아니라 ‘경험되는 사건’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성도들의 예배 인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는 감각과 정서를 포함한 전인적 신앙의 회복이 어떻게 공동체의 영적 리듬을 되살리는지를 잘 보여준다. ‘Fellowship(교제)’은 가정예배와 소그룹 나눔을 통해 공동체 내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정서적 유대를 강화하는 장치로 작용하였다. ‘Experience(경험)’는 바자회와 섬김 활동을 통해 성도들로 하여금 신앙을 ‘삶으로 증언하는 행위’로 전환하였으며, 교회와 지역을 연결하고,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 네 영역은 단절된 신앙을 관계 속으로 회복시키며, 성도들의 신앙 정체성과 공동체 인식을 재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분명한 것은 본 연구가 정량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지 않았음에도, 참여 관찰과 심층 면담, 설문을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난 의미 단위와 주제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질적 분석은 ‘심정적 관계’를 구성하는 정서적 유대, 신뢰, 공감, 소속감이라는 명확한 분석 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 또한 사례를 비교하며 해석의 일관성을 갖게 되었다. 이를 통해 EPIC L.I.F.E. 모델이 성도들의 관계적

경험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소그룹이 공동체적 신뢰를 회복하는 중요한 영적 공간임을 증명한 것이다. 이는 팬데믹 이후 교회가 직면한 문제인 ‘예배 회복’, ‘공동체 붕괴’, ‘정서적 고립’이 단순한 ‘형식의 회복’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낸다.

B. 목회적 적용 가능성

본 연구가 제시하는 EPIC L.I.F.E. 모델은 월광교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한국교회의 다양한 소그룹 사역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교회 공동체의 소그룹 사역이 공통적으로 지니는 ‘관계 형성 구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교회의 규모, 전통, 교단적 차이와 무관하게 각 교회는 자신의 맥락에 맞게 이 모델을 재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다.

‘Learning’은 전통적 흐름을 갖고 있는 교회일지라도 성경 중심의 신앙훈련을 가능케하며, 정서적이며 경험적인 깊은 신앙활동을 더할 수 있는 구조이다. ‘Immersive’는 팬데믹 이후 증가한 불안과 정서적 피로를 완화하는 영적 돌봄의 사역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기도와 묵상을 통해 다양한 사역에 접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의 성찰과 깊이를 더 할 수 있다.

‘Fellowship’은 관계 회복의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여 가정안에서 예배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귀한 사역이다. 또한 가정에 대한 소속감, 영적 공감대, 정서적 유대가 깊어지는 기회가 되며, 가정이 회복이 되어야 교회 공동체의 회복과 직결됨은 이 모델이 매우 유용함을 보여준다. ‘Experience’은 신앙의 실천의 장으로 소그룹과 소그룹이 연결이 되고, 소그룹과 이웃까지 연결하는 강력한

통로이다. 이를 통해 교회는 이웃을 향해 열린 공동체임을 보여주며, 교회 공동체의 은혜를 흘러 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에 ‘EPIC L.I.F.E.’ 모델은 프로그램의 추가나 구조 개편을 요구하기보다, 기존 사역을 관계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하도록 돕는 틀이라는 점에서 목회적 현실성과 지속 가능성을 지닌다. 이는 목회자가 소그룹을 단순한 운영 단위가 아니라, 정서적이며 영적인 형성이 일어나는 관계의 장으로 전환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한다. 분명한 것은 본 연구는 EPIC 이론을 특정 교회의 성공 사례로 소비하는 방향성에서 ‘심정적 관계’라는 분석 기준을 통해 한국교회가 스스로를 진단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해석 틀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는 프로그램을 모방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계 형성 구조를 재설계하도록 돕는 실천적 모델이다.

C. 연구의 한계

본 논문은 분명한 한계가 존재함을 밝힌다. 단일 교회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표본의 대표성이 제한된다. 이는 월광교회의 사례에 국한되어 있어 일반화에 일정한 제한이 있음과 질적 자료 중심의 접근으로 인해 수치적 검증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필자가 속한 교회의 목회자라는 점은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했지만, 해석 과정에서 주관성이 개입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더 나아가 지역별, 세대별, 교단별 비교 연구와 재적수에 따른 교회별 비교연구는 후속 연구의 과제로 남는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가 제시하는 통찰은 한국교회 전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관계성의 회복은 단순히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성도들의 실제 삶과 정서, 영적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그에 걸맞은 구조를 마련하는 목회적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소그룹은 앞으로의 한국교회에서 더 이상 부차적인 사역이 아니라 신앙 형성과 공동체 회복의 중심 구조가 되어야 하며, EPIC L.I.F.E.와 같이 ‘관계’와 ‘경험’ 중심의 패러다임이 지속적으로 요청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다시금 공동체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관계 중심의 소그룹 재편을 통해 일상 속 영성을 강화하며 경험과 참여를 통해 공동체의 실천을 강화해야 함을 보여준다. 이는 ‘형식의 회복’이 아닌 ‘관계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재정의함으로써 한국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그렇기에 교회는 더 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이 아니라,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고 함께 성장하는 ‘관계적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EPIC L.I.F.E. 모델은 이러한 회복을 위한 ‘신학적’, ‘실천적’ 틀을 제시하며, 소그룹 사역이 신앙과 관계를 회복하는 구체적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소그룹은 그 본질을 구현할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현장이며, EPIC L.I.F.E. 모델은 그 회복을 위해 교회가 오늘의 시대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D. 후속 연구 제안

본 연구가 제시한 EPIC L.I.F.E. 모델은 특정 교회 사례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목회 현장에 적용·확장될 수 있다. 특히 ‘말씀묵상학교’, ‘삼중기도’, ‘가정예배’와 같은 영성 실천 사례는 월광교회의 특수한 맥락을 넘어, 교회의

규모와 교단을 초월하여 적용 가능한 모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실천들이 다른 교회 맥락에서도 동일한 관계적, 정서적 변화를 유도하는지에 대한 비교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가 강조한 일상 영성의 회복은 향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목회자 중심의 예배와 프로그램만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성도들의 영적 삶이, 가정과 일상 속 영성 실천을 통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한국교회의 영성 형성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가정예배를 중심으로 한 연구는 세대 간 신앙 전승과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데 유의미한 후속 연구 주제가 될 수 있다.

또한 EPIC L.I.F.E. 모델이 제시하는 ‘심정적 관계’ 회복 구조는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관계적 단절 문제를 분석하는 데 유효한 이론적 틀로 활용될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형 교회와 대형 교회를 구분하여, 관계 형성의 밀도와 방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EPIC L.I.F.E. 모델의 맥락적 적용 방식을 더욱 정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EPIC L.I.F.E.의 ‘Experience’ 요소는 지역사회 사역과의 연계 연구에서 중요한 확장성을 지닌다. 분명한 것은 월광교회는 대형교회에 속한다. 지교회의 규모에 맞는 ‘Experience’ 로의 연구와 실천적 적용을 하여 공동체적 실행이 이루어 진다면, 교회와 지역사회 간 신뢰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교회의 사회적 책임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하는지를 분석하는 연구는 향후 한국교회가 ‘단힌 공동체’ 를 넘어 ‘열린 공동체’ 로 전환하는 데 실천적 지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후속 연구들을 통해 EPIC L.I.F.E. 모델은 더욱 풍부한 실천신학적

논의로 확장되며, 소그룹을 중심으로 한 관계 회복 사역이 한국교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요소를 제공하길 소망한다.

참고 문헌

국내서적

- 강용원. 『기독교 교육학 개론』. 서울: 생명의 양식, 2007.
- 김세윤. 『바울신학과 새 관점』. 서울: 두란노, 2002.
- 김세윤. 『칭의와 하나님나라』. 서울: 두란노, 2020.
- 이상훈 외, 『뉴노멀 시대, 교회의 위대한 모험』.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21.
- 이근희. 『번역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문화사, 2015.
- 전남수. 『예배 중심의 목회』. 서울: CLC, 2024.
- 정훈택. 『공관복음 입문』. 서울: 감은사, 2021.
- 조병호. 『통박사 조병호의 1년 1독 큐티 성경통독』. 서울: 통독원, 2025.
-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3』. 서울: 규장, 2022.
-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서울: 규장, 2023.
- 지용근 외.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서울: 규장, 2024.
- 열린노트성경 편찬위원회. 『열린노트성경』. 서울: 아가페, 2021.
- 이원규. 『한국교회의 사회학적 이해』. 서울: 성서연구사, 1992.
- 임경근. 『가정예배 가이드』. 서울: 생명의말씀사, 2020.
- 최진경. 『기독교 교육학의 아버지 코메니우스』. 용인: 킹덤박스, 2012.
- 통계청. 『한국의 사회동향 2023』. 대전: 통계개발원, 2023.

번역서적

- 그렌즈, 스탠리. 『포스트모더니즘의 이해: 포스트모던 시대와 기독교의 복음』
김운용 역. 서울: IVP, 2010.
- 나우웬, 헨리. 『예수, 우리의 복음』. 윤종석 역. 서울: 복있는 사람, 2002.
- 몰트만, 위르겐.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 광미숙 역. 서울: 동연, 2009.
- 본회퍼, 디트리트. 『나를 따르라』. 김순현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2016.
- 스윗, 레너드. 『가장 고귀한 세 단어 I LOVE YOU』. 윤종석 역. 서울: IVP, 2009.
- 스윗, 레너드. 『교회, 스타벅스에 가다』. 이지혜 역.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스윗, 레너드. 『모던 시대의 교회는 가라』. 김영래 역. 서울: IVP, 2004.
- 스윗, 레너드. 『미래교회 성공 키워드』. 김영래 역. 서울: 땅에쓰신글씨, 2007.
- 스윗, 레너드. 『미래 크리스천』. 김영래 역. 서울: 좋은 씨앗, 2005.
- 스윗, 레너드. 『영성과 감성을 하나로 묶는 미래교회』. 김영래 역. 서울:
좋은씨앗, 2002.
- 스윗, 레너드. 『예수 선언』. 장택수 역. 파주: 넥서스, 2006.
- 스토트, 존 R. W. 『성경이란 무엇인가』. 박지우 역. 서울: IVP, 2006.
- 스토트, 존 R. W.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 정옥배 역. 서울: IVP,
1995.
- 피터슨, 유진. 『이 책을 먹으라』. 양혜원 역. 서울: IVP, 2018.
- 화이트, 제임스 F. 『예배의 역사』. 정장복 역. 서울: 콤파출판사, 1997.

학술논문

고재길. “교회의 공공성과 소통의 신학적 기초.” 『소망신학포럼』 No.15(2013): 447-500.

박미경. “코로나19 이후, 한국 개신교 교회의 교육목회 방향성 연구.” 『한국실천신학회』 제97호(2021): 453-483.

유선명. “신화적 맥락을 살린 구약성경 번역 모색: 잠언에 나타난 죽음 관련 용어의 번역 예시.” 『한국기독교신학논총』 No.111(2019): 39-60.

이병옥.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선교적 교회의 모색을 위한 신학적 성찰.” 『장신논단』 .Vol.54,No.5(2022): 128-152.

임성빈. “21세기 초반 한국 교회의 과제에 대한 소고.” 『장신논단』 Vol.47,No.2 (2015): 179-207.

이정숙. “성경번역의 이론과 실제.” 『대한성서공회』 5호(1999): 7-23.

이정엽. “본질에 충실한 양육과 제자훈련.” 『교회성장연구소』 1권(2021): 101-1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캐나다 보건의료보장제도 개혁과 공중판단.” 『보건사회연구』 Vol.23,No.1(2003): 104-147.

신문기사

정재영. “플로팅 크리스천에 대한 이해.” 「데일리굿뉴스」. 2023년 02월06일.

한지은. “코로나 이후 목회자·교인 인식 조사 결과발표.” 「한국장로신문」. 2022년 5월31일.

웹사이트

Spirit Venture Ministries, “About Us,” LeonardSweet.com,

<http://www.leonardsweet.com>

SpiritVenture Ministries. “Leonard Sweet,” 2022,

<https://leonardsweet.com/about/>

국민권익위원회, “마스크 사용1년, 친환경 마스크 사용·처리법” ,

https://www.acrc.go.kr/board.es?act=view&bid=4A&list_no=9585&mid=a10402010000&utm_source=chatgpt.com

보건복지부, “2023년도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지표누리),

https://www.vms.or.kr/statistics/yearbookView.do?board_seq=1302761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214호)-기독교 청소년 신앙의식”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0&page=5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288호)-유튜브 신앙 실태조사” (넘버즈),

https://numbers1.cafe24.com/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60&page=2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151호)-한국 개신교인의 온라인

신앙생활”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62&page=8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228호): 한국교회 추적조사 2024”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13&page=4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224호)-2023 한국인의 종교 현황”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108

목회데이터연구소, “기독교 통계(147호)-한국교회 코로나 추적조사” (넘버즈),

http://www.mhdata.or.kr/bbs/board.php?bo_table=gugnae&wr_id=59&page=8

한국리서치, “2024 종교인식조사”, <https://hrcopinion.co.kr/archives/31683>

한국갤럽조사연구소, “2021년 한국인의 종교 현황,” 2021,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208&utm_source=ch

atgpt.com

부 록

부록 1.





헌신 다짐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 만큼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년 월 일

_____ (서명)

실천 결심문

나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 만큼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실천사항

1. 나는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2. 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말씀 읽기로 나아갔습니다.
3. 나는 기도로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4.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5. 나는 하나님께 매 순간 질문을 통해 여쭙어 보았습니다.
6. 나는 말씀 중심의 삶을 거룩한 소모임 공동체 안에서 나누었습니다.
7.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씀 묵상의 자리로 안내하였습니다.
8. 나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살았습니다.
9. 나는 말씀묵상과 삶의 최고기도를 통해 하루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10. 나는 예수님을 믿어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년 월 일

_____ (서명)

말씀묵상 준비 바꾸니 만들기



기도문 작성

기도로 생명의 인도하심을 요청하고 나의 영혼을 의탁하십시오.
나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심이 되기를 간구하십시오.

8

개인 말씀묵상 점검표

1. 말씀묵상을 하셨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8주							

* O 또는 V로 체크하세요.

2. 말씀묵상 관련된 말씀을 암송하셨습니까?

말씀	여호수아 1:8	시편 1:1-2	요한복음 8:31-32	시편 119:15-16
암송완료				
말씀	시편 119:105	시편 119:27	신명기 6:4-9	잠언 7:2-3
암송완료				

* 암송한 날짜를 기록하세요.

10

|
말씀말씀목상훈련학교

부 록


말씀 목상이란 무엇입니까?

본회피의 대답(※ 신앙고백적 삶을 살다가 순교자적 죽음을 맞이한 독일 신학자)

"목상이 무엇입니까?"라고 누군가 본회피에게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마리아가 한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목상입니다. …… 우리는 천천히, 조용히, 침울성 있게 한 단어씩 나아감으로써…… 그리고 각 절마다 말후어(큰 소리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임재 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광야를 거쳐 여행하던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언약궤 위에 있는 구름이 올라가기를 기다리 그 후에야 따라 갔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 그는 우리가 잠잠히 있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우리를 앞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여정을 많은 기쁨과 힘을 주는 영적인 생각들을 보여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목상은 본질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그저 외부에서 관찰만 하는 사람은 그 변화의 능력을 미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집에 거하여 "어효와와 아들다음을 바라보며 그의 상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사면 27:4)"는 것이 유일한 소원인 사람들에게, 목상은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성령안에서 활기찬 사역 들 다를 제공하는 비결입니다.



오대원(2005), 「목상하는 그리스도인, 내용중 편집

|
말씀말씀목상훈련학교

부 록

말씀목상의 유익

1. 말씀목상을 통해 잠시 멈추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2. 말씀 앞에 오래동안 머무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3. 말씀을 천천히, 깊이 읽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4.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더욱 많이 갖게 됩니다.
5.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6. 하나님과 솔직하게 대화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7. 말씀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8. 말씀목상을 통해 자신이 말씀에 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9. 내면세계를 돌아보게 되고 마음을 가꾸는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10. 나의 감정을 관찰하고 다스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11. 목상한 말씀을 하루 종일 읊조리며 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2. 관찰력, 통찰력, 분별력 그리고 창의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13. 하나님과 나는 대화의 글을 쓰는 중에 글 쓰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4. 말씀목상을 삶과 관계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15. 내가 알지 못하는 버릇, 내 문제(죄, 행위, 내면의 모습)를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습니다.
16. 삶의 본주함과 파편화에서 안정되고 질서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7.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18.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시는지 계획과 인도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19.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아가는데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20. 말씀 속에 담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
말씀말씀목상훈련학교

부 록

목상의 장애물과 해법 1

세상은 참으로 목상의 가장 큰 적이다. 군중 속에서 분주하게 행동하다 보면 지갑을 잃어버리기 쉽듯, 세상일에 바쁘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잃어버리기 쉽다. 마음이 분주하면 거룩한 상전이 되는 양면이 어렵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많아서 목상할 시간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경건의 의무는 남은 시간에만 하는 사소한 일이라는 뜻이 아니겠는가? 목상할 시간이 없다는 대테 말이나 되는 소린가? 목상 외에 우리가 진정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시기 위해서가 아니다(직업에 충실한 삶을 반대한다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직업 활동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구원이다. 그 목적을 이루려면 기기에 맞는 수단, 곧 거룩한 목상을 활용해야 한다. 목상할 시간이 없는가? 그것은 마치 농부가 할 일이 많아 밭을 갈거나 씨를 뿌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이 농부의 직업이 아닌가?

목상할 수 있는 심령 상태를 조성하는 데 매일 시간을 할애하기만 매우 어렵다. 이 문제에 대해 세 가지로 대답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많은 대기와 수고가 따른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보혈을 흘리셨다. 따라서 우리도 땀을 흘리는 것이 마땅하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배앗는니라. (마 11:12)"

둘째로 우리는 다른 어려운 것들을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를 얻는 것이 너무 어려워, 그러나 그냥 가만히 앉아 재물을 얻어 지내겠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어려운은 오히려 곤란한 태도를 부추기는 자극제가 된다.

셋째로 목상은 처음 시작할 때는 매우 어려울지 몰라도 일단 시작하면 은혜롭고 즐겁다. 그리스도의 영에는 처음에는 무거울지라도 일단 매만 가벼워지는데 그 때 그리스도의 영에는 면류관이 된다.

그러므로 어렵다고 실망하지 말라.
목상의 고통보다는 그 즐거움이 무한히 더 크다.

토마스 왓슨(2013), 「목상의 신의 오로라, 내용중 편집

|
말씀말씀목상훈련학교

부 록

목상의 장애물과 해법 2

목상에는 장애물이 있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훈련만 하면 확실히 제거될 수 있다. 우리는 종종 규칙적으로 목상하지 않기 때문에 목상의 어려움을 경험한다. 드문드문 하는 목상은 마음의 평화보다는 착질로 이끌 가능성이 더 높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간에 목상해야 한다.

또 다른 어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그 분이 우리 계명을 무시 하면서 어떻게 계속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재빨리 순종해야 한다.

또 하나의 장애물은 즉각적인 결과를 보지 못하는 데서 오는 낙담이다. 목상은 과정이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좋은 열매는 빨리 자라지 않는다.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 삶에서 열매를 보지 못하고, 우리는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목상 하는 사람, 일상에서 하나님을 진실로 깊이 목상하는 사람은 목상이 힘들다는 걸 이미 알고 큰 흥분이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한다.

목상의 장애물 중 가장 흔한 것은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목상하다 보면 종종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심지어는 죄의 생각이 들어오려 하는 것을 경험한다. 사탄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목상하고 순종을 통해 그분을 영화롭게 하려고 애쓰는 천사들인 그리스도인인 생기는 것을 아주 두려워한다. 그래서 그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려고 한다. 이때 그리스도인은 긴장을 풀고 본문 자체에 집중해야 함을 기억하자. 필요하다면 우리는 사탄과 그의 사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이름으로 대적해야 한다.

끝으로 영성을 압박하고 끌어내려고 하는 것을 제거하라. 목상의 시간을 방해하는 것들을 떨쳐 버려라.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며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여 이 골짜기를 지나게 하실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성령님께로 눈을 돌릴 때 그분은 우리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오대원(2005), 「목상하는 그리스도인, 내용중 편집

말씀말씀독서훈련학교

부 록

말씀묵상 관련 암송구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행통하리라.
(여호수아 1:8)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19:2)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1-32)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시편 119:15-16)

말씀말씀독서훈련학교

부 록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동아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105)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시편 119:27)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말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4-9)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어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7:2-3)

말씀말씀독서훈련학교

부 록

말씀묵상 노트 작성 가이드

■ 본문말씀:

01 준비

- 우리의 활동을 멈추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한다
- 말씀묵상 습관이 생길 때까지 기금적 동일 장소, 동일 시간에 묵상하라
- 찬양: 찬양은 인간의 존재 이유를 알게하고 피조물로서 겸손한 마음을 갖게한다
- 고백: 성령님께서 회개할 것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회개한다
- 간구: 성령님께서 눈과 마음이 열려 진리의 말씀을 알고, 레마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한다

02 말씀읽기

- 첫 번째 읽기: 눈으로 천천히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
- 두 번째 읽기: 앞으로 천천히 더 천천히 소리 내어 읽으며 저자의 의도를 생각
- 세 번째 읽기: 줄을 치며 사실, 인물, 배경, 사건, 결과를 객관적으로 파악
- 저자의 의도대로 읽기
- 하나님 중심적으로 읽기
- 문맥 안에서 읽기
- 핵심 메시지를 파악하기
- 육아원칙을 적용하기
- 구조를 파악하면서 읽기
- 질문을 던지면서 읽기
- 요약할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읽기

03 말씀 해석

-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도구를 사용하기
- 두 가지 전체와 두 가지 조건을 생각하며 해석하기
- 하나님은 어떤 문답니까?의 질문에 답을 찾기
- 하나님의 교훈과 기대는 무엇입니까?의 질문에 답을 찾기

말씀말씀독서훈련학교

부 록

04 말씀묵상

- 본문이나 마음에 외왕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린다 (10분 이상)
- 주신 말씀을 더 붙잡고 그 내용을 마음에 되새긴다
- 듣고 깨달은 것을 메모하라
- 현재 필요한 말씀으로 듣는다
- 나에게 적용할 말씀이 나에게 적용한다
- 내 개인, 환경, 인간관계, 내가 속한 세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라
- 비약적으로 적용하지 말라
- 자기 합리화의 괴물에 빠지지 말라
- 육아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용하라

05 기도문

- 듣고 깨달은 말씀에 대해 기도문 응답한다
-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치 않으면 다시 여쭙어 본다
- 잘못을 깨달았으면 구체적으로 회개한다
-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 욕심을 버리도록 기도한다
- 기도제목을 기록한다

06 삶의 묵상

-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한다
- 훈련을 받아야 성숙해진다
- 외롭고 힘든 길이다
- 체질화될 때까지 실천하라
- 다른 사람과 함께 적용 시간을 갖도록 하자
- 핵심구절을 메모하여 종일 읊조린다
- 하루를 마치고 전에 말씀묵상에서 깨달은 내용과 삶을 회고하며 감사와 회개기도를 한다

|
말씀말씀독서운동학교

부 록

호흡기도 (침묵기도, 예수기도)

호흡기도는 교회사 초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기독교의 옛 영적훈련이다. 이것은 누가복음 18장 9-14절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에서 유래하며, 자비를 간구하는 세리의 절박한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에서 나왔다.

위 세리의 기도를 들숨과 날숨의 리듬에 맞게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마음속으로 반복해서 읊조린다.

호흡기도의 장점은 어느 때나 장소를 불문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호흡을 하고 있으니 성경에서 호흡은 생명의 은유이다. 하나님이 호흡을 통해 생명을 주신다(창2:7). 호흡을 통해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다(요 20:23).

말씀묵상을 시작하기 전에 활동과 생각을 멈추고 호흡기도를 통해 생각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사모하라. 호흡기도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하여 하루 종일 되내이면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시킬 수 있다. 마음의 근심과 불안, 두려움 등이 차오를 때 호흡기도를 반복함으로써 다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좋은 방법이 된다.

④ 다음 지침들이 호흡기도 하는 것을 도와준다.

- 조용한 곳에 꼭바로 앉으라. 당신의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라.
- 묵시호흡으로 복부가 쉽게 나뉘다 들어갔다 하게 하라. 깊게로 호흡하거나 너무 빨리 호흡하지 말라.
- 생각이 산만해 질 때마다 다시 호흡에 주의를 기울여라.
- 숨을 들이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숨을 내쉬면서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라.
- 기도 시간을 마치면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라.

피터 스카지코(2017), '복음 묵상, 내용수 편집'

|
말씀말씀독서운동학교

부 록

말씀묵상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

② **오프라인(책)**

핵심 성경인명/지명사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명과 지명을 엮은 사전. 수정 증보 제12판으로서 내용을 대폭 추가하여 상당히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같이 써주고 있고, 근본적인 의미를 분석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새성경사전
• 150여 명의 세계적인 학자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성경사전
• 성경의 책, 인물, 장소, 핵심단어, 중요 교리에 대한 2,000여 항목
• 이스라엘과 중동지역의 역사, 지형, 풍속에 대한 심도 깊은 배경지식
• 성경연구와 고고학 분야에서 가장 진보된 최신 정보
• 지도, 가족 계보, 그림, 도표, 일람표, 차트, 삽화의 분문 하이퍼링크

부흥과 개혁사 ESV 성경지도
부흥과개혁사 ESV 성경 지도는 성경지리 개관, 139개의 지도와 사진, 28개의 아름다운 일러스트레이션, 15개의 고해상도 위성 영상을 이용하여 만든 3차원 지도, 21개의 특별항목기사, 21개의 자세한 성경 지명 지도, 성경 연대표 등의 다채롭고 풍부한 내용을 가진 성경지도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다.

부흥과 개혁사 ESV 스타디바이블
ESV 스타디 바이블은 16세기 말 제네바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약 450년의 스타디 바이블의 역사상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가장 종합적이고 체계적이며 탁월한 스타디 바이블로 평가된다. 스타디 바이블의 저자나 독자편에서 '스타디 바이블'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으면 '출제'는 소망들이 거의 모두 한 권 속에 반영된 '스타디 바이블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폼의 스타디 바이블'.

|
말씀말씀독서운동학교

부 록

말씀묵상에 도움이 되는 도구들

③ **인터넷, 앱**

대한성서공회
성경지도, 성경 인명/지명 사전, 용어사전, 성경의 단위와 다양한 성경(개역개정, 개역한글, 표준새번역, 새번역, 공동번역, 공동번역 개정판, CEV) 검색 가능

다국어 성경(Holy-Bible)
한글성경과 영어성경을 제공한다.
한글성경: 개역개정, 개역한글,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영문성경: NIV, KJV, NASB

한국컴퓨터선교회(KCM)
말씀묵상을 돕는 다양한 자료를 제공한다.
성경인명, 성경지명, 성경동물, 성경사진, 지식사전, 신학영향사전, 스트롱코드 사전(히, 스트롱코드사전(헬))

갓피플 성경 앱
스마트폰 성경앱: 다양한 성경 번역본, 역본비교, 성경읽기플랜, 오디오 성경 기능


공동체 성경읽기 앱
스마트폰 성경앱: 오디오 성경 기능, 유명 성우 낭독(백경음역 포함), 성경읽기플랜

|
말씀말씀독서운동학교

부 록

참고도서

구분	제목	저자	출판사
말씀묵상 개론	묵상의 여정	빅대영	성서유니온
	묵상하는 그리스도인	오대원	예수전도단
	묵상의 산에 오르라	토마스 왓슨	생명의말씀사
	묵상,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입니다	서승동	예수전도단
	묵상, 하나님과의 교통	존 제퍼슨 데이브스	CLC
말씀묵상 방법론	묵상과 해석	정성욱	성서유니온
	큐티하면 행복해집니다	하용조	두란노
	영성의 부리는 묵상입니다	김준민	토기장이
	성경 묵상 어떻게 할까?	김진규	생명의 섬
	침묵적으로 건강할 영성 하루 묵상	피터 스카지코	두란노
말씀묵상 간증집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유진소	두란노
	모든 사람을 위한 성경 묵상법	김기현	성서유니온
	백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큐티를 바꿔라	캐서린 마틴	생명의말씀사
말씀묵상 간증집	큐티로 날다 (큐티하는 사람들의 감동 스토리)	성서유니온	성서유니온
	묵상으로 하나님 고백회	주정오	CUP



부록 2.

말씀묵상학교 참여자 사전설문조사

나의 삶을 진단해 봅니다.

	매우그렇다		보통		매우그렇지않다
1.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동행하는 삶이 정체되어 있다	1	2	3	4	5
2. 다른사람의 영성에 의존하여 산다	1	2	3	4	5
3. 산만하고 분주하며 중심이 없다	1	2	3	4	5
4. 신체적으로나 영적, 정서적으로 피곤하다	1	2	3	4	5
5. 아주 얇은 영성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1	2	3	4	5
6.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아주 적다	1	2	3	4	5
7. 너무 바빠서 예수님을 추구하는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다	1	2	3	4	5
8. '달려가는 삶'을 멈추기가 힘들다	1	2	3	4	5
9. 기쁨, 평안, 감사보다 염려와 근심, 불안할 때가 많다	1	2	3	4	5
10. 주일예배와 교회사역에 참석하는 것이 버겁고 힘들다	1	2	3	4	5

부록 3.

말씀묵상학교 수료자의 실제 하루 말씀 묵상 소그룹 나눔

2025년 11월 20일 여호수아 6:15~27

[말씀요약]

일곱째 날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성을 일곱번 돌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소리쳐 외치니 여리고 성벽이 무너진다. 여호수아는 라합과 가족을 제외한 성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며 취하지 못하게 하신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하는 이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한다.

[해석]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온전히 구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여호수아와 제사장,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가나안 땅의 입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끄시며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계획: 이스라엘을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구별하시고 이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신다.

피해야할 죄: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죄, 거룩하지 못한 것들에 욕심을 내는 죄

붙잡아야할 약속: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허락하신다.

지켜야할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온전히 드리라.

등장인물을 통한 교훈: 믿음은 그저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묵상 및 적용]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수 6:18)”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묵상을 하다보면 어느 한 곳에 멈춰서 더이상 나아가기 힘들 때가 있다. 여전히 내 중심적인 생각에 매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삶을 드린다는 결단이 어려운 모습을 발견한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며 가장 마음에 오래 남는 단어는 순종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순종의 목적이 결국 구별된 삶에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정복의 길로 이끄시며 전쟁의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존재임을 알게 하신다. 여호수아 6장 말씀은 하나님의 시선을 분명하게 드러낸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과 아닌 자를 정확히 구별하시고, 그분의 백성들을 온 마음과 관심과 지혜와 사랑을 다해 돌보신다. 이런 온전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는 것은 나의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맡긴다는 믿음의 고백임을 알게 하신다.

하루의 수많은 순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타협하고 선택한다. 내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때에 ‘온전한 드림’, ‘진실하고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길’을 갈수 있다. 동기에 붙순한 것이 섞이지 않는 것! 부정한 것들로 내 삶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으며 구별하는 삶이 되

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수록,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을 인격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내 삶을 기쁘게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한다. 모든 순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는 거룩한 백성되어 살아가는 하루보내야겠다

-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불순한 마음을 제거하고 온전히 드리는 하루로 모든 행동과 선택을 선하게 노력해야겠다.

[기도문]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드리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위해 온 마음과 사랑과 정성을 다하고 계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을 어렵다고 생각한 저를 용서하시고, 오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소서. 주님의 거룩함따라 주님의 기쁨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삶의 묵상]

-이번학기 한번도 휴강하지 않았던 수업이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런 휴강문자로 부흥사경회로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 부흥사경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작성자 : 3교구 5순 임준영 집사

부록 4.

가정예배 ‘말씀가정형’ 순서지

2025 11월 15일 ~ 11월 21일
Family Worship




말씀 가정

주제 :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소요 시간 : 10분

• 읽을 말씀:

* 본문 말씀
히브리서 12:1~2

* 오늘의 말씀 [히브리서 12:2]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 쉼과 대화

1. 나는 낙심치 않도록 붙드시고 이끄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2. 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이끌려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3. 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 나와 가족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 대화 나누기

1. 일어날 때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자녀에게
“ 하나님이 보내 주신 복된 (아들, 딸), 기쁨이 넘치는 아침이야. ”

부부
“ 하나님이 창조하신 (멋진, 아름다운) OOO, 기분 아침입니다. ”

2. 집에 있을 때

식사 중에 말씀으로 격려해 주세요.

자녀에게
“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자. ”

부부
“ 오늘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요. ”

3. 누워 있을 때

잠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해주세요.

자녀에게
“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녀가 되게 하소서. ”

부부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남편, 부인)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11월의 게임 : 계란판 탁구공 빙고

부록 5.

가정예배 '식탁교제' 순서지

Family Worship


식탁교제

11월 15일 ~ 11월 21일

주제 :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소요 시간 : 30분

환영하기

1. 필수찬양 - 행복
2. 선택찬양 - 가정에서 선택해주세요



● 찬양을 틀고 따라 부르기

말씀 탐험하기 [히브리서 12:1~2]

1. 바울 사도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사람들을 누구라 부르니까? (1절)
2. 바울 사도는 낙심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벗어버리라고 권합니까? (1절)
3. 바울 사도는 낙심을 해결하기 위해 누구를 바라보라고 권합니까? (2절)
4. 바울 사도는 낙심치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3절)

* 전혀 상관 없는 내용을 말해도 좋습니다.

가치 발견하기


1. 나는 낙심치 않도록 붙드시고 이끄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의지하고 있습니까?
2. 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말에 이끌려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3. 나는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 나와 가족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마무리 기도

● 가정에서 정한 순서대로

GAME

● 11월의 게임
: 계란판 탁구공 빙고



부록 6.

가정예배 ‘전학년’ 순서지



가정예배

가정예배는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Grace)에 감사(Gratitude)의 응답을 드리는 예배예요.



우리 가족의 예배 공간 만들기

- 1 가족과 함께 모임 공간을 정해요.
- 2 성경이나 십자가, 말씀책자, 가정예배만을 위한 식탁보나 방석 등을 활용해, 일상 공간을 거룩한 예배공간으로 만들어요.
- 3 진진한 찬양을 불러 예배공간을 채워요.

오늘 가정예배는 이렇게 드려요!

가정예배를 드리는 날자와 장소, 함께하는 가족들을 적어 보세요.

연제 : 월 일 요일 어디에서 :

누구와 :

오늘 가정예배는 이렇게 드려요!

예배인도 : 기도 : 말씀읽기 :

예배순서



- 예배의 부름 다 함께
- 기도 담당자
-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해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찬양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1절) 다 함께
- 말씀 읽기 호세아 1 : 10하 담당자
-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 성경 이야기 듣기 다 함께
- 말씀의 은혜 나누기 다 함께
- Q.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나요?
- Q. 가족들과 한목소리로 고백해 보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세요."
- 마음 모아 기도 다 함께
- (조)부모 :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요.
- 어린이 :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해요.
- 다 함께 :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기도 다 함께
- 사랑으로 안아 주기 다 함께

성경이야기



한 마을에서 이상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결혼식의 주인공은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여러 명의 남자를 사랑하는 고멜과 결혼을 했어요. "어머, 어떻게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지?" "호세아가 제정신이 아닌 게 분명해!"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고멜과 결혼해서 세 명의 자녀도 낳았어요. 하지만 고멜은 자신을 사랑해 주는 남편 호세아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어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너도 그 여인을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여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큰 돈을 주고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왔어요.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의 삶으로 직접 보여 주었어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겨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세요.



활동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세요.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사랑하세요."라는 글씨를 레터링하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보세요.

준비물 : 스케치북(종이), 그리기 도구(색연필, 사인펜, 크레파스 등)

Tip. 색종이가 있다면 잘게 잘라서 글씨의 빈곳에 붙여 꾸며도 좋아요.

머리에 쏙! 

아이영 대성당 부조

프랑스에 있는 아이영 대성당에는 호세아가 큰 대가를 치르고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장면이 부조로 새겨져 있어요. 호세아는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고멜을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은 열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은 환산하면 은 30개의 가치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넘긴 값도 은 30개였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되찾기 위해 대가를 치른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God  Toon **갓툰**



말씀 따라, 똑딱!  '하나님사랑팡팡~주얼리하트' 만들기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으로 표현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 팡팡~ 주얼리 하트'를 만들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해요!

 **준비물** : 코팅 필름, 코팅기, 보석 스티커, 펀치, 리본끈, 가위

 **만드는 법**

- ① 코팅 필름을 코팅해요.
- ② 코팅한 코팅 필름을 하트 모양으로 오려요.
- ③ 하트 윗부분에 펀치로 구멍을 뚫어요.
- ④ 하트를 보석 스티커로 예쁘게 꾸며요.
- ⑤ 구멍에 리본끈을 넣어 묶어요.
- ⑥ 완성된 주얼리 하트는 잘 보이는 곳에 걸어 두거나 가방에 달고 다닐 수 있어요. 부모님이나 친구에게 선물해도 좋아요.



말씀 따라, 미로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호세아는 집을 나간 고멜을 찾으러 갔어요. 하트 미로를 통과해 호세아가 고멜을 만나도록 도와주세요.



궁금해, 궁금해! 

인물 탐구: 호세아



- * 이름의 뜻 : 구원
- * 별명 : 사랑의 예언자
- * 아버지 : 브에리
- * 출신 : 북이스라엘
- * 활동지 : 북이스라엘
- * 특이사항 :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고멜과 결혼함. 고멜을 끝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보여 줌.
- *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선지자 : 이사야, 아모스, 미가

게임하며 말씀 썩!  **내가 지켜줄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고멜을 사랑으로 품어 주었어요. 우리도 호세아처럼 내 짝공을 끝까지 지키며 게임을 해 봐요.

 **준비물**

탱탱볼, 색테이프, 라벨지, 네임펜

 **진행 방법**

- ① 바닥에 색테이프를 붙여 피구 경기장을 만들어요.
- ② 라벨지에 '죄의 유혹'이라고 적고 탱탱볼에 붙여요.
- ③ 두 팀으로 나눈 후, 팀 안에서도 둘씩 짝을 짓고 한 명의 어린이는 호세아 역할을 맡아요.
- ④ 호세아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그 짝공은 경기장 안에 서고, 나머지 어린이들은 선 밖에 서서 공격을 해요.
- ⑤ 5분 동안 호세아에 해당하는 어린이는 온몸으로 공을 막아 짝공을 보호해요.
- ⑥ 5분 뒤에는 서로 역할을 바꾸어 경기해요.



36.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달달말씀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 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호세아 1 : 10하)

Talk!

마음 톡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결혼하고 싶나요?

Talk!

말씀 톡

호세아는 왜 고멜과 결혼을
했나요?

Talk!

삶으로 톡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표현해 보세요.



성경이야기

호세아의 러브레터

To. 사랑하는 아내 고멜

여보, 당신이 다른 남자를 따라 집을 나갔지만 나는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사람들은 이상한 여자와 결혼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말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당신과 결혼했고, 당신을 데려오기 위해 큰돈도 지불할 생각이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당신을 끝까지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 제발 빨리 돌아와 줘요.

From. 호세아

부록 7.

사랑의 바자회 만족도 조사 결과

2024. 10

2024년 사랑의 바자회 만족도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가. 조사 배경

- 1) 제 30회 사랑의 바자회(이후 바자회) 목적
 - 온 가족, 모든 세대가 어울리며 행복한 시간을 갖는다.
 - 비교인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기회(예배당으로의 초대)를 제공한다.

나. 조사 목적

바자회의 두 가지 목적이 “비교인”을 대상으로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알고자 함.

다. 조사 대상 및 방법

- 2) 조사 대상
 - 바자회에 참여자 중 교인이 아닌 지역 주민
 - 비교인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기회(예배당으로의 초대)를 제공
- 3) 표본 선정 방법
 - 바자회 행사 참여자 중 설문에 응한 비교인을 무작위로 선정
- 4) 조사 시간
 - 캐츠 2회차 공연 전·후 3시간: 15:30 ~ 18:30
 - ※ 캐츠 2회차 공연 시간: 16:30 ~ 17:30
- 5) 조사원
 - 부목사 사모 4인

천란(송규상), 배지혜(박종익), 강원영(김정환), 전선주(김철웅)

2. 조사 설계

라. 설문 문항 구성

- 바자회의 참여 동기
- 바자회의 방문행태
- 바자회 운영, 편의성, 장소, 시설 등의 만족도
- 바자회를 통한 (월광)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 정도

마. 데이터 수집 방법, 표본 수

- 대면, 종이 설문 조사, 유효 표본 수(101개)

바. 데이터 분석 방법

- 데이터 코딩 및 정리
- 기초 통계 분석(기술 통계 분석, 항목별 응답 분석)
- 질적 분석(응답자의 주관적 의견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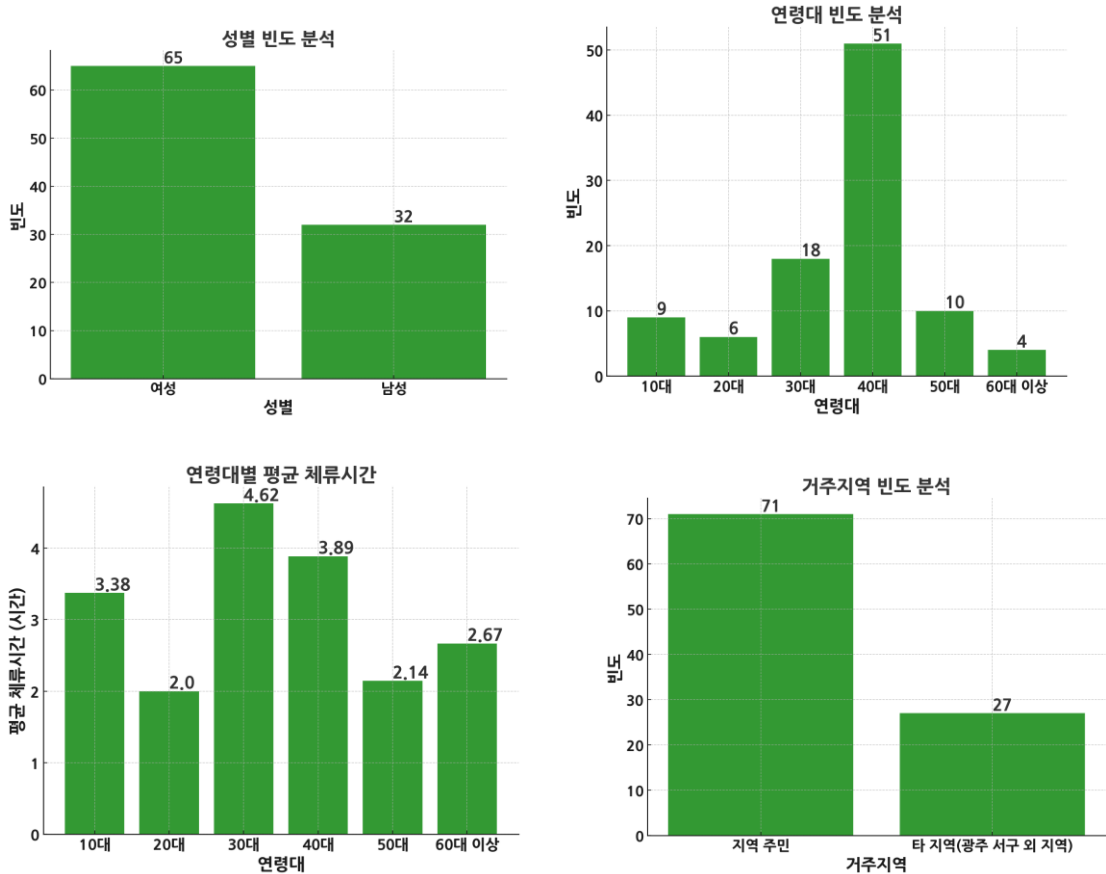
3. 응답자 특성 분석

사. 응답자 기본 정보

- 여성(65)과 남성(32)로 여성 참가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40대 참가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30대와 50대가 따랐습니다.
- 평균적으로 참가자들은 약 3.3시간 동안 행사장에 머물렀습니다.
- 평균체류 시간은 30대, 40대 -> 10대, 60대 이상 -> 20대, 50대 순입니다.

- 지역 주민이 대부분의 참가자였으며, 타 지역 참가자는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응답자 기본 정보 분석>



- 30대와 40대 참가자들이 가장 오래 머물렀으며, 이는 가족 단위 활동이 이들 연령층에서 큰 호응을 얻었음을 시사합니다.

- 20대와 50대는 상대적으로 짧은 체류시간을 보였으므로, 이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더 오래 머무르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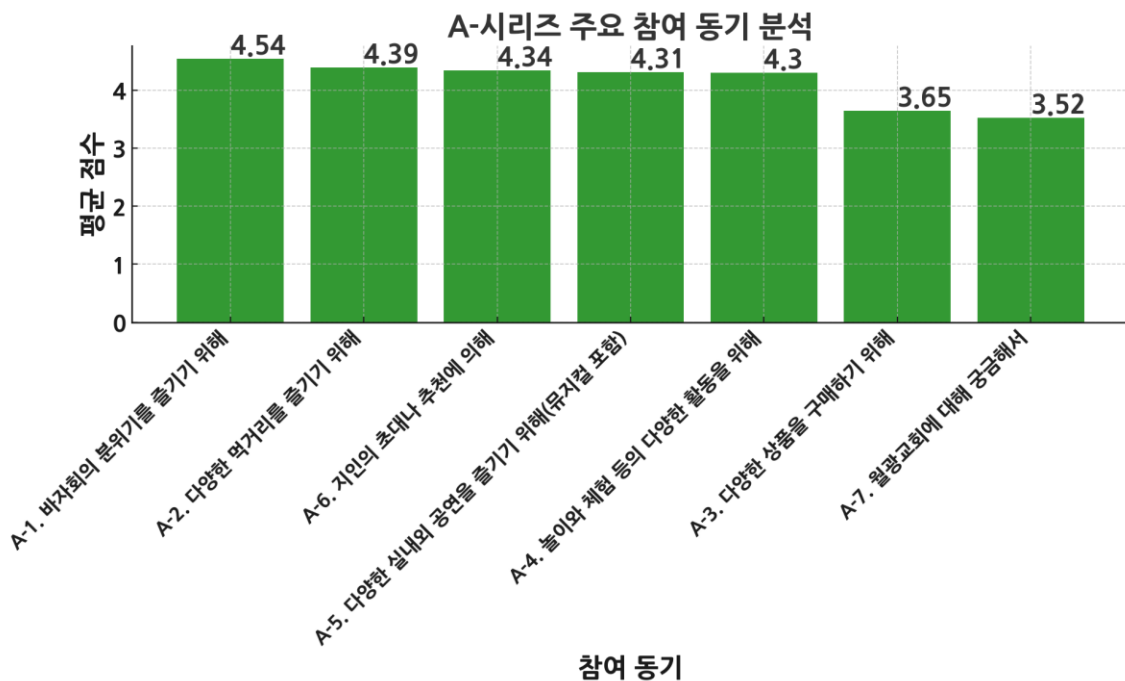
- 60대 이상 참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체류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편의 시설 개선과 체력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활동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 응답자의 바자회 참여 동기

6) 참여 동기 우선순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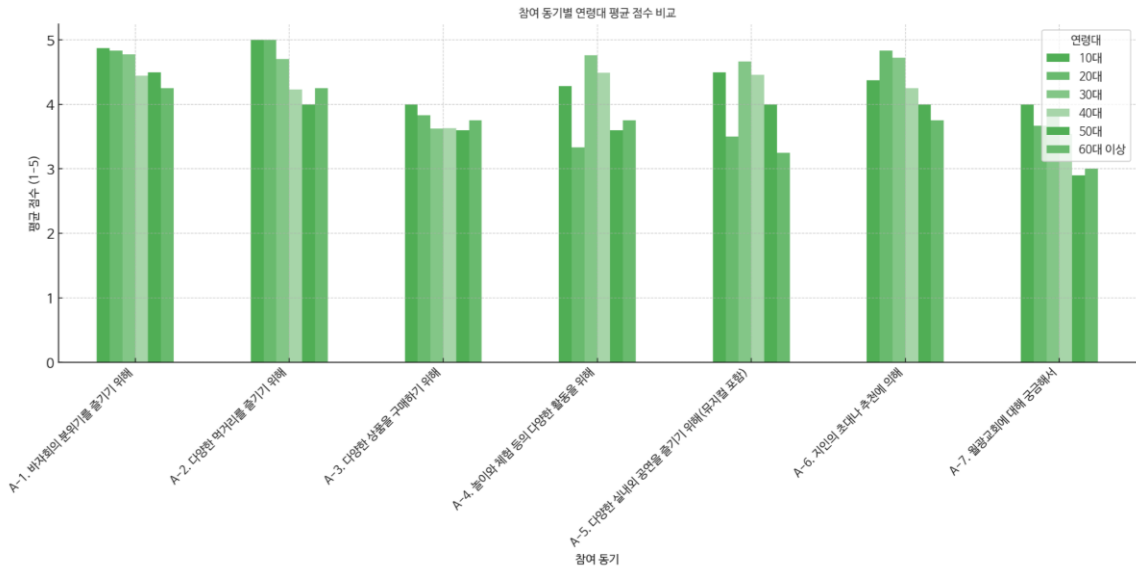
- 참가자들의 바자회에 참석한 주요 동기를 분석한 결과, "바자회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가 평균 점수 4.54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그 다음으로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 (4.39)와 "지인의 초대나 추천에 의해" (4.34)가 주요 동기로 나타났습니다.
- 전반적으로 바자회의 즐거운 분위기와 음식, 그리고 지인의 추천이 참가자 유치에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별, 지역별 참가자의 특성에 따른 참여 동기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참여 동기 분석>



7) 연령대별 참여 동기 분석

<참여 동기별 연령대 평균 점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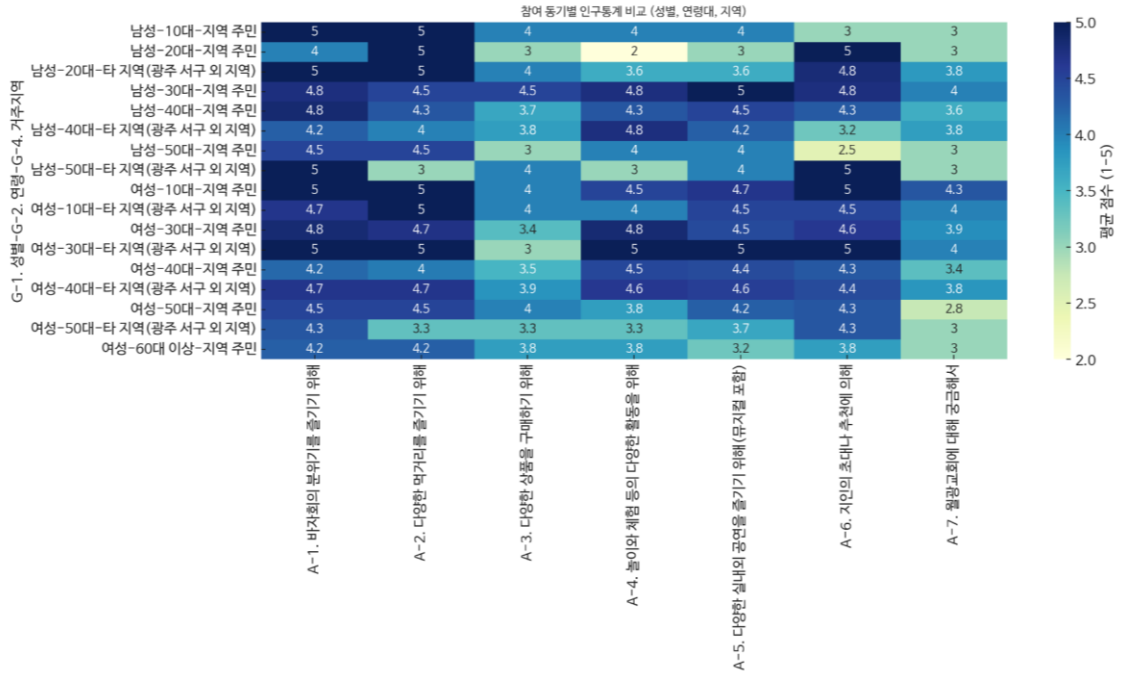


- **10대와 20대:**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가 평균 5.0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음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10대는 바자회의 분위기(4.88)에도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 **30대:** "놀이와 체험 활동"이 평균 4.76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가족 단위의 활동이나 체험에 대한 관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40대와 50대:** "바자회의 분위기"와 "실내외 공연"에 대한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전반적인 행사 경험에 큰 가치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 **60대 이상:** 다른 연령대에 비해 모든 항목의 평균 점수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연 관련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3.25)를 기록했습니다.

8) 참여 동기와 인구통계(성별, 연령대, 지역) 비교 결과

- **성별:** 남성과 여성 간의 주요 참여 동기 차이가 존재하며, 특히 "바자회의 분위기"와 "놀이와 체험 활동"에서 남성들이 더 높은 점수를 준 경우가 눈에 띕니다.
- **연령대:** 연령대별로도 다양한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10대 남성 참가자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부여했으며, 특히 음식과 분위기를 중요시했습니다. 반면 20대 남성의 경우 체험 활동에 낮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 **지역:** 지역별로는 타 지역 참가자들이 바자회의 분위기와 먹거리에서 높은 평가를 했으며, 이는 행사에 대한 독특한 매력을 느낀 것을 시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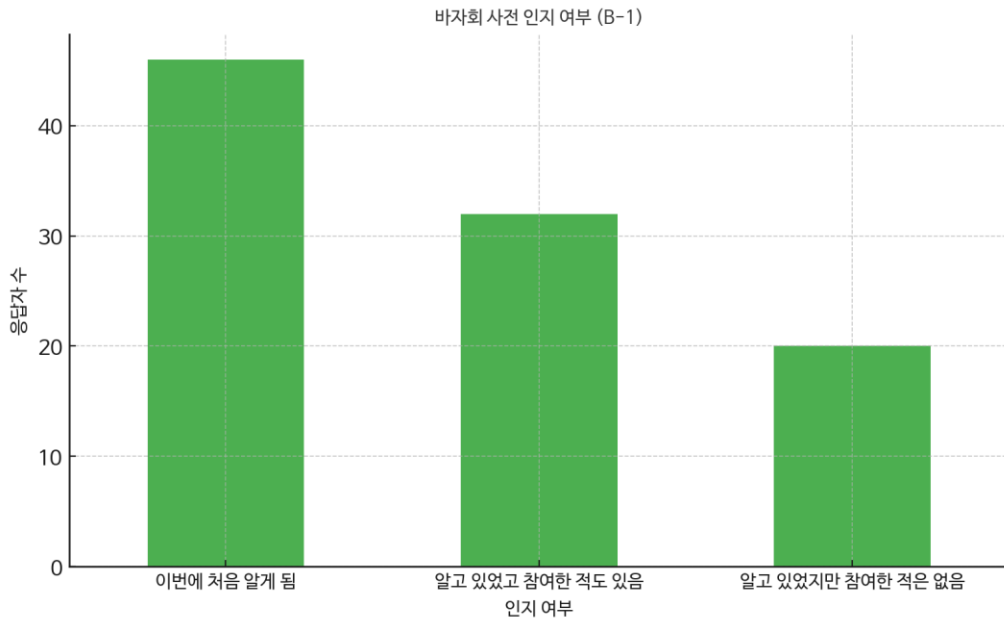
<참여 동기별 인구통계비교(성별, 연령대,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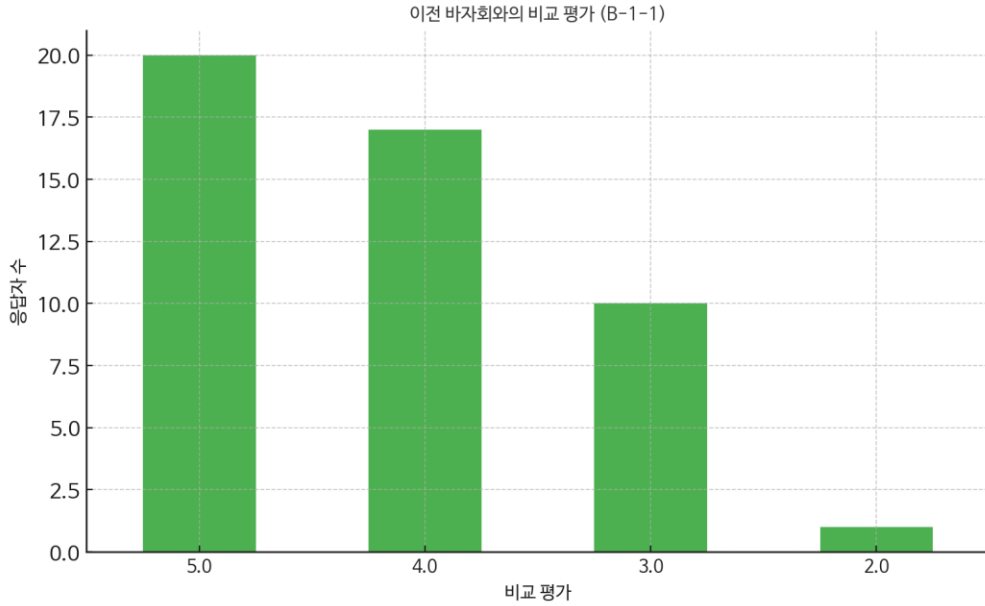
자. 응답자의 방문 형태

9) 바자회 기존 인지 여부 및 이전 바자회와의 차이

<바자회 사전 인지 여부>



<이전 바자회와의 비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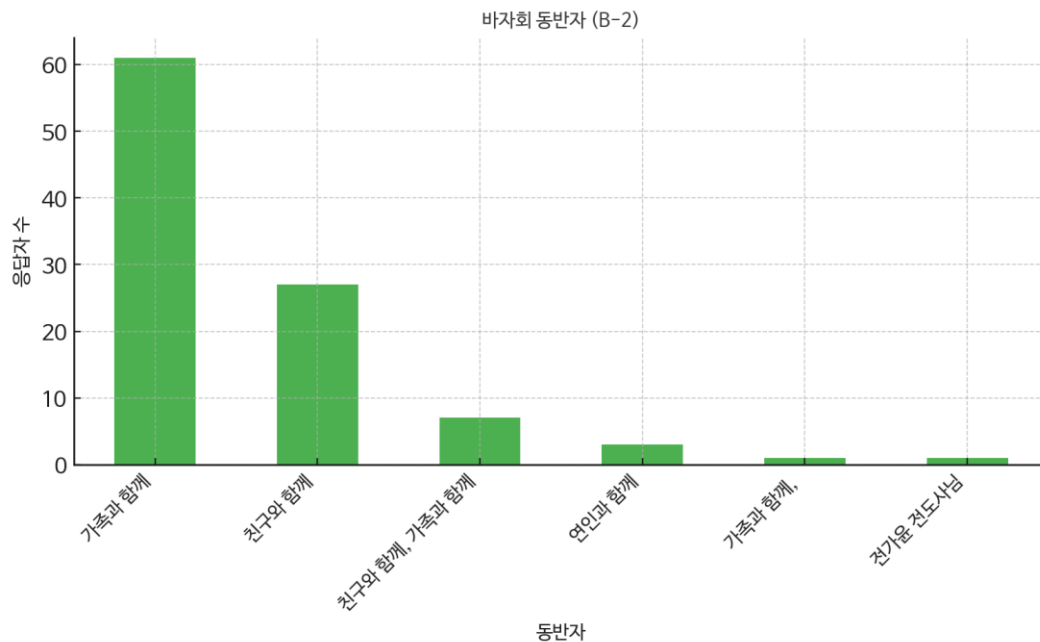
- 바자회 사전 인지 여부

- "이번에 처음 알게 됨"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 기존에 알고 있던 참가자 중 일부는 참석 경험이 없었고, 일부는 참여 경험이 있었습니다.

- 이전 바자회와의 비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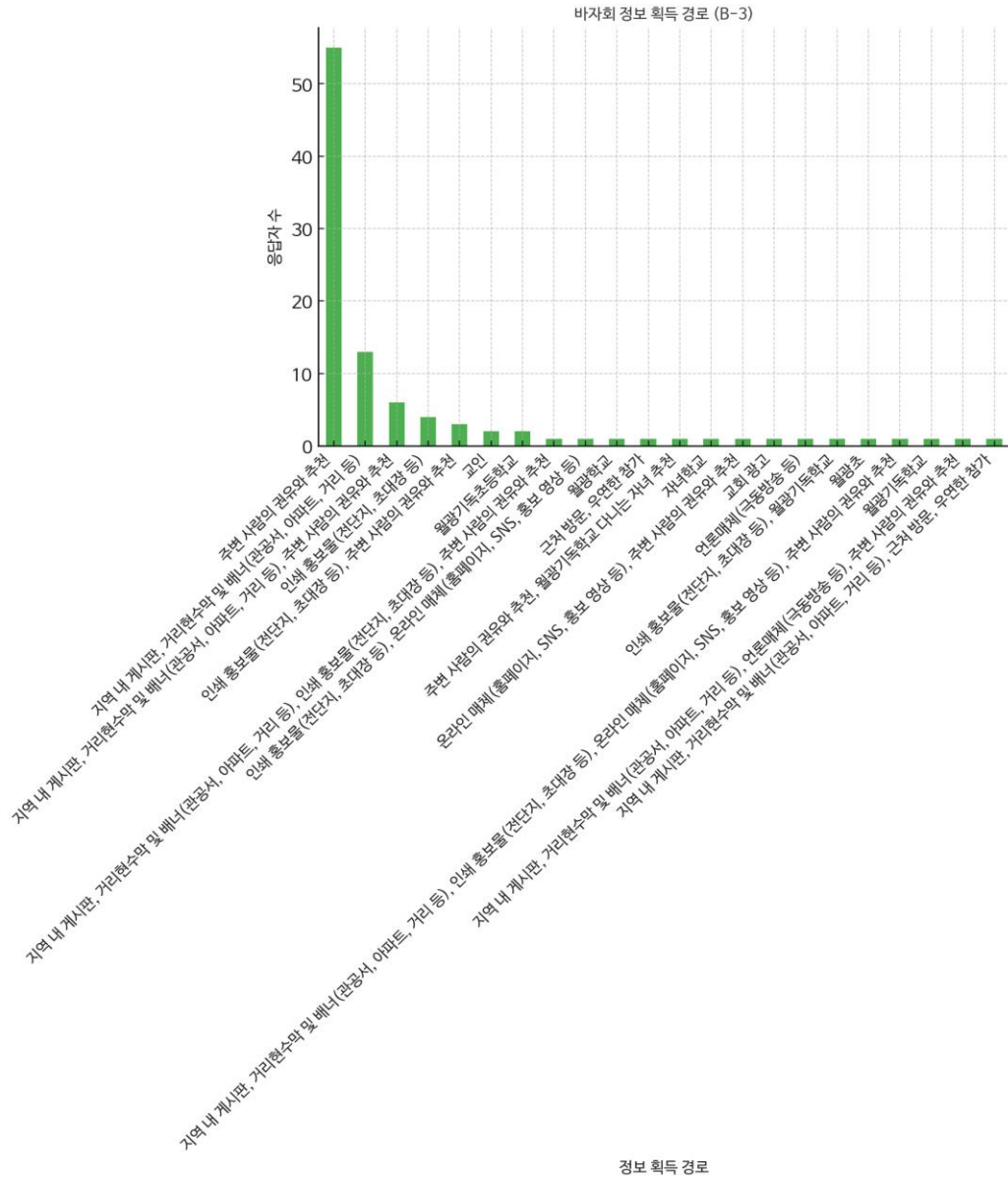
- 이전 바자회에 비해 올해 바자회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높았습니다.
- 이전 바자회에 비해 올해 바자회를 더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이 높았습니다.

<바자회 동반자 분석>



10) 바자회 동반자 분석

- "가족과 함께" 참석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친구와 함께" 참여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 다수의 응답이 가족 중심의 참여 패턴을 보여줍니다.



<바자회 정보 획득 경로>

11) 바자회 정보 획득 경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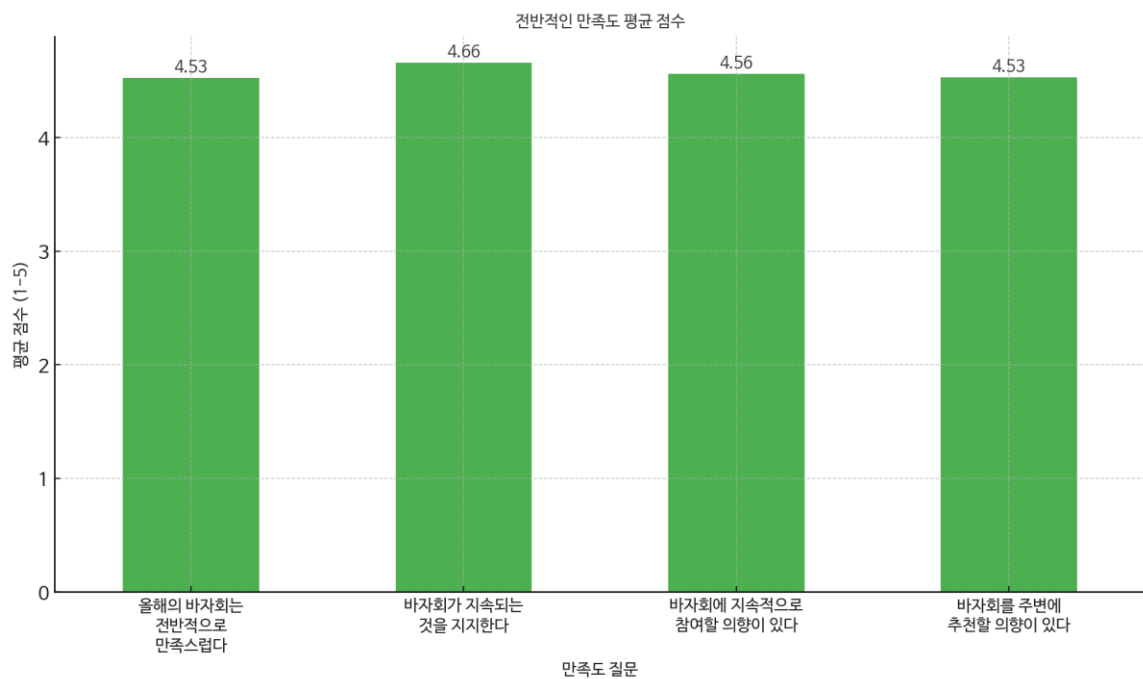
- "지역 내 게시판"과 "가까운 사람의 권유"가 가장 주요한 정보 획득 경로로 나타났습니다.
- 온라인 홍보보다는 오프라인에서 정보를 얻는 경향이 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만족도 분석

차. 전체 바자회에 대한 만족도

12) 전반적인 만족도 분석

<바자회 전체적인 만족도>



- 전체적으로 바자회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으로, 평균 점수가 4.5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사랑의 바자회가 지속되는 것을 지지한다"는 질문에서 평균 4.66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바자회가 지역 사회와 비교인들에게 긍정적인 인식을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 응답의 중앙값은 모두 5점으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바자회에 매우 만족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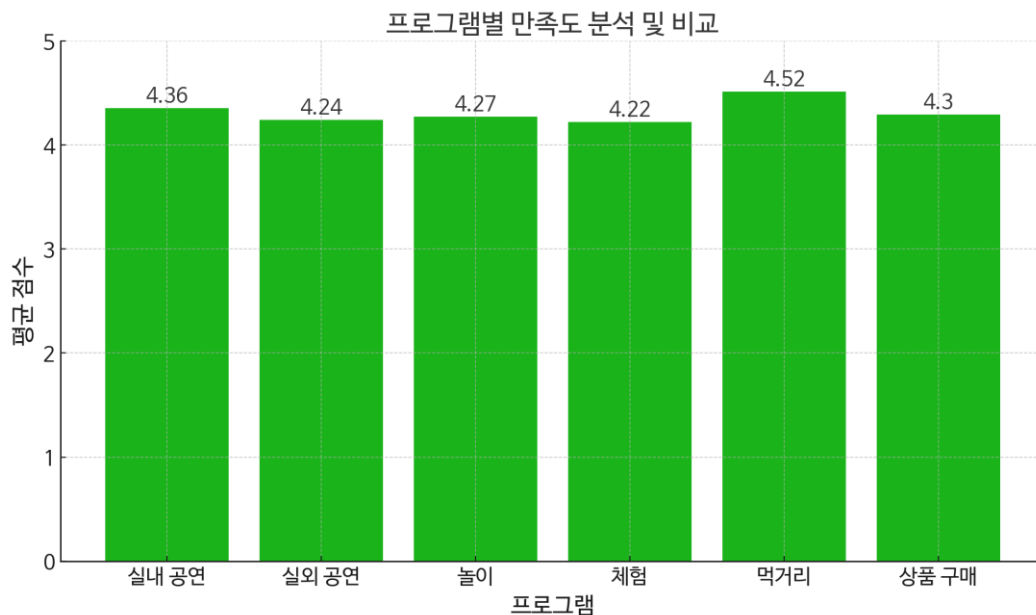
- 표준편차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응답자들의 의견이 일관성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카. 프로그램별 만족도 및 비교

13) 프로그램별 만족도 및 비교

- **먹거리** 항목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으며, 행사에서 음식이 참가자들에게 큰 만족감을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실내공연(캐츠)** 항목이 두 번째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습니다.
- **체험** 항목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여전히 4점이상으로 양호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 **실외 공연**이 **실내 공연**보다 약간 낮은 점수를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두 공연 모두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 **놀이와 상품 구매** 항목도 대체로 만족스러웠으며, 다양한 활동과 구매 경험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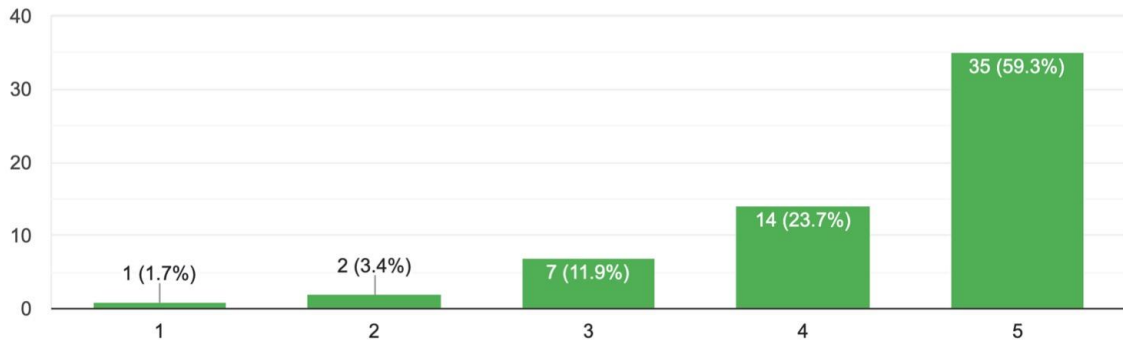
<프로그램별 만족도 비교 분석 및 비교>



타. 각 프로그램별 만족도 분석

14) “실내 공연(캐츠)”에 대한 만족도 분석

- 평균 점수는 4.36으로,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많은 참가자들이 실내공연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음을 의미합니다.
- 응답자 분포를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4점 이상을 주었으며, 이는 실내공연이 대체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했음을 나타냅니다.
- “뮤지컬 관람시 안내자 분들의 잡담이 너무 시끄러워요 ‘라는 개선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더욱더 좋은 공연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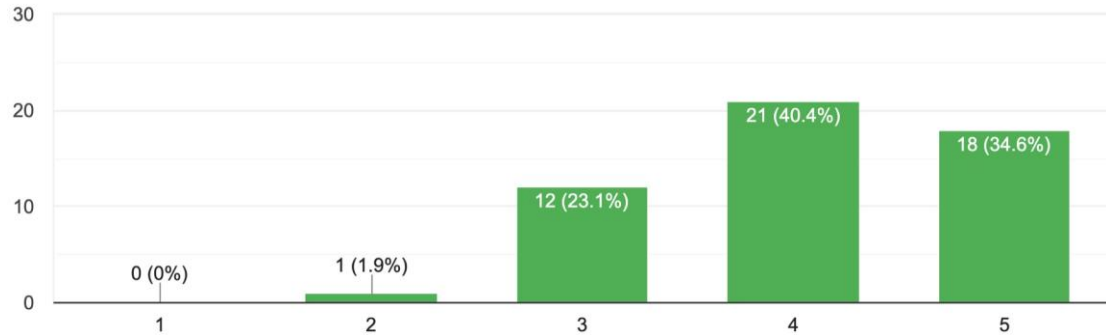


15) “실외 공연”에 대한 만족도 분석

- 실외공연 1부(11:30)
 - 평균 점수: 첫 번째 실외공연의 평균 점수는 4.3으로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 응답자 분포: 대부분의 응답자가 4점과 5점을 주었으며, 이 시간대의 공연이 대체로 만족스러웠음을 나타냅니다.

•해석: 오전 공연은 비교적 신선한 마음으로 관람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관객이 아직 피로하지 않고, 날씨도 비교적 쾌적할 때 진행된 공연이기 때문에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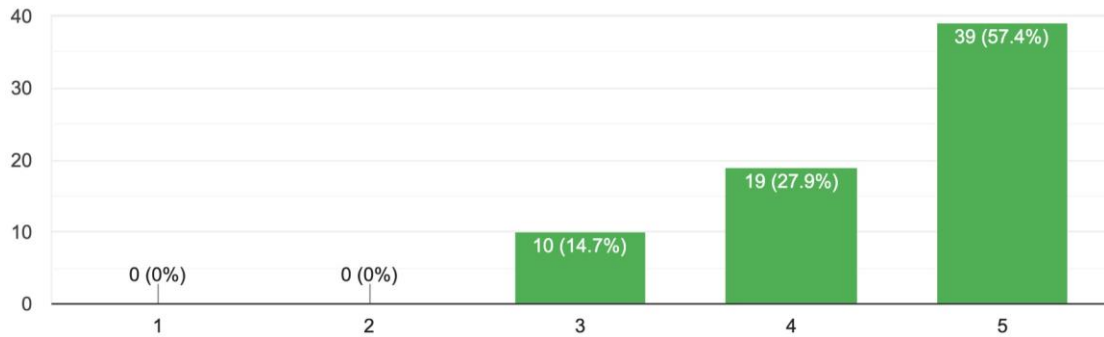


- 실외공연 2부(15:00)

•평균 점수: 2부 공연의 평균 점수는 3.8로, 다른 실외 공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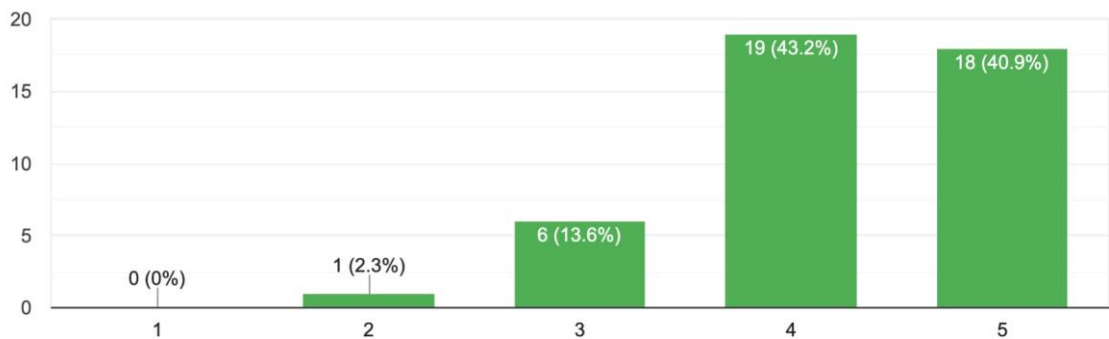
•응답자 분포: 3점에서 4점 사이의 응답자가 많았으며, 일부는 더 낮은 평가를 주었습니다.

•해석: 오후 시간은 관객들이 점심 후 피로를 느끼거나, 더운 날씨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첫 번째 공연과 비교해 프로그램의 신선함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만족도 저하로 이어졌을 수 있습니다.



- 실외공연 3부(18:00)

- 응답자 분포: 대부분이 5점을 주었으며,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 해석: 저녁 시간은 공연을 즐기기에 좋은 시간대일 수 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고, 행사의 마무리 부분이라는 기대감이 더해져 관객들이 공연을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가능성이 큼니다.



- 실외공연 전체에 대한 분석

- 평균 점수: 실외 공연 전체의 평균 점수는 4.24입니다.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지만, 2부 공연의 낮은 점수가 전체 평균을 조금 낮추었습니다.

•시간대별 만족도 차이:

· 오전과 저녁 공연은 매우 높은 평가를 받은 반면, 오후 공연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는 공연 시간대에 따른 관객의 상태(피로감, 더위 등)와 프로그램 내용의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큼니다.

· 특히, 2부 공연은 점심 이후라는 시간적 요인과 더운 날씨, 1부와 유사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인해 관객들에게 신선함을 제공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도출

- 시간대별 프로그램 차별화
 - 2부 공연(오후 3:00)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1부 공연과 유사한 프로그램보다는 차별화된 내용을 제공해, 관객들이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오후 시간대는 관객들이 다소 피로할 수 있으므로, 참여형 프로그램이나 에너지 넘치는 공연으로 구성하여 관객들이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날씨와 환경 고려
 - 실외 공연의 특성상, 날씨가 관람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부 공연의 경우, 날씨가 더운 시간이므로 그늘막 설치나 냉방 장치(예: 이동식 에어컨, 쿨링 팬) 등을 배치해 관객들이 쾌적하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공연 스케줄 조정
 - 피로도가 누적되는 오후 시간대에 짧은 휴식 시간을 도입하거나, 관객들이 휴식하면서 간단한 간식이나 음료를 즐길 수 있는 리프레시 타임을 제공하면, 이후 공연을 보다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 저녁 공연의 특화
 - 3부 공연이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저녁 시간대에 맞는 공연을 더욱 강화해, 감성적이고 분위기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는 조명과 음향을 더욱 활용해 무대 연출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공연 후 특별 이벤트 추가
 - 특히 3부 공연 이후에 관객과의 소통 시간이나 포토 타임 등을 추가해 공연 후에도 긍정적인 경험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는 관객들의 참여 의욕을 더욱 높여줄 수 있습니다.

16) “놀이”에 대한 만족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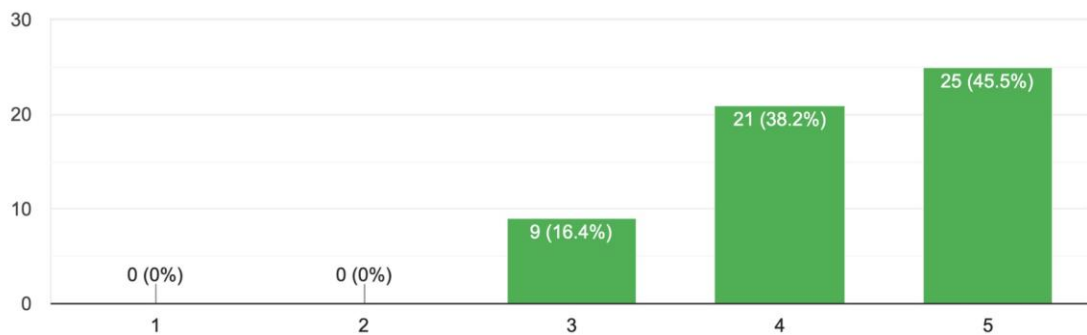
- 유아, 유치 놀이존(기독교 강당, 4층)

• 평균 점수: 평균 점수는 4.29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 해석: 유아 및 유치 놀이존은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놀이 기구나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참가자들에게 적절한 재미를 제공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여전히 더 개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도출

- 놀이 기구의 다양성 확대: 현재 제공되는 기구의 범위를 더 다양하게 하여, 각 연령대별로 맞춤형 놀이 기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성 보장: 부모들이 자녀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더 많은 안전 관리 요원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 체험형 프로그램 추가: 어린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테마 놀이존을 추가하면 몰입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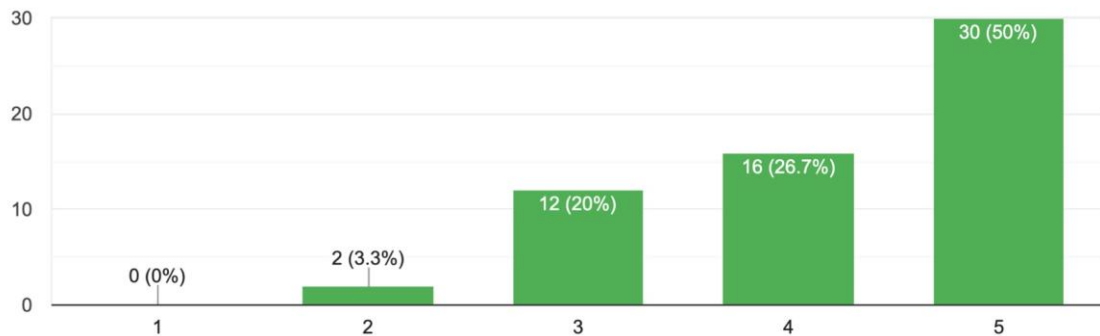


- 대형 에어 바운스(길이 24m)

- 평균 점수: 새롭게 계산된 평균 점수는 4.23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해석: 대형 에어 바운스는 참가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이고 재미있는 놀이 기구로서,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도출

- 놀이 기구 확대: 대형 에어 바운스는 매우 인기가 많았으므로, 놀이 기구의 종류를 확대해 더 다양한 에어 바운스 형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대기 시간 관리: 인기가 많은 만큼 대기 시간이 길 수 있으므로,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더 많은 에어 바운스 기구를 배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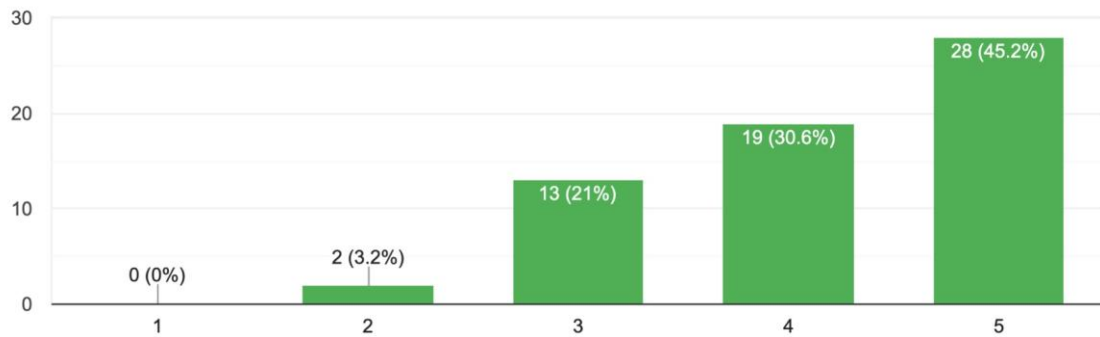


- 게임(헤머 게임, 인형뽑기, 두더지 게임)

- 평균 점수: 새롭게 계산된 평균 점수는 4.18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해석: 게임존은 대부분의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참가자들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특정 게임의 재미 요소나 기구의 상태, 혹은 경품에 대한 기대 차이 때문일 수 있습니다.

◇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도출

- 게임 종류 확대: 현재 제공되는 게임 기구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게임을 추가해 참가자들이 더욱 흥미를 느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 경품 시스템 개선: 게임 참가자들을 위해 더 매력적인 경품을 제공해, 게임 참여의 동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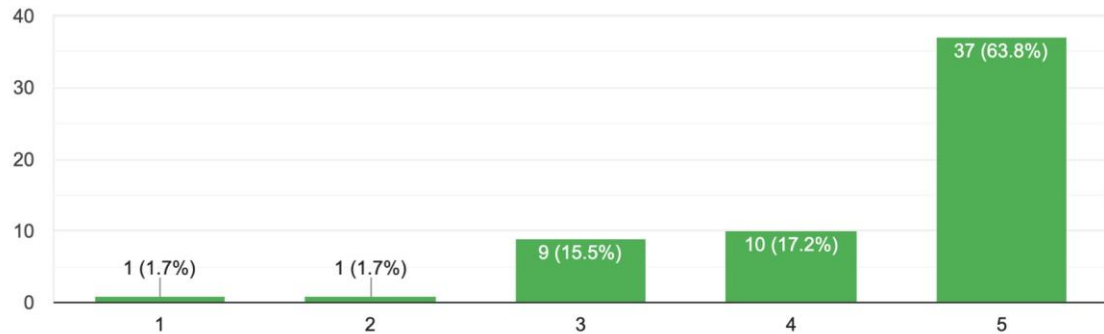


- 바이킹

- 평균 점수는 4.40으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바이킹은 참가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스틸 넘치는 놀이 기구로서 많은 이들에게 인기를 끌었으며, 특히 청소년과 성인들이 즐기기 적합한 기구로 평가되었습니다.

◇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도출

- 더 많은 스릴 넘치는 기구 추가: 바이킹과 같은 스릴 넘치는 놀이 기구를 더 추가하거나, 새로운 놀이 기구를 도입해 청소년과 성인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 놀이 기구에 대한 불만 사항으로는 기구의 부족이 언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이 특정 놀이 기구에 몰리며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대기 시간 관리: 인기 있는 놀이 기구에 대한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한 추가 기구 배치 및 대기 순서 관리 시스템 도입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놀이 프로그램 전체 분석

- 전체 평균 점수: 놀이 프로그램 전체의 평균 점수는 4.27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 분석 결과
 - 유아 및 유치 놀이존은 만족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다른 놀이 기구에 비해 안전성이나 다양성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대형 에어 바운스와 바이킹은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놀이 기구의 성공을 바탕으로 더 많은 활동적이고 스릴 넘치는 놀이 기구를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게임존은 평균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게임 종류의 다양성이나 참여형 이벤트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도출

- 놀이 기구 다양성 및 대기 시간 관리
 - 놀이 기구의 종류를 더 다양화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취향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대형 에어 바운스와 바이킹 같은 인기 기구는 대기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구를 배치하거나, 대기 순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 유아 놀이존 강화
 - 유아 놀이존은 부모와 어린아이 모두가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와 더 많은 놀이 기구 추가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테마형 놀이존을 도입해 아이들이 상상력을 자극하며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 게임존의 이벤트 강화
 - 참여형 게임 이벤트를 추가해 더 많은 참가자들이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에서 경품을 강화하여, 게임 참여의 동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청소년 및 성인을 위한 기구 확장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놀이 프로그램은 주로 어린이 중심이지만, 청소년과 성인들도 즐길 수 있는 스릴 넘치는 놀이 기구를 더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롤러코스터나 더 스릴 있는 기구들을 도입해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17) “체험” 에 대한 만족도 분석

- 전체적인 체험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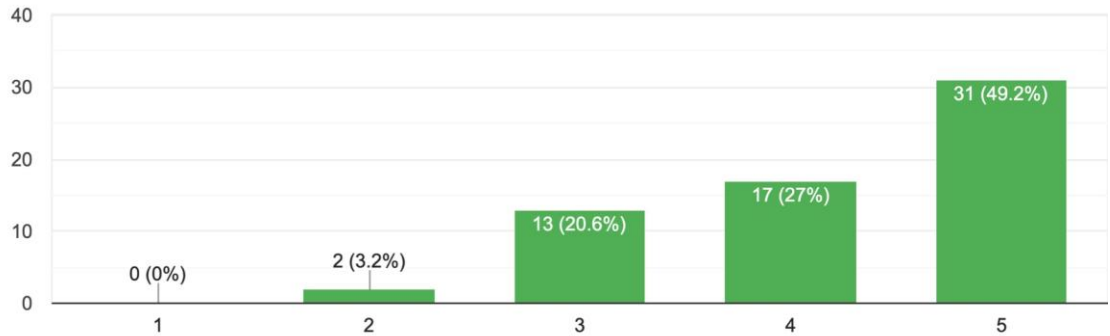
• 평균 점수: 4.22

• 해석: 체험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일부 개선할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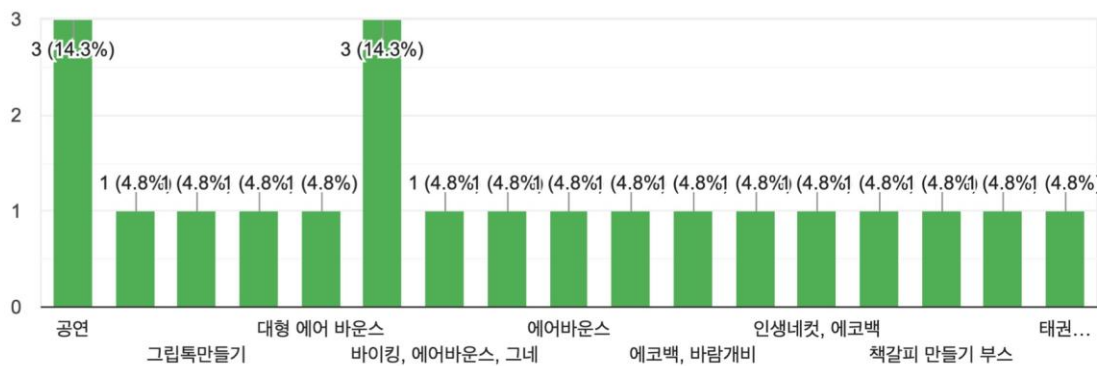
- 체험 프로그램의 경우, 기구나 시설의 관리 부족, 체험 활동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불만이 있었습니다.

◇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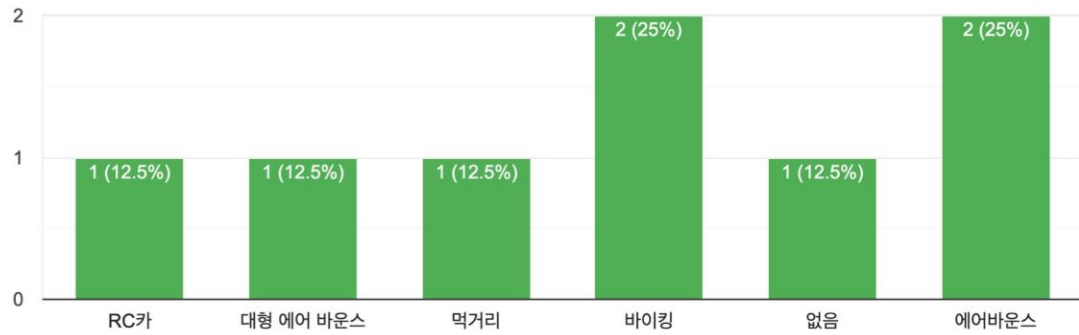
- 체험 활동 다양화: 더 많은 종류의 체험 활동을 추가하여, 다양한 연령대와 취향을 반영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단위 체험,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 체험 등으로 프로그램을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 시설 관리 개선: 체험 활동의 장비나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통해, 참가자들이 불편함 없이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가장 만족스러운 체험



- 가장 불만족스러운 체험



- 불만족스러운 이유 -

- 줄이 길고 대기시간이 길었음
- 대기시간이 너무 길었다
- 아이들이 충분히 놀지 못함, 더 넓게 운영해주시길
-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요
- 질서, 줄서기, 새치기
- 유아용 동시 준비 필요
- 대기가 길고 시간이 오래걸림
- 품질 및 퀄리티
- 체험운영시간이 길었으면 해요~ 즐겁게 참여하고 싶네요

18) “먹거리” 에 대한 만족도 분석

- 전체적인 먹거리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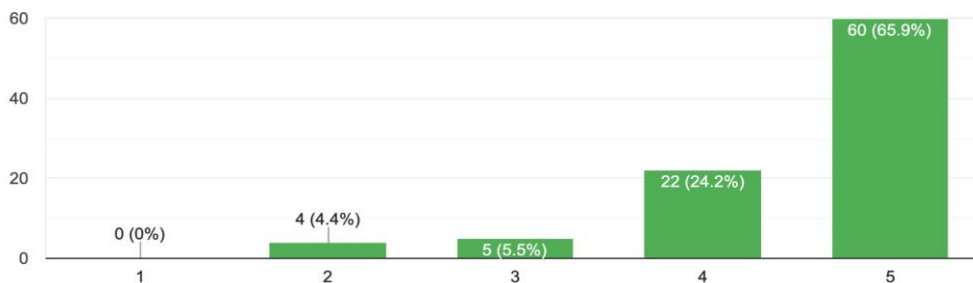
- 평균 점수: 4.52
- 해석: 먹거리는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였으며, 많은 참가자들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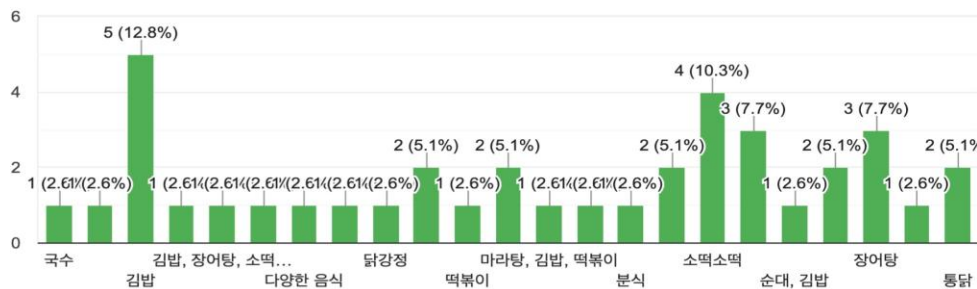
- 질적 응답에서 나타난 불만 사항: 먹거리 프로그램에서 자주 언급된 불만 사항은 음식의 다양성 부족과 대기 시간이 길다는 점입니다.
- 가장 불만족스러운 먹거리의 응답자 수가 13명으로 일반화하기 어려우며 개선을 위한 참고 사항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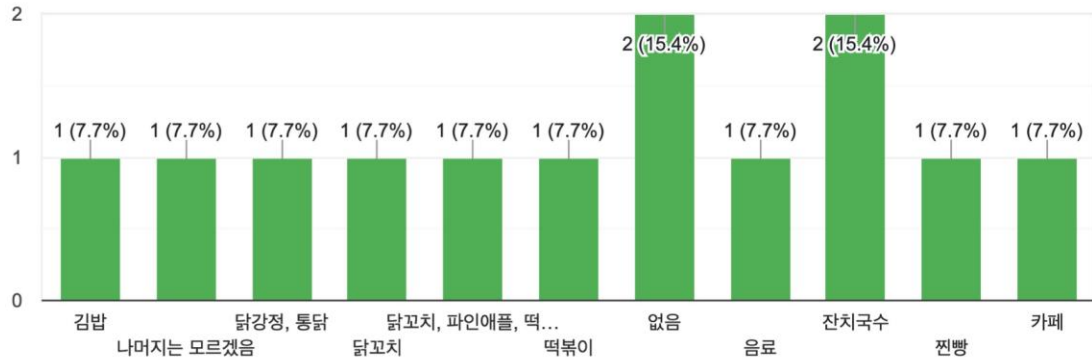
- 음식의 다양성 확대: 참가자들의 입맛과 취향에 맞는 더 다양한 메뉴를 추가하고, 특히 채식 옵션이나 특별 식단을 위한 메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대기 시간 단축: 인기 있는 메뉴에 대한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더 많은 조리 공간을 확보하거나, 사전 주문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 시간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가장 만족스러운 먹거리



- 가장 불만족스러운 먹거리



- 불만족스러운 이유

- 커피 맛이 떨어짐
- 이맛도 저맛도 아니었음
- 닭꼬치 딱딱, 파인애플 숙성 안됨, 떡볶이 간이 약함(설탕 더 넣을 것)
- 대기시간이 너무 오래 걸림
- 계좌이체 안되고 현금사용만 가능해서
- 국물이 밍밍함
- 탄산이 없음
- 딱딱함, 가격이 비싸다 느껴짐

19) “상품 구매” 에 대한 만족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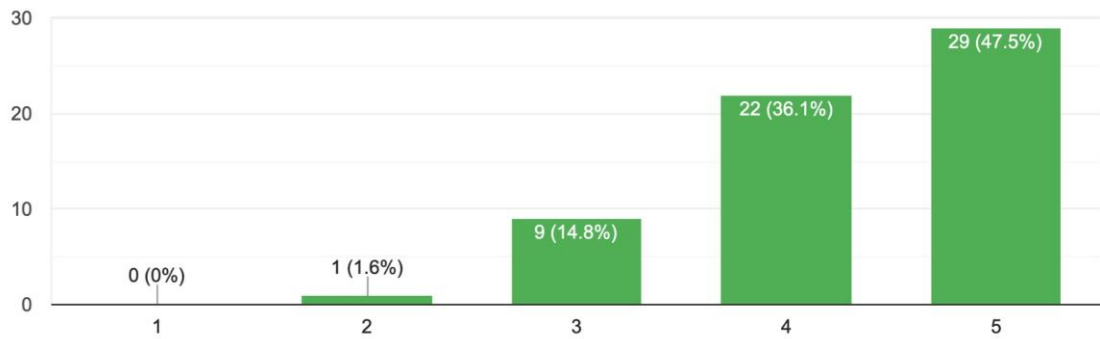
- 전체적인 상품 구매 만족도

- 평균 점수: 4.30
- 해석: 상품 구매 프로그램은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참가자들이 대체로 만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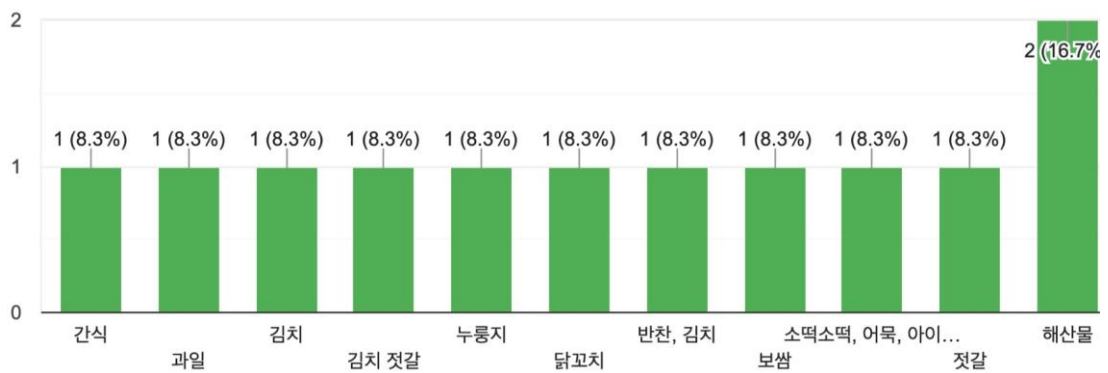
- 질적 응답에서 나타난 불만 사항: 상품 구매 프로그램에서는 상품의 품질과 다양성에 대한 불만이 언급되었습니다.

◇ 개선사항 및 아이디어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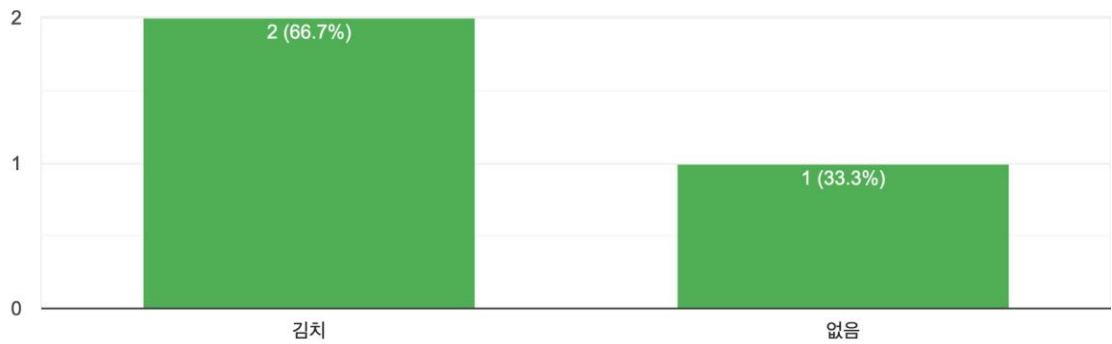
- 상품의 다양성 확대: 참가자들이 원하는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을 준비하여,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연령대와 취향을 반영한 상품군을 강화해야 합니다.
- 상품 품질 관리: 상품의 품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참가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상품의 원산지나 품질 보증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가장 만족스러운 상품 구매



- 가장 불만족스러운 상품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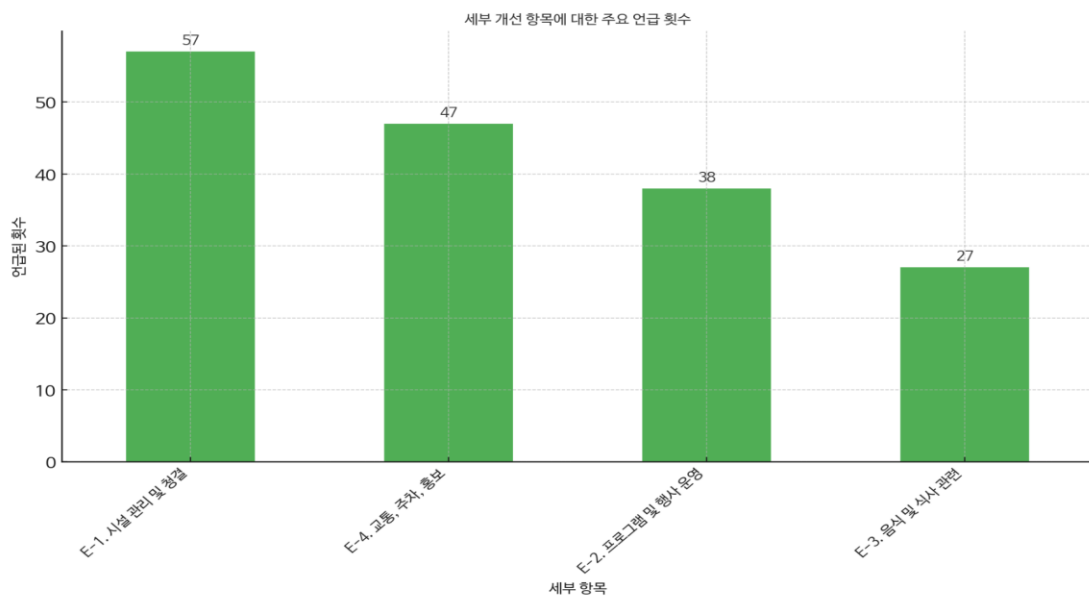
- 불만족스러운 이유

- 청결, 쓰레기 문제 등등, 주최자들이 힘들어 보여 행사가 별로임
- 빠른 품질, 더 많이 준비해주세요
- 김치품질

파. 바자회 시설, 운영, 프로그램, 음식, 홍보에 대한 만족도

20) 개선이 필요한 주요 항목 분석 및 분석결과 요약

<세부 개선 항목에 대한 주요 언급 횟수>



- "시설 관리 및 청결": 57건의 언급이 있어 가장 많은 피드백이 이 항목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시설의 청결 상태나 관리가 참가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음을 나타냅니다.
- "교통, 주차, 홍보": 47건의 피드백이 있었으며, 행사에 대한 접근성 문제나 홍보 부족이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드러났습니다.
-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38건의 피드백이 수집되었으며, 프로그램의 다양성이나 운영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음식 및 식사 관련": 27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으나,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존재합니다.

21) 세부 항목별 분석(개선 요구 횟수)

1. 시설 관리 및 청결

- 청결 유지: 청결 유지 관련 문제(20건)에서 가장 많은 피드백이 나왔습니다.
- 화장실 관리: 화장실 관리 부족에 대한 언급이 15건 있었습니다.
- 휴지통 부족: 휴지통이 부족하다는 피드백이 12건 있었습니다.
- 쓰레기 관리: 쓰레기 관리 문제에 대한 응답이 10건 있었습니다.

- 실시간 청소 팀 배치 및 휴지통 추가 설치를 통해 청결 유지.
- 화장실을 포함한 주요 공간의 위생 및 방역 강화.

2.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 프로그램 다양성 부족: 15건의 피드백이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에 대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 운영 부족: 행사 운영 관련 10건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 스케줄 관리: 스케줄 관리의 부재에 대한 언급이 8건 있었습니다.
- 안내 표지 부족: 안내 표지 부족에 대한 피드백이 5건 있었습니다.

- 프로그램 다양화: 연령대별 맞춤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사전 예약제 도입으로 스케줄 관리를 강화.
- 명확한 안내 표지 및 운영 매뉴얼 개선으로 행사 진행 원활화.

3. 음식 및 식사 관련

- 메뉴 다양성 부족: 10건의 피드백에서 메뉴 다양성에 대한 불만이 나타났습니다.
- 음식 품질: 8건이 음식의 품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대기 시간: 대기 시간이 길다는 불만이 5건 있었습니다.
- 가격 불만: 가격에 대한 불만이 4건 나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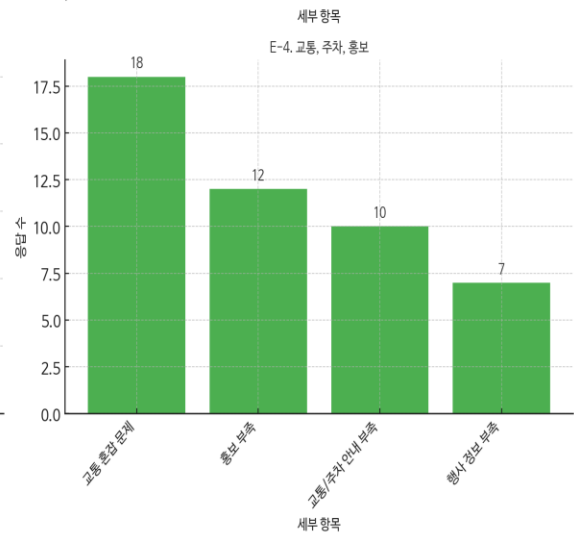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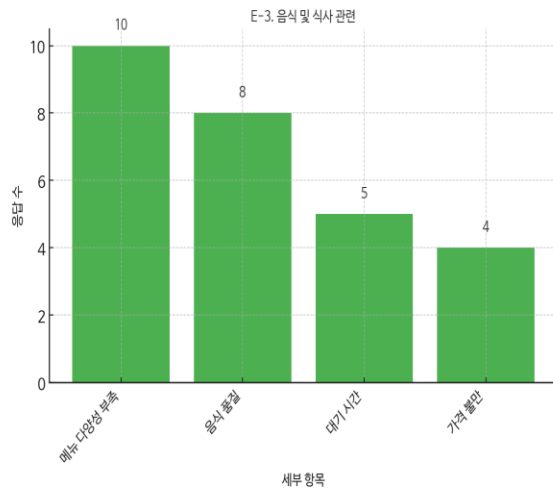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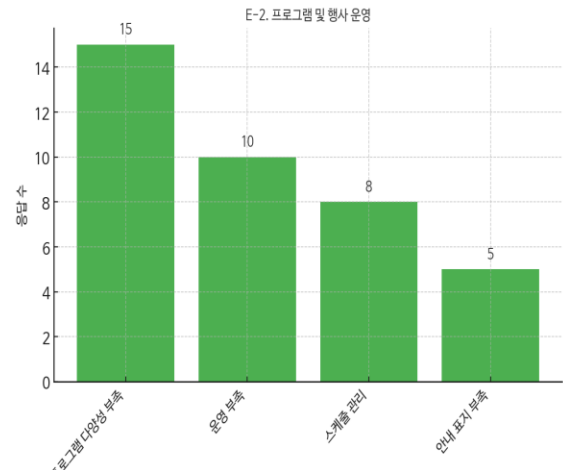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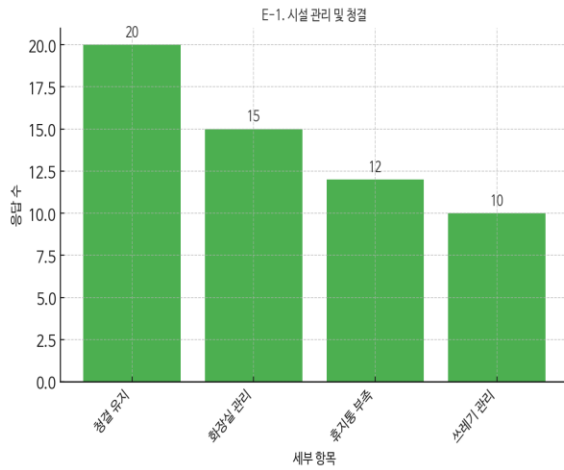
- 메뉴 다양화 및 품질 개선: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사전 주문 및 픽업 시스템을 통해 대기 시간을 줄임.
- 가격 책정의 합리화 및 고객 피드백을 반영한 메뉴 개선.

4. 교통, 주차, 홍보 관련

- 교통 혼잡 문제: 18건의 피드백이 교통 혼잡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 홍보 부족: 홍보 부족에 대한 불만이 12건 있었습니다.
- 교통/주차 안내 부족: 10건이 교통/주차 안내 부족을 언급했습니다.
- 행사 정보 부족: 행사 정보 부족에 대한 피드백이 7건 있었습니다.

- 셔틀버스 운행 확대 및 교통 안내 요원 배치로 교통 혼잡 해결.
-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와 사전 정보 제공을 통해 정보 부족 문제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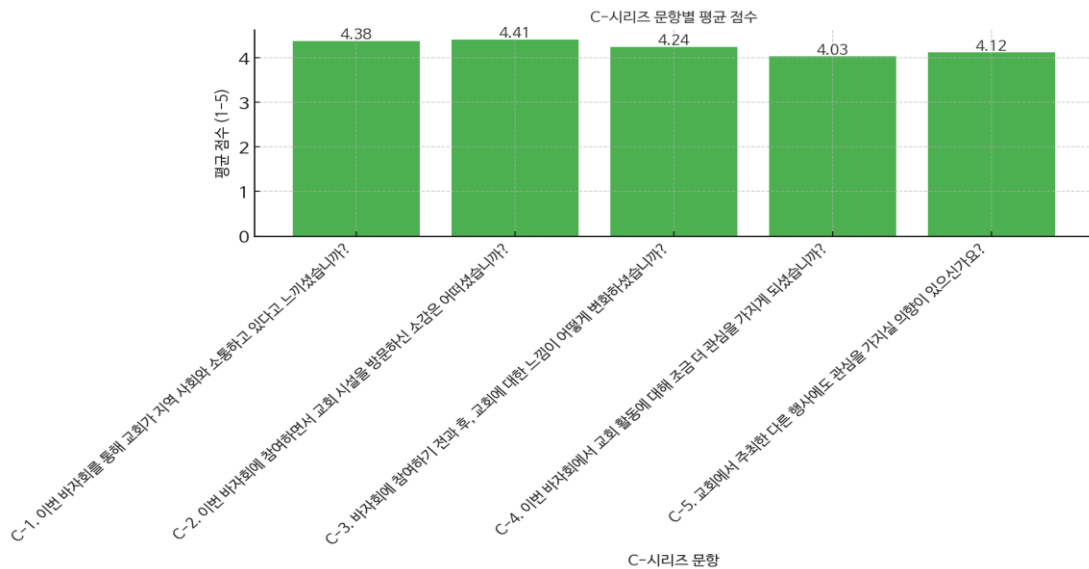
<문항의 세부항목별 개선 요구 횟수>



비교인의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

하. 각 문항별 참여자의 평균 분석

<비교인의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 문항별 평균>



- 교회와 지역 사회의 소통 인식(평균 점수: 4.38)

- 바자회를 통해 교회가 지역 사회와 잘 소통하고 있다고 느낀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 교회 시설 방문 소감(평균 점수: 4.41)

- 교회 시설을 방문한 소감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참가자가 많았습니다.

-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평균 점수: 4.24)

- 바자회 참여 전후로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 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평균 점수: 4.03)

- 바자회를 통해 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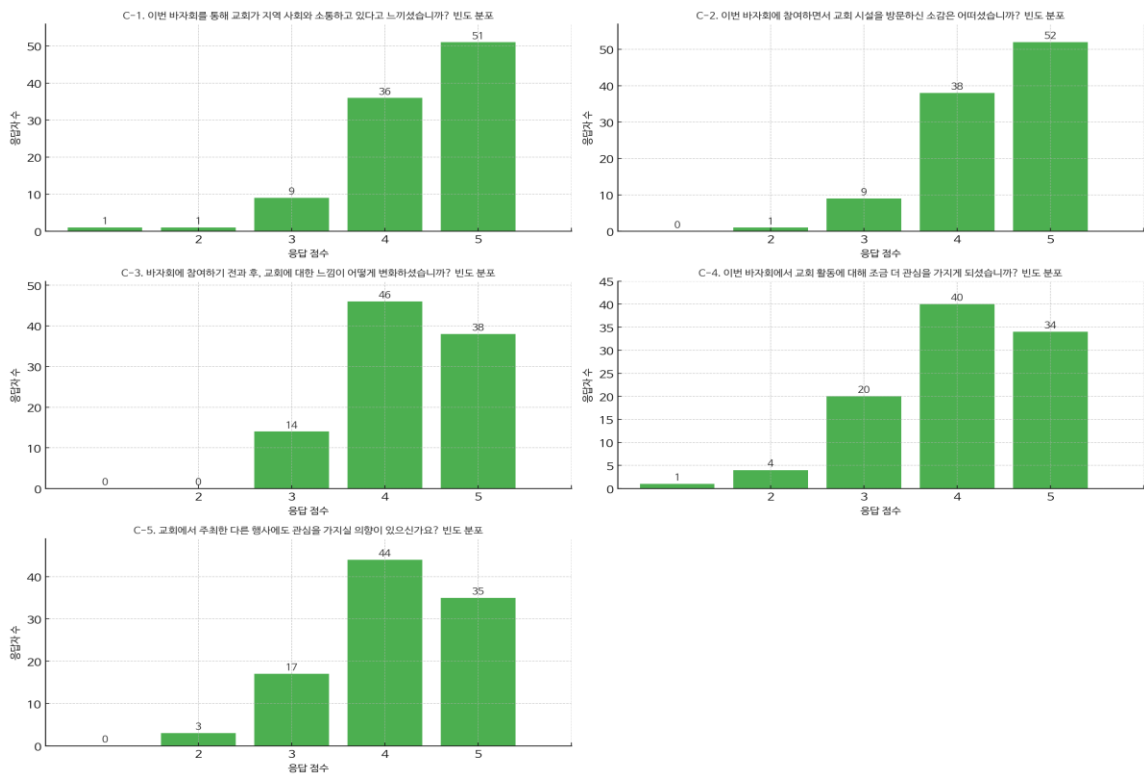
- 다른 행사에 대한 관심(평균 점수: 4.12)

- 바자회를 통해 교회에서 주최하는 다른 행사에도 관심을 가지겠다는 의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교회 시설 방문 소감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게 평가 되는 것을 통해 바자회의 주요 목적인 “비교인에게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기회(예배당으로의 초대)를 제공한다.”가 달성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가. 문항별 분석

<비교인의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 세부 문항별 빈도>



나. 연령대별 문항 평균 비교

22) 연령대별 문항 평균 기본 분석

- 20대의 만족도 (평균 4.63)

20대 그룹은 전체 평균 중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 바자회와 교회 활동 전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 30대의 만족도 (평균 4.39)

30대 그룹도 높은 점수를 주며, 특히 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40대의 만족도 (평균 4.26)

40대 그룹은 30대에 비해 약간 낮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평균 이상의 긍정적 평가를 유지했습니다.

- 50대와 그 이상의 만족도 (평균 3.94)

비교적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으며, 교회와 바자회 활동에서 개선할 부분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23) 연령대별, 성별 교차분석을 통한 결과와 인사이트

1. 20대 남성의 긍정적 반응

- 20대 남성의 만족도: 가장 높은 평균 점수인 4.63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다른 연령대 및 성별 그룹에 비해 높은 만족도를 나타냅니다.

- 20대 남성의 높은 만족도는 전체 문항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결과로, 특히 ‘교회와 지역 사회의 소통 인식’ 과 ‘다른 행사에 대한 관심’ 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습니다. 이는 젊은 남성층의 교회 행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소통의 효과를 시사합니다.

교회가 젊은층 남성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도록 젊은층에 맞춘 프로그램이나 소통 전략을 강화하면 좋을 것입니다.

2. 여성 30대와 10대 그룹의 높은 평가

- 여성 30대와 10대 그룹: 20대 남성에 이어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30대 여성(4.49)과 10대 여성(4.50)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았습니다.
- 30대 여성과 10대 여성 그룹도 만족도가 높았으며, 특히 교회 시설 방문 소감과 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교회 프로그램이 다양한 연령대 여성에게 잘 맞추어져 있음을 나타내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행사나 소통 기회가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3. 낮은 점수를 기록한 그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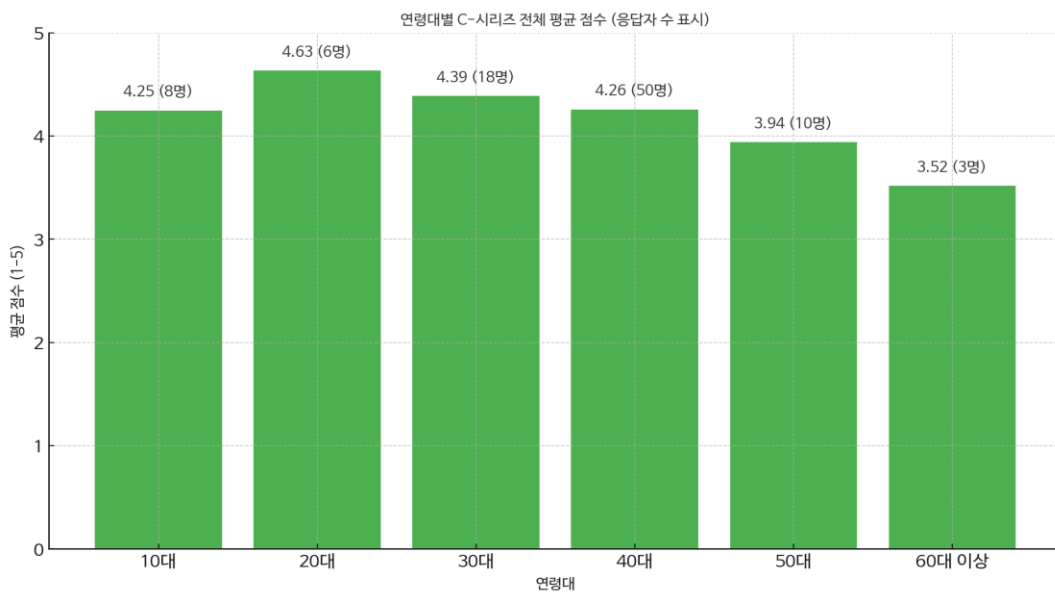
- 낮은 평균 점수: 10대 남성(3.40), 60대 이상 여성(3.52) 그룹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 10대 남성(3.40)과 60대 이상 여성(3.52)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특히 ‘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과 ‘행사에 대한 관심’에서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들 그룹에게 더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맞춤형 홍보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대 남성에게는 젊은층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활동을 더 강조할 수 있고, 60대 이상 여성에게는 참여하기 쉬운 활동이나 더 많은 정보 제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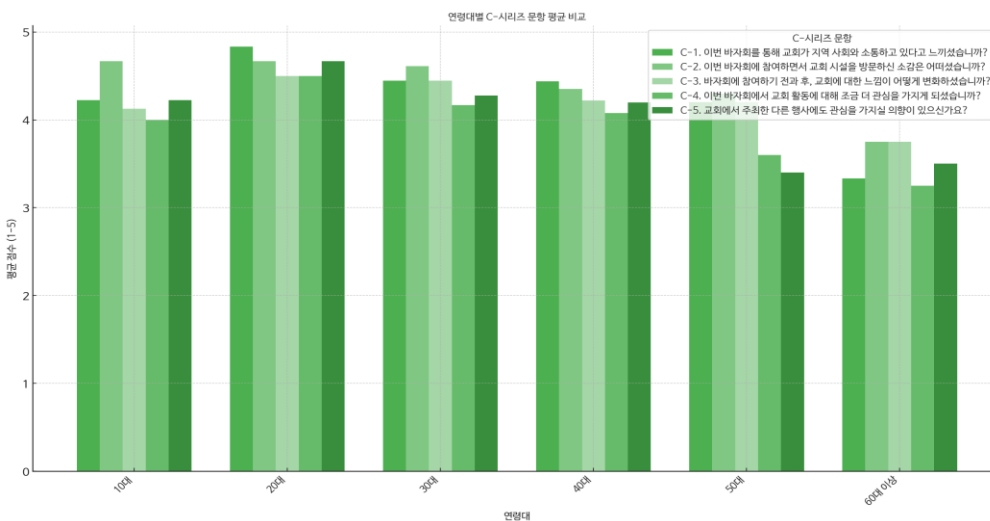
24) 종합 시사점(일반적 관점)

- 20대 남성의 강력한 긍정적 반응을 활용: 20대 남성층의 높은 만족도를 바탕으로, 이 그룹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방안을 계속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연령과 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 특정 연령대와 성별에 따라 만족도와 관심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맞춤형 프로그램과 소통 방식이 필요합니다.
- 낮은 만족도를 보인 그룹에 대한 개선: 상대적으로 낮은 만족도를 보인 10대 남성과 60대 이상 여성 그룹에게 접근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과 전략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문항의 연령대별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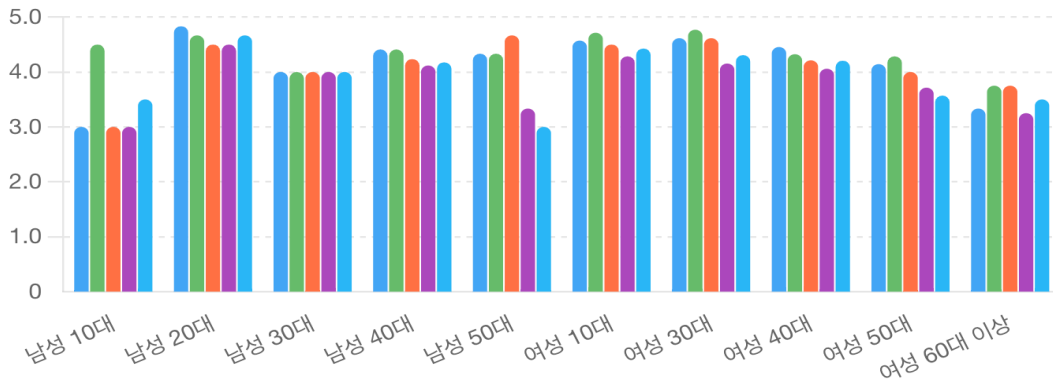
<전체 문항의 연령대별 상세 평균>



<전체 문항의 성별, 연령대별 상세 평균>

Y 평균 점수 (1-5) X X 성별 및 연령대 그룹

- C-1. 이번 바자회를 통해 교회가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 C-2. 이번 바자회에 참여하면서 교회 시설을 방문하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 C-3. 바자회에 참여하기 전과 후, 교회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 C-4. 이번 바자회에서 교회 활동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및
- C-5. 교회에서 주최한 다른 행사에도 관심을 가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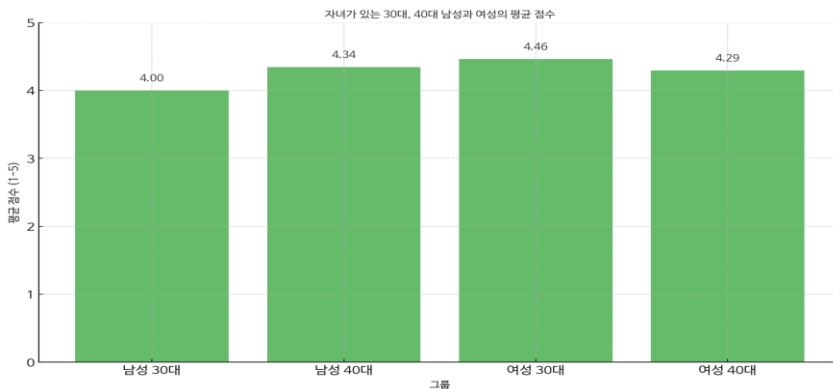
다. 자녀를 둔 30대, 40대 남성과 여성의 만족도 분석

25) 대상 분류 기준

- 연령이 30대, 40대로서 ‘가족과 함께’ 참가한 응답자 대상

26) 자녀가 있는 30대, 40대 남성과 여성의 평균 만족도

<자녀가 있는 30대, 40대 남성과 여성의 평균 점수>



- 자녀가 있는 30대와 40대 남성과 여성 모두 비교적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나, 특히 **30대 여성**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습니다. 이는 가족과 함께 바자회를 즐기면서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27) 자녀를 둔 30대 여성의 세부 분석

- 교회와 지역 사회의 소통 인식(평균 점수: 4.6)

30대 여성 그룹은 교회와 지역 사회 간의 소통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이 연령대 여성들과 잘 소통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교회 시설 방문 소감(평균 점수: 4.5)

교회 시설에 대한 인식도 상당히 긍정적이며, 교회 방문 경험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평균 점수: 4.3)

바자회 참여 전후로 교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 변화가 있었으며, 교회와의 관계가 강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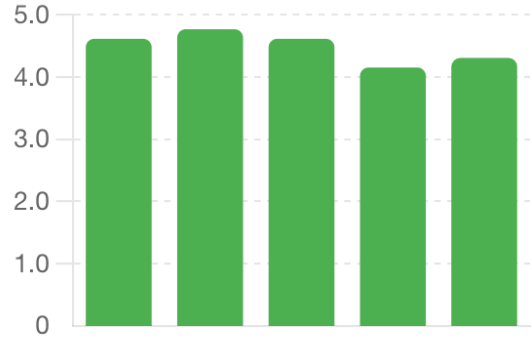
- 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평균 점수: 4.2)

교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높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 다른 행사에 대한 관심(평균 점수: 4.4)

바자회를 통해 다른 행사에도 관심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가 주최하는 다양한 이벤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녀를 둔 30대 여성의 문항별 평균>



C-1. 이번 바자회를 통해 교회가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C-2. 이번 바자회에 참여하면서 교회 시설을 방문하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C-3. 바자회에 참여하기 전과 후, 교회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C-4. 이번 바자회에서 교회 활동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C-5. 교회에서 주최한 다른 행사에도 관심을 가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높은 소통 인식: 30대 여성들은 교회와의 소통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교회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이 그룹에게 효과적임을 나타냅니다.
-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 가능성: 교회 활동과 다른 행사에 대한 관심도 높은 점수를 보였기 때문에,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이나 자녀를 동반한 활동에 대한 참여 의향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긍정적인 인식 변화: 바자회를 통해 교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계 형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8) 자녀를 둔 30대 여성의 만족도 개선 방안

1. 소통 강화 및 맞춤형 커뮤니케이션 전략

- 기존 강점 유지: 30대 여성들은 교회와의 소통에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현재 소통 방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화된 소통:** 자녀를 둔 30대 여성들이 주로 참여하므로, 육아와 관련된 정보, 가족 활동 관련 소식 등을 포함한 맞춤형 뉴스레터나 SNS 메시지로 소통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참여 유도 프로그램:** 커뮤니티 활동, 워크숍, 소모임 등을 통해 이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교회와 지역 사회의 관계를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2.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 확대

- **자녀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자녀를 동반한 참여자들이 많기 때문에, 가족 운동회, 부모-자녀 워크숍, 가족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좋습니다. 이를 통해 가족 중심의 커뮤니티 구축이 가능해집니다.

- **자녀 교육 관련 프로그램:** 자녀를 둔 부모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자녀 교육, 육아 상담, 유아 놀이 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기획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 초청 강연도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교회 시설 및 환경 개선

- **30대 여성의 방문 소감을 개선:** 교회 시설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받은 점을 유지하면서, 좀 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공간, 깨끗한 휴게실, 커피 바 등의 시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유아 돌봄 서비스:** 부모들이 교회 활동에 참여할 때, 자녀를 돌볼 수 있는 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4. 프로그램 다양화 및 참여 확대

- **새로운 프로그램 제안:** 30대 여성의 프로그램 참여 의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요리 교실, 핸드메이드 공예, 피트니스 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참여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상시 참여 가능한 활동:** 주말이나 평일 저녁 등 다양한 시간대에 맞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바쁜 일정을 가진 30대 여성들이 좀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5. 지속적인 피드백 수집 및 반영

- **정기적인 피드백 세션:** 바자회나 교회 활동 후 정기적인 피드백을 수집하여,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자 제안 반영:** 30대 여성들이 직접 제안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 있으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참여자의 의견이 존중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30대 여성은 교회와 바자회의 주력 참여자로, 높은 만족도를 유지하기 위해 맞춤형 소통과 가족 중심의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계 형성과 더불어 새로운 참여자를 유치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5. 결과 요약 및 결론

이번 바자회는 비교인을 대상으로 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바자회의 목적 달성 여부와 그 효과를 분석한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 바자회의 목적 달성 여부

29) 참여 동기

- 다수의 참여자들이 '다양한 먹거리', '실내외 공연', '놀이와 체험 활동' 등을 주요한 참여 동기로 꼽았습니다. 이는 바자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데 성공했음을 의미합니다.
- '지인의 추천'이나 '교회에 대한 궁금증'으로 인해 바자회에 참여한 경우도 눈에 띄었으며, 이를 통해 바자회가 교회와 비교인 간의 첫 접점을 만드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0)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

- 설문 응답자 중 상당수는 바자회를 통해 교회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바자회 이후 교회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소감을 표했으며, 교회의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 이와 함께, 교회가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데 바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31) 재참여 의사

- 응답자 대부분은 향후에도 바자회에 다시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변했으며, 주변 지인에게 바자회를 추천할 의향이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바자회의 프로그램과 운영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을 나타냅니다.

마. 주요 개선점 및 인사이트

32) 프로그램 구성

- '실내 공연', '놀이존', '먹거리' 등 주요 프로그램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나, 일부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이로 인해 체험 프로그램의 다양성 강화와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놀이존의 경우 대기 시간이나 안전 관리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으며, 향후 더 많은 사람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과 운영 방식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33) 시설 및 운영

- 많은 응답자들이 좌석 부족과 주차, 교통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바자회 방문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개선 사항으로 보입니다.

- 또한, '안전 사고 우려', '질서 유지 문제' 등은 다음 바자회 준비 시 더 체계적인 계획과 준비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34) 교회와의 소통 강화

- 응답자들은 바자회를 통해 교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사가 높아졌음을

표시했으며, 이는 교회가 비교인과의 소통을 원활히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음을 나타냅니다. 향후 바자회와 같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교회와 지역 사회 간의 연결고리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바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며, 재방문 의사와 추천 의향을 높이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일부 운영 및 시설 측면에서의 개선 필요성이 발견되었으며, 이를 적극 반영하여 다음 행사에서는 보다 완성도 높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설문지 원본

설문지

안녕하세요, 월광교회에서 인사드립니다.

이번 "OH, HAPPY FAMILY" 사랑의 바자회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설문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바자회를 통해 월광교회와 지역 사회가 더욱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생각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응해 주신 내용은 바자회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더욱 의미 있는 행사로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답변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여러분의 의견을 성심껏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광교회 드림

I. "사랑의 바자회"에 방문동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응답번호에 V표기 바랍니다.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바자회의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2. 다양한 먹거리를 즐기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3.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①	②	③	④	⑤
4. 놀이와 체험 등의 다양한 활동을 위해	①	②	③	④	⑤
5. 다양한 실내·외 공연을 즐기기 위해(뮤지컬 포함)	①	②	③	④	⑤
6. 지인의 초대나 추천에 의해	①	②	③	④	⑤
7. 월광교회에 대해 궁금해서	①	②	③	④	⑤
8. 기타: (내용 기입)					

II. 월광교회 “사랑의 바자회” 방문행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번호에 V표기 바랍니다.

1. “사랑의 바자회”에 대해 이전부터 알고 계셨습니까?
 - ① 알고 있었고 참여한 적도 있음 ② 알고 있었지만 참여한 적은 없음 ③ 이번에 처음 알게 됨
 - 1-1. (1문항 ① 응답자만) 올해 “사랑의 바자회”가 전반적으로 이전 바자회와 비교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나빠짐 ② 대체로 나빠짐 ③ 예년과 비슷함 ④ 대체로 좋아짐 ⑤ 매우 좋아짐

2. “사랑의 바자회”에 누구와 함께 오셨습니까? (중복체크 가능)
 - ① 혼자 ② 친구와 함께 ③ 가족과 함께 ④ 연인과 함께 ⑤ 단체 ⑥ 기타(내용 기입)

3. “사랑의 바자회” 참가 전 바자회 정보를 획득하신 경로는 무엇인지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중복체크가능)
 - ① 지역 내 게시판, 거리현수막 및 배너(관공서, 아파트, 거리 등)
 - ② 인쇄 홍보물(전단지, 초대장 등)
 - ③ 온라인 매체(홈페이지, SNS, 홍보 영상 등)
 - ④ 언론매체(극동방송 등)
 - ⑤ 주변 사람의 권유와 추천
 - ⑥ 근처 방문, 우연한 참가
 - ⑦ 기타(내용 기입)

III. “사랑의 바자회”를 통한 교회에 대한 인식 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응답번호에 V표기 바랍니다.

1. 이번 바자회를 통해 교회가 지역 사회와 소통하고 있다고 느끼셨습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2. 이번 바자회에 참여하면서 교회 시설을 방문하신 소감은 어떠셨습니까?
 - ① 매우 어색했다. ② 약간 어색했다.. ③ 보통이다. ④ 좋았다.. ⑤ 매우 좋았다.

3. 바자회에 참여하기 전과 후, 교회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변화하셨습니까?
 - ① 매우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 ② 부정적으로 변화했다.

- ③ 변화없다.
- ④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 ⑤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했다.

4. 이번 바자회에서 교회 활동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게 되셨습니까?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5. 교회에서 주최한 다른 행사에도 관심을 가지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IV. “사랑의 바자회”에서 참여한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응답번호에 V표기 바랍니다.

※ 참여하지 않은 프로그램은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 분	항 목	매우 불만족	대체 불만족	보통	대체 만족	매우 만족
실내 공연	가족 뮤지컬 CATS “캣”의 만족도는?	①	②	③	④	⑤
실외 공연	1부(오전 11:30) 전체적인 만족도는? (사물놀이, 알토색소폰, 하모니카, 뚝찬양, 전통춤 등)	①	②	③	④	⑤
	2부(오후 3:00) 전체적인 만족도는? (태권도 시범, 리코더 합주, 중창, 합창, 우크렐레)	①	②	③	④	⑤
	3부(오후 6:00) 전체적인 만족도는? (바이올린, 남성중창, 혼성듀엣, 해금독주, 재즈 등)	①	②	③	④	⑤
놀이	유아, 유치 놀이존(기독교 강당, 4층)	①	②	③	④	⑤
	대형 에어 바운스(길이 24m)	①	②	③	④	⑤
	게임(해머게임, 인형뽑기, 두더지게임)	①	②	③	④	⑤
	바이킹	①	②	③	④	⑤
체험	체험의 전체적인 만족도는? (RC카 경주, 인생네컷, 에코백/바람개비/심자가/ 책갈피 만들기, 오해파라이팅, 새끼꼬기, 식수체험, 사슴체험, 대형보드게임, 그림북 만들기)	①	②	③	④	⑤
	가장 만족스러운 체험은 무엇인가?					
	가장 불만족스러운 체험은 무엇인가?					
먹거리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내용 기입)					
	먹거리의 전체적인 만족도 (국수, 천어무침, 수육, 순대, 김치, 팔죽, 찜빵, 파베기, 두부과자, 통닭, 닭강정, 김밥, 마리탕, 장어탕, 어묵, 떡볶이, 닭꼬치, 소떡소떡, 카페, 과일꼬치 등)	①	②	③	④	⑤
	가장 만족스러운 먹거리는 무엇인가?					
	가장 불만족스러운 먹거리는 무엇인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내용 기입)					
상품 구매	상품의 전체적인 만족도 (반찬, 간식, 젓갈, 해산물, 양념류 등)	①	②	③	④	⑤
	가장 만족스러운 먹거리는 무엇인가?					
	가장 불만족스러운 먹거리는 무엇인가?					
	불만족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내용 기입)					

V. “사랑의 바자회”에서 가장 불편했거나 불만족한 사항은 무엇입니까? (상위 3개 선택)

시설 관리 및 청결			
① 청결 상태 부족	② 좌석 및 휴식 공간 부족	③ 장애인/노약자/유아 시설 부족	④ 안내 서비스(표지판)부족
프로그램 및 행사 운영			
① 봉사자 불친절, 교육 부족	② 군중관리, 질서유지 부족	③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④ 안전사고 우려
음식 및 식사 관련			
① 음식 시설의 위생 상태	② 음식 품질 저하	③ 메뉴 다양성 부족	④ 음식 가격
교통, 주차, 홍보			
① 교통 혼잡 문제	② 교통/주차 안내 부족	③ 홍보 부족	④ 행사 정보 부족
기타(내용 기입)			

VI. “사랑의 바자회”에서 전체적으로 만족도입니다.? (해당하는 응답번호에 V표기 바랍니다)

설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올해의 “사랑의 바자회”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2. “사랑의 바자회”가 지속되는 것을 지지한다.	①	②	③	④	⑤
3. “사랑의 바자회”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사랑의 바자회”를 주변에 추천할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성 별	① 여성 ② 남성
연 령	① 10대 ② 20대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이상
체류시간	행사장에 머문(머물) 시간은 대략 (내용 기입 시간)
거주지역	① 지역 주민 ② 타 지역(광주 서구 외 지역)

※ 조사에 도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다 나은 바자회가 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Kyusang Song

Place and Date of Birth: Seoul, South Korea, March 6, 1982

Parent`s Names: Song Ki-soo and Kim Kyeong-ae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Seongwon High School 41 Daeboksa-gil, Namwon-si, Jeollabuk-do, Republic of Korea	Diploma	Feb. 12, 2000
Collegiate: Honam Theological University 77, Jejung-ro, Nam-gu, Gwangju, Republic of Korea	Th.B.	Feb. 13, 2007
Graduate: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25-1 Gwangjang-ro 5-gil, Gwangjin-gu, Seoul, Republic of Korea	Th.B.D.	Feb. 11, 2010
Graduate: Graduate School of Practical Theology 23, Inbaero 145beongil, Sindun-myeon, Icheon- si, Gyeonggi-do, Republic of Korea	Th.M.	Feb. 25, 2018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Kyusang Song

Name typed

March 15, 2026

date